

# 성경 공과

제2권

성장반 (Advance Class 1)



기드온의 전투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 성경 공과

제2권

Advance Class 1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 BIBLE STUDY NOTES

MEMORIAL EDITION

By Anita S. Dole

Edited By Wm. R. Woofenden

AMERICAN NEW CHURCH  
SUNDAY SCHOOL ASSOCIATION

##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2권 제4반, senior class만을 가지고 Advanced Class 1으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성서는 지상의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주는 사다리입니다.(창세기 28장 12절) 따라서 성서를 꾸준히 읽는 것, 베껴보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이유가 성서의 글자는 예수의 겉옷자락 처럼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정성어린 성서 읽기라 할지라도 성서가 불합리하게 기록된 듯 여겨지는 부분은 피할 수 없이 발견되고 이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성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의 기록에 사용한 언어인 상응(correspondence)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성심있는 성서 읽기를 계속하시는 분들에게 얼마간의 상응 지식을 전달하여 성서 글자가 함유한 속뜻을 살필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영혼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면서 결국 주예수의 품위가 여러분의 심정과 지성 그리고 생활에 있게 해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욥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어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번역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한 해석에는 직역이 필요한바 다른 성경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http://www.baysidechurch.org) 사이트에서 찾아 보기 바랍니다.

## 차례

이 책에 대하여...

|                      |                            |     |
|----------------------|----------------------------|-----|
| 1. 창조(첫 4일)          | 창세기 1장1-19절                | 9   |
| 2. 아담의 일을 거들 짝       | 창세기 2장 8-25절               | 14  |
| 3. 홍수가 빠지다           | 창세기 8장                     | 20  |
| 4. 아브람과 롯            | 창세기 13장 1-13절, 14장 1-16절   | 27  |
| 5.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 창세기 22장 1-14절              | 34  |
| 6. 야곱의 꿈             | 창세기 28장                    | 40  |
| 7. 감옥에 갇힌 요셉         | 창세기 39; 40장                | 46  |
| 8. 불붙은 떨기나무          | 출애굽기 3장                    | 53  |
| 9. 마라와 엘림            | 출애굽기 15장                   | 59  |
| 10. 퀘                | 출애굽기 25장 1-12절             | 65  |
| 11. 열 두 스파이          | 민수기 13; 14장                | 71  |
| 12. 여호수아를 부르심        | 여호수아 1장                    | 79  |
| 13. 아이 성의 포획         | 여호수아 7; 8장                 | 86  |
| 14. 판관 기드온           | 판관기 6; 7장                  | 95  |
| 15.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 사무엘상 3장                    | 104 |
| 16. 사울의 성급함          | 사무엘상 13장                   | 110 |
| 17. 다윗과 골리앗          | 사무엘상 17장                   | 116 |
| 18. 솔로몬의 영화          | 열왕기상 9;10장                 | 124 |
| 19.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 열왕기상 19장                   | 132 |
| 20. 히즈기야 왕과 이사야      | 열왕기하 20장                   | 138 |
| 21. 시편에 관하여(2)       | 시편 19편                     | 144 |
| 22. 대 예언서에 관하여(2)    | 예레미야 1장                    | 151 |
| 23. 에제키엘의 환상         | 에제키엘 1장                    | 157 |
| 24. 소 예언서에 관하여       | 요엘 4장 9-20절(개역 성경 3: 9-21) | 163 |
| 25. 요나와 큰 물고기        | 요나 1, 2장                   | 169 |

|                      |                            |     |
|----------------------|----------------------------|-----|
| 26. 주님의 세례           | 마가복음 1장                    | 175 |
| 27. 새 포도주            | 마가복음 2장                    | 182 |
| 28. 열 두 사도           | 마가복음 3장                    | 189 |
| 29.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 마가복음 4장                    | 195 |
| 30. 기적을 베푸신 주님       | 마가복음 5장                    | 201 |
| 31.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마가복음 6장                    | 208 |
| 32.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 마가복음 10장                   | 216 |
| 33.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 마가복음 11장                   | 224 |
| 34. 성 만찬             | 마가복음 14장                   | 231 |
| 35.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 마가복음 15장                   | 240 |
| 36. 부활하신 예수          | 마가복음 16장                   | 248 |
| 37.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 요한 계시록 4장                  | 255 |
| 38. 봉인된 책            | 요한 계시록 5장                  | 260 |
| 39. 심판과 거룩한 성        | 요한 계시록 20장 1-15절, 21장 1-7절 | 265 |
| 40. 새 교회 날           |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 270 |



# 1

## 창조 (첫 4일)

### 머리말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염두 해야 할 사항은 창조 이야기가 성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시작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이다. 이는 영적 이해와 진정한 선한 생활에 필수 사항이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와 주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 배움을 위한 유일하며 확실한 근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열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제 2권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부의 기초인 책은 주님의 책이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 본문은 창조의 첫 4일 동안에 관한 것이나, 7일간의 이모저모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1-19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 마른 땅을 풀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 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 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 교리 요약 (Doctrinal Points)

- \* 우리는 주님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 「Jehovah, 여호와」는 “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라는 뜻을 첫 째로 알아야 한다.
- \* 말씀 전체는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로 쓰인 비유이다.
- \* 믿음이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된다.
- \* 선한 행실로 인도하지 못한 진리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 상응 공부

땅 = 자연적 마음  
식물들 = 우리 마음 안에서 발달되는 진리들  
과일들 = 선한 일들  
새들 = 생각들

## 해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 의문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이다. 스웨덴북을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층에 남아있는 다양한 흔적이나 돌들을 연구했으며 우주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사 혹은 학설이 그에 대해 완전히 답할 수는 없었다. 성서의 제 1장 1절에서만 우리에게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을 주고 있다. “한 처음에 하느님이...” 즉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처음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모세가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그분에게 물었을 때 우리에게 준 이름 여호와(Jehovah), 즉 “나는 나다, I am”이며 이는 생명 자체이시라는 말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가지면서 순간부터 순간까지 생명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의 제 1장은 하느님 자신이 우리의 창조에 관해 말씀해주시는 경이로운 비유들이다. 이 장은 자연의 세계에 관해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영의 실제 세계에 관한 그림이다. 창조의 6일은 발달의 6단계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계와 모든 개개인 그리고 인류의 전체로서의 발달 단계에 대한 그림이다.

본반에서는 이 발달의 좁은 의미인 우리 개인의 발달에 적용되는 부분만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출발한다. 두 본성이란 “하늘과 땅”, 즉 보다 높은 것과 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출생할 때 두 본성은 그저 잠재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모양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 세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빛이 오는 것, “빛이 생겨라!”이

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 그리고 놀랄만한 빛이 있는 뒤 얼마 안 되어서 삶이란 먹는 것, 자는 것 혹은 노는 것 등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옳고 그름(선과 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는 것”, 즉 영적인 본성 속의 “물”인 진리가 물질적 복지 증진에만 관심이 있던 자아로부터 분리됨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보다 높은 것 혹은 낮은 것들 중에서 선택해 감에 따라 인격이라는 잘 다져진 땅이 형성되고 이로부터 우리 자신의 사상과 추론들이 발달하게 된다. 발달 초기에 사상 혹은 추론은 푸른 움처럼 여리고 단순하여 별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강하고 오래 버티는 나무들과 같이 된다. 젊은 시절의 다양한 형태의 사랑들과 경험들은 많은 사랑과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서 발달되어 우리의 항구적인 애착들로 되어간다. 그리하여 결국 완숙된 남녀가 되면서 건설된 인격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쉼과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6일 간의 영적 성장을 공부하면서 한번쯤 ‘나는 어느 날에 해당될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4반을 무리 없이 공부한 이들의 대부분은 아마 넷째 날을 뒤로 하고 나아갔을 것이다. 넷째 날에 하느님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창조하셨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주 하느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20절(구번역 4:2)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 승리의 태양”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발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정상적이며 건전하다면, 주님이 계심과 우리의 모든 생명, 즉 우리의 지성을 밝히는 빛과 우리의 심정을 훈훈하게 하는 따뜻함이 그분으로부터만 옴을 진실로 보게 된다. 이 해는 우리 속의 무지함이라는 구름을 뚫고 우리를 비추고 있다. 그 때로부터 이 해가 우리의 낮 시간, 즉 우리가 자신의 길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상태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심정 상태를 규율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꾸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밤중이라는 상태, 즉 우리가 가야할 길을 보지 못하여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상태 역시 갖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해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이 옳다는 믿음만은 갖고 있다. 이는 달빛이 깜깜한 밤의 길을 어렴풋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 이 빛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빛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의식에서 햇빛 혹은 달빛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갖고 있다. 이것은 별빛으로, 햇빛 혹은 달빛과는 비교되지 않는 적은 양의 빛을 발산하지만

항해자들에게 위치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별은 우리가 가진 주님의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말한다. 지식들은 대체로 적고 정리도 안 된 채로 우리 안에 있어서 당장은 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와 달이 없는 상태의 우리의 영혼에게는 마치 하늘의 별이 항해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나아갈 방향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에 대한 비평 중 하나는 빛이 있음이 해가 창조된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설명을 통해 창조 순서가 성경의 내적 의미 면에서 질서적이며 아름다운 발달 순서임을 명백하게 알았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일을 시작 초부터 하셔서, 어두운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이끌어 내어 환한 대낮 상태에까지 데려다주신다. 이 순서는 매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밤, 낮이 지나니, 또는 저녁이 오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1-2)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라고 서술한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 2) 하느님에 대해 어떤 책이 말해 주는가?
- 3)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 4)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빛을 만드셨는가?
- 5) 성서는 며칠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 6)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 7) 우리 영혼의 측면에서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8) 빛은 무엇과 상응되는가?
- 9)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 주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 11)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성서 3) 우리로 보게 해줌 4) 해, 달, 별들
- 5) 6일 6) 하느님이 쉬셨다 7) 보다 높은 본성과 보다 낮은 본성
- 8) 진리 9)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발달시키시는가에 대해서
- 10) 인류로부터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11) 거듭남 또는 인격의 완성

## 2

# 아담의 일을 도울 짝

### 머리말

본문은 글자적인 면에서는 아주 짧지만 그 이야기는 놀랄만하다. 따라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미리 반복해서 읽은 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는 본문을 읽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본과의 짧은 지면에서 예상되는 질문 모두를 다룰 수는 없으나 많은 의문은 본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흥미를 더해 갈 것이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의 짧은 구절에는 어느 누구도 글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깊게 감추어진 의미가 들어 있다. 단어 “갈빗대”에는 주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가장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이로부터 말씀의 모든 생명이 오고 있음을 염두 해 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8-25절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돌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돌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세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네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 교리 요점

- \* 모든 진정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
- \*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서의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스웨덴북을 통해 밝혀주신 증거들로 모두 이해된다.
- \* 태고 교회에서는 진리가 하늘로부터 직접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이 섰기 때문이다.
- \* 결혼은 영원이다. 진정한 결혼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며 더불어 서로가 자신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상응 공부

홀로 있음 = 안내자로 주님만을 찾음

잠이 듦 = 천국적인 것에 대한 무의식

뼈 = 인간 자신의 소유물 (what is man's Own, proprium)

### 해설

천국의 신비 제 152항에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 말씀의 구절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깊은 신비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관심을 두는 이가 별로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사실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믿기를 원하나 자신의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을 꽤 당황케 하기도 한다. 스웨덴북 역시 이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성경의 글자에서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여 성경의 권능과 그 결과를 알았고, 성경이 하느님으로부터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의 과학적인 재능으로 더욱 깊이 몰두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는 그에게 밝히 알려지게(계시) 되었다. 본문의 경이로운 내용은 주님이 스웨덴북을 계발시키시



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다.

앞서 공부한 창조 이야기는 한 개체로서의 우리에게 적용되는 좁은 측면이다. 그러나 넓은 측면으로는 개체들의 집합인 인류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단계의 넓은 의미는 주님께서 인류가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상의 인간이라는 종족을 발달시키신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 교회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는 곳과 인간에 의해 응답되어지는 곳이면 모두 다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 개체(개인)는 가장 작은 형태로서의 교회이고 이런 개체의 집단이 보다 큰 형태의 교회, 즉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이다. 한 때 지상에는 한 개의 진정한 교회가 있었다. 스웨덴붉은 주님이 인류의 어떤 특수한 시기와 상태를 위해 그 교회를 주셨을 때 그분의 진리를 받았던 집단(교회)이 있었고 심장과 폐를 통해 생명력 있는 피가 흐르듯이 세상의 선한 남녀들에게 그 교회로부터 진리가 흐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창세기의 첫 3장까지는 지상의 첫 교회, 즉 태고 교회를 다룬다. 즉 제 1장은 그 교회의 발생을, 제 2장은 그 교회의 번성을 그리고 제 3장은 그 교회의 퇴조를 다룬다. 에덴의 동산에 대한 이모저모는 첫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적 교회인데, 그 교회란 그들의 심정이 주님에 대해 알고자 하고 그분만을 섬기려고 하여 그들의 심정에 의해 규율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heaven)과의 교통이 열려 있었고, 지상적인 조건이나 삶에 관한 생각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든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각 개체는 신성한 길 혹은 이타적 사랑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함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 주님의 바램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개의 본성, 즉 천국적인 본성과 지상적인 본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과 지상적인 가능성에 대해 더욱 몰두하게 되어 더 이상 주님과 더불어서 “홀로” 살아가려 하지 않게 되었다. 스웨덴붉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태고 교회의 후손들은 홀로 사는 것, 즉 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천적 인간으로서 주님에 의해 인도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 교회처럼 국가들 사이에 있기를 원했다. 그들이 이를 바랐기 때문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욕망을 품은 사람은 이미

악에 속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천국의 신비 139항).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인간이 천적 상태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진하며 신뢰적인 갓난아기 상태에만 머물 수 없고 성장하여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설비해두신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선하게 남아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자신의 길로만 가는 면에서의 독립성이란 흔히 죄의 길 혹은 불행의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선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을 데려오신 후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것의 성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동물과 새란 우리의 애착(affection)과 생각들을 뜻한다. 자신 속의 애착과 생각을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선과 악에 대한 그것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 의무의 실행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독립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변화가 막상 실제로 되어 질 때, “깊은 잠”이 아담 위에 떨어지고 있다. 스웨덴북은 “깊이 잠들이란 자신의 것을 가지려는 것을 스스로 놔두는 상태로 마치 우리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147항). 아담으로부터 취한 갈빗대란 인간 자신(Man's own, selfhood)을 표현하는데, 인간은 이로 인해 특별한 의식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사실상 인간 자신은 죽어있는 뼈나 다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그 안에 호흡되어 들어가면 살아있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유용하고 행복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흔히 본문은 결혼이라는 주제와 관련되기도 한다. 마태복음 19장 3-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 스스로도 본문을 사용하고 계신다. 새 교회의 교리는 지상에서의 진정한 결혼은 주님에게서 오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하나 됨의 최말단(ultimate)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가르친다. 주님의 영으로 이브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역시 이에 대한 그림이다. 여러분이 주변을 살펴보면, 진정한 결혼은 남녀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도의 행복이며 가장 바람직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깊은 슬픔, 가장 찌그러진 상태 혹은 가장 격렬한 범죄까지도 남녀 사이의 진정한 관계의

전복에 따른 열매들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결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의 진정한 협조자가 될 때만이 존재한다. 또한 그것은 서로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때와 서로가 주님의 뜻을 배우려고 노력하여 그분의 의지를 실천해 보려고 할 때 존재한다. 이리하여 결혼은 영원하게 된다. 진정한 남편과 아내는 저 세계에서는 한 명의 천사로 여겨져 멀리서 보면 아예 한 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진정한 결혼을 원하는 이들은 결혼에 관한 이상을 거룩하게 보관하며 이상이 탈색되거나 썩게 되는 모든 요인을 피하려고 한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짝을 발견 못하는 때도 지속된다. 그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이 세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서 이 세상에서 형성된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인격이 되기 때문에서라고 스웨덴북은 설명한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2) 이 책은 누가 썼는가?
- 3) 성경의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4) 창세기란 어떤 의미인가?
- 5) 첫 사람의 보금자리로서 어떤 아름다운 곳이 주어졌는가?
- 6) 에덴의 동산은 무엇으로 적시어졌는가?
- 7) 주님은 그들을 위해 그곳에 무엇을 설비해 주셨는가?
- 8) 동산에서 어떤 두 나무가 특별히 언급되는가?
- 9) 본문에서는 첫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불리는가?
- 10) 아담은 가지지 않아야 할 어떤 것을 원했는가?
- 11) 주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에 관해 무엇을 해보라고 하셨는가?
- 12) 아담이 잠들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13) 신화에서는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 14) 스웨덴북은 에덴의 동산을 어떻게 부르는가?

- 15) 사람이 “홀로”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 갈빗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성서 2) 하느님 3) 창조 4) 시작 5) 에덴 6) 강  
 7) 과일 나무, 씨 있는 식물 8) 생명, 지식 9) 아담 10) 아내  
 11) 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붙임 12) 갈빗대를 취하시어 여인을 만듦  
 13) 황금시대 14) 태고 교회  
 15)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 16) 자아, 자신

## 3

# 홍수가 빠지다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문인 8장과 더불어 5 - 7장을 읽어두면 홍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고 교회와 고대 교회 그리고 천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에 대한 비교가 많이 언급될 것인데, 본과를 통해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용어들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서 유아와 어린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8장

8장: 1. 하느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짐짐승들의 생각이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기 시작하였다. 2.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3.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백 오십 일이 되던 날인 4. 칠월 십 칠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5. 물은 시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시월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6. 사십 일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을 열고 7.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 다녔다. 8.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9. 그 비둘기는 밭을 붙이고 앓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 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 들였다. 10.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11.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되돌아 왔는데 부리에 금방 탄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12.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13. 노아가 육 백 한 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14. 이월 이십 칠일, 땅이 다 마르자, 15.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17. 새나 짐승이나 땅에서 기어 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위에서 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위에 두루 번져나게 하여라.” 18. 노아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19. 들짐승과 짐승과 새와 땅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20. 노아는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21. 야훼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 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 교리 요점

- \* 하나의 교회가 그 교회에 주어진 진리에서 벗어나면,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신다.
- \* 고대 말씀은 우리의 성경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교회의 가르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 \*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되자, 주님은 양심의 발달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성 안에 하나의 새로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간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키셨다.
- \* 우리는 주님이 의를 행함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전에 의를 행하는 습관을 형성해 두어야 한다.

### 상응 공부

까마귀 = 거짓 사상

비둘기 = 하느님에 관한 진정한 사상

올리브 잎 = 선행으로부터의 진리

### 해설

창세기 6장 1-8절까지는 노아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사람의 딸들이란 태고 교회 내의 퇴화(변질)되어 간 인류의 이기적인 의지로부터 오는 애착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는 본래 주님으로부터 근원 되어 전통으로 내려 간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우선 첫 사람들이 심정을 통해 규율되었으며 그 상태는 천적인 타입의 특성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 특성은 좋은 방향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즉 그들의 심정이 악해지면 그들의 모든 바램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정은 오히려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 속의 모든 진리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악용된 진리들은 그 본질을 잃고 잘못된 진리, 즉 거짓으로 되어 마침내 그들에게 변화(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진리의 근원을 자신으로 가정해 그들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가 아주 위대하여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묘사된다. 이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신체적으로도 드러나 과잉 성장을 초래하게 되어 거인족이 등장했다. 고대 거인들 중의 잔류는 홍수로 그려진 종족들의 파멸에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성경 상에서 그들 중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 부분에서 「아나킴」과 개인으로서는 갓 출신 「골리앗」 그리고 바산왕 「옥」 등이 그들에 해당된다. 그 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라는 구절이 뒤따른다.

이러한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견 된다. 자기를 극구 찬양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뒤틀어서라도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사상을 옹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구성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실제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그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어떤 진리라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기심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수록 재구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태고 교회의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의 우리와 달라 구원이 불가능했다. 스웨덴붉은 태고 교회의 말기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망상으로 인해 실제로 질식사했으나 그들 중에 노아로 그려진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려는 바램을 가져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달 되도록 그들의 의지와 이해성을 분리시키는 변화를 작업하셨다고 설명한다. 이 변화에 대한 그림은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라는 구절로 묘사된다. 방주는 주님께 순종해 보겠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격이다. 그들의 심정 속에는 악이 단연 우세했다. 그러나 그들이 홍수로 표현되는 시험을 맞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그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노아와 더불어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과 새들이란 이런 인격 속의 애착과 생각들이며, 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포함된다.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한 역청은 자위적인 본능에서 오는 동기를 뜻한다. 홍수 동안 굳게 잠긴 채 있었던 옆의 출입문이란 타인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정상적인 교제를 말한다. 하늘을 향한 창문은 시험 동안 닫혀져 있었으나 홍수 후에 즉각 열려졌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에의 접근 양식을 상징한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의 삶이 억류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나쁜 습관에 빠져 있었던

사람에게는 한동안 이 말이 맞을는지 모른다.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노아이다. 그러나 시험이 그를 유혹하는 것을 중단할 때, 즉 그가 새로 형성한 습관이 과거의 습관보다 더 나음을 발견할 때 그는 기독교적인 삶 속에서 자유스럽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때의 사람이 다시 땅을 다스리고자 방주 밖으로 나오는 노아와 같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란 인간이 가진 자연성과 거짓 사상 그리고 진정한 생각들을 말한다. 까마귀는 날아가서 성취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비둘기는 끝까지 날아서 올리브를 발견한다. 올리브란 새로운 삶 속에 있는 선함과 진리를 상징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올리브 열매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그리고 올리브 잎은 선행으로부터의 진리를 표현한다. 올리브에 대한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을 때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자.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여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신앙이 어느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마치 뒤로 미끄러져 쏠살같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걸잡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시험에 드는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시험을 극복하고 난 뒤에도 영적인 삶 곧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험을 통해 분명해진 진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원칙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은밀히 탐색한다. 이러한 노력의 상태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찝막한 구절에 담긴 내용에 대한 간략한 풀이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자신의 새 생활의 미래를 건주어 볼 때 자신 속의 까마귀는 “내가 작성한 새로운 길이 언제 어디서나 내게 정말로 이로운 것을 가져다줄까?”라고 의아해 한다. 반면, 비둘기는 “아냐, 이 길만이 진정으로 선하고 유용한 길이야.”라고 응답한다.

방주를 나와 땅을 밟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제물로 드리는 광경은 두 번째 교회, 즉 고대 교회가 발달하게 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예배 형식을 그려준다. 우리는 이와 비교해서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하늘과의 교통이 열려 있어서 주님이 직접 각 개인의 심정에 자극을 주는 형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적인 심정 상태이다. 그러나 이해성과 의지가 분리된 후에는 지성 안에서 하느님에 관한 사상들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지성 속에서만 나타나고 되새겨져 삶의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태고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에 대한 표현물로 보았다. 즉, 그들은 자연계를 영적 실재의 거울로 여겼던 것이다. 거울 앞에 선 물체를 영계(실체)로, 거울 속에 든 물체를 자연계로 보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식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통으로 전해 내려와 고대 교회를 형성했다. 따라서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그 지식을 흠모했고 지식의 습득이 그들의 가장 큰 공부요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신들의 애착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주님에 대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처음에는 제단 또는 제물은 바쳐지는 것들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이해된 것, 즉 상징적인 가르침이 주님의 영감하에 받아 쓰여 저 고대 말씀을 형성했다고 설명한다. 창세기 첫 7장까지는 이 말씀으로부터 쓰였고, 고대 말씀 중의 일부 책이름만이 오늘의 우리 성경 안에서 언급되고 있다. 스웨덴북은 고대 말씀이 대 타타르 지방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후의 우리의 첫 바람과 새 생활에서 자유로움을 발견한 우리는 노아의 첫 행동과 같이 시험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다해 그분을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롭고 끝없이 지속될 질서 안에 몰입되기 시작하고 주님에 의해 규율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그 교회가 결코 파괴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류에게 배려해주신 교회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의미를 잃게 되면, 주님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옛 교회의 사람 중 선한 나머지들을 선택하여 새 교회의 초석이 되도록 준비하신다. 스웨덴북은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준비된 사람들을 리메인스(remains), 곧 남겨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농부의 종자 씨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농부는 거울을 나는 동안 식량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내년의 농사를 위해 종자 씨를 아껴둔다.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의 각 때는 결코 실패가 없다.

## 질문 정리

- 1) 인간이 창조된 후 그들은 어디에 놓여 졌는가?
- 2) 왜 그들은 만족치 못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의 새로운 필요에 어떻게 대처해 주셨는가?
- 4) 인간은 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항상 살 수 없었는가?
- 5)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의 길로 갈 때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가?
- 6)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7) 누가 구원되었는가?
- 8) 그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9) 비는 며칠 동안 쏟아졌는가?
- 10) 비가 그쳤을 때 노아가 연 창문은 어디에 있었는가?
- 11)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어떤 새 두 마리를 날려 보냈는가?
- 12) 까마귀는 무엇을 했는가?
- 13)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내보냈는가?
- 14) 첫 번째에는 무엇이 발생했는가?
- 15) 비둘기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 16) 세 번째에는 어떠한가?
- 17)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첫 일은 무엇이었는가?
- 18)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9)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 까마귀와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21) 올리브 잎은 무엇에 상응되는가?
- 22) 주님은 고대 교회의 시작에서 인간의 구조 속에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는가?
- 23) 노아로 기술되는 문명화를 설화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질문의 답

- 1) 에덴    2) 독립하기를 원했다
- 3) 이기심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 4) 불순종했기 때문
- 5) 나쁜 행위는 또 다른 나쁜 행위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6) 자신들의 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7) 노아 8) 방주 9) 40일
- 10) 방주 꼭대기 11) 까마귀, 비둘기 12)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 13) 세 번 14) 되돌아 왔다 15) 올리브 잎 16) 되돌아오지 않았다.
- 17) 제단을 쌓았다. 18) 더 이상 홍수가 없게 하리라. 19) 거짓 사상들
- 20) 거짓 생각과 진정한 생각 21)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 22) 지각 대신 양심을 설치하심 23) 은 시대

## 4

# 아브람과 롯

### 머리말

본문 외에 11, 12, 18 그리고 19장에 걸쳐 롯의 이야기 전체가 연결된다. 아브람과 롯의 가나안으로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 내용을 기억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확한 지역은 불확실하다. 현재의 위치로는 사해 부근으로 추측되며, 성경 시대상으로는 요르단 평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13장 1-13절, 14장1-16절

13장: 1.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겟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2.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3. 아브람은 네겟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 곳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5.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 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6.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 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9.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10.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훼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11.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13.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14장: 1.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룩,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2.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3. 이들 다섯 왕은 동맹을 맺고 시뫼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뫼 골짜기는 지금 짠물호수가 있는 곳이다.

4. 이들은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5. 십사 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드룟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스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엠족을 치고 6.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쳐내려 왔다. 7. 그들은 거기에서 말을 돌려 재판 샘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 가 아말렉족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 무찔렀다. 8.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뫼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9.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룩과 어울리니, 네 왕이 다섯 왕과 맞붙은 것이다.

10. 그런데 시뫼 골짜기에는 역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11.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12.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13.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 때 아모리인 마르레의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르레는 에스콜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14. 아브람은 자기 골육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 낸 사병 삼백 십 팔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15.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틔타 그들을 기슭,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해 가면서 16.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 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시험되어질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
- \*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은 진정한 역사이면서 비유이다.
- \* 우리의 생각이 천국적 원리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원리에 기초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 \* 주님께 기꺼이 순종해 가는 삶은 천국으로 인도된다.

### 상응 공부

가나안 땅 = 천국적인 상태

이집트 = 자연적인 학식이 있는 상태 또는 기억적인 지식

계곡, 평야, 분지 = 자연적인 삶의 평면

### 해설

앞서 우리는 태고 교회가 완전히 썩어 악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중에서 그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고수한 소수의 사람들을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해내서 그들을 고대 교회라 불리는 새 교회로 출발시켜 주셨음을 살펴보았다. 고대 교회는 그들 선조보다 영적 삶의 수준이 한 계단 떨어진 상태에 속했지만 선조와는 아주 다른 인격을 소유했다. 그 교회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기술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뒤집어 가기 시작했다. 즉, 그들이 가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주님이 주신 계시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기발한 재능이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충당시켜 갔다. 초기에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상기시키고자 그것을 표현할만한 자연물, 즉 새 또는 동물 등의 형상을 세워 두었다. 그 교회들이 점점 이기적인 쪽으로 기울어 하향됨에 따라 그 형상들을 우상으로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타락되고 저속화된 많은 형상들까지 출현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저마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 수많은 괴상한 신조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평화로운 상태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그들의 후손들은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 교회의 나머지의 분산이 창세기 11장 1-9절에 있는 바벨탑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지상의 흔적을 추적하면서도 발견 가능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근원적인 상태가 우상 숭배적이며 호전적이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상 숭배 혹은 호전성이 길고 긴 하향 상태의 결과였을 뿐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다. 성경에서의 진정한 역사는 바벨탑이 기술된 후에 시작된다. 즉, 본문 앞부분이므로 우리는 실제 인물들을 공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인물들의 역사도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지고 있어서 창세기의 앞 장들과 같이 연속적인 내적 의미들을 갖도록 섭리되고 있다.

고대 교회의 선한 나머지들로부터 건설된 새 교회는 앞선 교회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었다. 우리 속에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이는 의지와 이해성 그리고 행동이다. 태고 교회는 의지 부분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고대 교회는 이해성 부분을 통해 인도되어 주님과 연결이 가능했다. 세 번째 교회인 유대 교회는 바깥쪽 지침인 순종을 원리로 하여 전적으로 규율되어진다. 스웨덴북은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단지 교회라는 이름뿐인 교회, 즉 교회를 표현하는 형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속에 “속 또는 내적”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교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정들에 신뢰를 두고 있는 한 율법에 대한 준수는 주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는 그들의 율법과 각종 규정 속에 영적 실재에 대한 상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브람은 유대교의 시조가 되도록 주님께 의해 선택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무엇이든지 글자 그대로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의 고향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 변성하여 큰 국가를 이루게 해 주겠다고 약속된 땅, 즉 거룩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부름을 받았다.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요약해 볼 때 가장 상징적 이야기는 유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상태들에 대한 이모저모이다. 우리에게는 의지와 이해성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어떤 이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인간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분노할지 모른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는 선했으나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온 것은 타인 또는 사회 등의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너는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며, 치고 박기를 좋아하고 질서에 거역하는 아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혼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기적인 성질을 갖고 태어남은 완전히 부정될 수 없다. 주님은 첫 책으로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모 또는 선생을 통해 가르치신다. 후에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우리 모두는 아주 이른 시기에 아브람처럼 우리의 자연적 유전성을 떠나 천국적 삶인 거룩한 땅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따라서 아브람의 전 시기는 우리의 어린 시절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 속에 인간 존재의 양면인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음을 배웠다. 이것은 성서의 첫 장 첫 절인 하늘과 땅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바깥쪽 삶의 발달과 아브람을 연관시켜 보면, 아브람은 속 사람으로 롯은 겉 사람으로 상징된다. 롯은 아브람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했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브람과 더불어 부자가 되어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은 풀밭을 놓고 다툼을 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해야 선택지 또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절의 선택은 부모에 의존되지만, 머지않아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려는 시기를 맞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을 선택할 지 아니면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사이에서 이리저리 재보는 마음속의 다툼이 있게 된다. 이러한 대칭 되는 원리가 바로 아브람과 롯의 “목자”이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이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속의 세상적인 측면이 더 높은 것, 즉 속 사람의 지휘 감독에서 스스로 분리되고자 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 롯은 요르단의 낮은 평야를 선택했다. 이는 그곳이 마음에 들고 비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많은 이들이 외적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과 비등하다. 의지 속의 이기심과 이를 더 부추기는 거짓을 상징하는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 평지에 터를 두고 있다. 처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떠맡고 있었던 전쟁에 휘말렸다. 그래서 그는 전쟁 포로가 되었으나 아브람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는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을 잔뜩 품게 되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 가서는 남을 억지로 시기하거나 또는 경쟁의식을 갖고 헐뜯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떠올려 보면 납득될 것이다. 이 후의 롯의 이야기는 19장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해지려던 때쯤에는 롯이 소돔 성문 곁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성이 멸해지기 직전 두 천사의 방문으로 간신히 구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까지도 걸 사람의 애착을 상징하는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 뒤돌아 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만다. 소금 기둥이란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이들이 옛 삶의 달콤함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다. 이 소금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 멸망의 순간에서도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들의 충고를 거절했다. 이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른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나 바람은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영적인 진보의 길에 있는 걸림돌 역할을 함을 주지하기 바란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고 마무리해보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누가복음 17장 31-33절: “그 날 지붕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아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들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 3) 왜 그들은 우르를 떠났는가?
- 4)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그는 어떤 나라에 갔다 와서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가?
- 6) 그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어 돌아왔는가?
- 7) 그들이 되돌아 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8) 아브람과 롯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 9) 아브람은 롯에게 무엇을 제의했는가?
- 10) 롯이 어떤 곳을 선택했는가?
- 11) 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했는가?
- 12) 롯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위험이 그곳에 있었는가?
- 13) 롯에게 어떤 곤란이 닥쳤는가?
- 14) 누가 그를 구했는가?
- 15) 우리 삶의 측면에서 보면, 롯의 선택은 무엇을 그려주는가?
- 16)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 17) 감각적인 모든 쾌락은 전부 피해야만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아브람과 롯 2) 갈대아 우르 3) 주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 4) 제단을 쌓았다. 5) 이집트 6)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 7) 베델 8) 목자들이 다투었다. 9) 지역의 선택 10) 평야
- 11)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12) 소돔 13)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 14) 아브람 15) 당장 쾌락을 주는 것을 다 해보려는 상태
- 16) 이기심, 세상적인 생각 17) 그렇지 않지만 적당한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5

#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 머리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노력에 얻은 아들 이사악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도 상상할 수 있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2장 1-14절

22장: 1.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 아!”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2. 하느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3.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제물을 사를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4.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하고 나서 6.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7.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9. 하느님께서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1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12.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13.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보니 뿔이 덩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수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은 그 곳을 야훼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고들 한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우리속의 이기적인 바램으로 비롯된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오게 되는 시험을 단지 허용하실 뿐이다.
- \* 말씀은 선뿐만 아니라 악에도 연결 가능한 형상(形狀)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 \*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 믿음은 종종 많은 거짓 사상과 혼합된다.
- \* 우리가 말씀에서 계명들을 본대로 순종하여 시험에 맞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의를 행할 힘을 주신다.

## 상응 공부

나귀 = 자연적 이성

수양 = 순진하기 때문에 힘이 센 진리

나무, 장작 = 우리의 바깥 행동을 선하게 하고 싶은 바램

칼 = 진리

## 해설

성경에서 아들의 출생은 진리에 대한 새로운 발달 또는 새로운 지적 능력을 그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속에 있는 단순한 순종의 상태를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로 그는 이집트 출신인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외관에 따라 추론할 뿐 영적인 것을 참작하지 않는 우리 속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추론 능력이다. 이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에는 자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겨서라도 확실히 하려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는 이들에게는 참을성이 없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모든 이들과 다투기 좋아하며 연장자들의 충고 또는 그들의 사상을 비웃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좀 더 심한 이들은 타인과의 타협이 좀처럼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들을 피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다 낮은 추론도 필요하며 유용한 능력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거룩한 땅 내에서는 살 수 없다. 따라서 낮은 능력은 보다 수준 높은 능력과 분리되어야만 한다. 보다 수준 높은 능력이 영적 추론이며, 이는 이사악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사악은 이스마엘이 열 네 살이었을 때 태어났다. 이사악은 사라가 구십 세 때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내로 영적 진리에 대한 애착을 표현한다.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앞서 우리는 이집트가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함을 배웠다. 이사악은 성장하여 거룩한 땅을 상속받고, 히브리인들의 두 번째 열조가

되었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시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의아심을 갖게 한다. 그 이유는 글자 상에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말해졌다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글자의 많은 부분들이 스웨덴봄이 일컫는 바대로 진리의 외관에 의해 쓰여 졌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말씀이 쓰여 짐에 있어서 주님은 받아쓰는 인간이 가진 그대로의 마음을 사용하셨다. 그들은 어떤 때는 주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의 지성 속에 있는 거짓과 그들의 심정 속에 있는 악한 바람으로 인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진리를 구름처럼 가리거나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의미를 돌려놓았다. 선한 심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해하며 느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의 고집 쪽으로 향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지성이 어떤 거짓 사상으로 향해 있을 때는 우리의 선량한 자극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쁜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서 돌려놓는 것을 경험했으리라 본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는 형태를 취하되 주님이 말씀을 내린 그 사람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심지어는 반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양육되었다. 그의 조상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성의를 표현하는데 동물을 제물로 하거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의 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며 상속자인 그의 아들을 하느님이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다. 제물에 대한 이 같은 잘못된 사상들은 기독교계에서도 보기 드문 것은 아니다. 이런 사상을 기초로 생각하다보면 우리는 실제로 즐기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대단히 좋아하는 어떤 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주님이 세상과 세상 속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다. 제물로 바친다함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하게 만듦이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분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쓰여 지는 것을 뜻한다.

내적인 의미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주 명확한 실용성을 갖고 있다. 아들이란 진리의 새로운 도약을 그린다. 아들 중에서도 이삭의 측면에 국한시켜 생각하면 영적 합리성, 즉 우리 속에 있는 보다 높게 추론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인간은 이 능력이 자기 고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를 상당히 즐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함은 우리의 추론하는 능력과 우리 안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그린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인식한 후 종교에 관해 추론하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고 시험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추론하는 능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능력은 섬김이라는 길로 가도록 그분의 진리로 방향이 잡혀지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 사상 혹은 관념에 의해 혼돈되어 왔다. 이것은 본문에서 “뿔이 걸려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삭을 살아 있도록 구해야 하며 그 대신 수양을 제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진리를 찾는 우리 스스로의 추론은 계속되어야 하나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인도 하에 우리의 사상들을 복종시켜 선행하고 유용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한번쯤 누군가를 도와 보려고 애썼는데 선행을 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의도는 선행이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끌고 나갈 지혜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이성”을 발달시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적 이성”의 발달은 말씀을 꾸준히 배워가며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주님과 그분의 목적의 진정한 지식 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기초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길 바란다.

## 질문 정리

- 1)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 2) 그들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3) 그들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4)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도록 시험되었는가?
- 5) 그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는가?
- 6) 주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 7)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8) 모리아산에는 오랜 후에 무엇이 지어졌는가?
- 9) 아브라함의 여행은 며칠이 걸렸는가?
- 10) 아브라함과 이사악 외에 누가 여행을 함께 했는가?
- 11)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났는가?
- 12) 산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는가?
- 13) 이사악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 14)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 15)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느 시험에서 멈추게 했는가?
- 16) 주님은 그를 어떻게 멈추게 했는가?
- 17) 아브라함은 이사악 대신 무엇을 제물로 발견했는가?
- 18) 시험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가?
- 19) 주님은 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 20) 이사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21)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 지는가?

#### 질문의 답

- 1) 사래 2) 이사악 3) 아브라함은 백세였고 사라는 구십 세였다.
- 4)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5)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포기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 6) 자기 믿음을 테스트하도록(확증하도록) 배려해 주심
- 7) 모리아산 8) 성전 9) 3일 10) 두 종 11) 나귀, 장작, 불, 칼
- 12) 이사악, 아브라함 13) “어린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 14)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
- 15) 그가 칼을 잡고 막 찌르려는 순간에 16) 천사 17) 수양
- 18) 아니다 19) 우리의 인격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 20) 영적 이성 21) 종교에 관해 추론하는 것을 억제함 (생각해봄도 없이 유명한 장연자의 말이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식)

## 6

### 야곱의 꿈

#### 머리말

세 가지 요점을 연결하여 본과를 진행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1) 야곱과 이사악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 2) 하란 지역 그리고 3) 베델 지역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28장

28장: 1. 이사악은 야곱을 불러 들여 복을 빌어 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2. 너는 바탄아람의 브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3.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5. 그리고 이사악은 야곱을 떠나 보냈다. 야곱은 바탄아람으로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6.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고 바탄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7.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탄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8. 에사오는 아버지 이사악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9.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10.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11. 한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 간 뒤였다. 그는 그 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13.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사악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4. 네 후손은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 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16.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하며 17.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문 이로우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20.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20.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 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21.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22.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다.”

### 교리 요약

- \*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 \* 말씀은 주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다
- \* 우리는 말씀의 글자 속에 있는 진리로부터 믿음을 발견한다.
- \* 「기름 부음」이란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확인하는 행동을 상징한다.

### 상응 공부

돌 = 진리  
기름 = 사랑

### 해설

본문의 내용은 일반인들 또한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본문의 장면들은 아주 뚜렷하여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넣기도 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모습, 빛나는 사다리(층계)가 하늘까지 뻗쳐있는 모습, 빛나는 용모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그리고 꼭대기에 빛나는 용모의 주님을 상상하게 한다. 이런 자연적 모습을 영적 눈으로 들여다보면, 환상이 한층 더 아름답다고 실감하게 된다. 앞서 우리는 돌이란 진리들을 표현함을 배웠다. 진리를 실천하려고 각오할 때의 심정으로 진리를 생각하면 그것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늘 진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또는 공포에 떨게 될 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야기할지 모르는 곤경 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서 배워 둔 진리가 야곱이 베개삼은 돌이다. 다시말해 새로운 우리의 과업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바램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데서 발단된 것인바 무엇이 닥쳐오든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야곱이 돌을 베게 삼아 있는 모습과 같다. 아브라함-이사악-야곱이라는 시리즈적인 측면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성경에서 아주 어린 시절로 표현된다. 아주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추론의 능력이 발달되어 부모나 선생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말씀에서 배운 것들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 시기는 대략 7세부터 16세까지에 있게 되는 우리의 발달 모습인데, 이는 이사악으로 표현된다. 이 시기를 거친 후에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한다하더라도 이 시기는 완전한 독립이 아닌 단지 부모의 지배나 인도를 직접적으로는 더 이상 받지 않을 뿐이다. 이 시기는 야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곱의 여행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찾아 떠나거나 일찍 직장을 찾아 생계를 꾸릴 준비를 하는 인생의 시작 단계에 있게 되는 정신적인 경험과 아주 밀접하다. 이 시기에 해당된 이들은 미래를 향해 꽤 열성적이지만 충분히 열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미래의 일들과 연관하여 생각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며, 여전히 누군가 즉 부모나 친지들의 조력에 은근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야곱의 꿈이 필요하다. 이는 그의 꿈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의 뒤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천국까지의 우리의 “층계 혹은 길”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말씀만이 지상의 교회를 천국과 그리고 인간을 하느님과 연결시켜 준다. 말씀의 발이 지상을 딛고 있는데, 말씀의 발에 해당되는 것은 말씀을 실은 글자이다. 글자란 지상에 있는 자연물과 지상에 사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꼭대기에 주님이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러면 천사란 무엇인가? 천사란 단어는 “전달자 혹은 특사”라는 뜻이다. 우리가 주님께 관해 알아야겠다는 진지한 태도로 성경을 펴게 되면 “천사”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언젠가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이고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순간은 바로 야곱이 꿈을 꾸는 동안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신실하다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 주는 약속은 우리의 현 위치 또는 경험이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아침에 깨어난 야곱의 첫 반응은 경외함이었다. 그는 주님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심을 실감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아 그와 주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게 될 때 글자 속에서 비쳐오는 진리들은 우리 삶의 보증서로서 우리의 지성 속에 굳건히 세워진다. 세워진 진리는 각자 삶의 경험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바, 야곱이 취한 첫 반응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야곱처럼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움직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자 속의 진리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떨어지니 형식적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축복이 있다는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대신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한 태도를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받는 모든 것 중 십분의 일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야곱의 약속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십일조”로 표현된 진정한 의미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누구나 곤경 또는 위험에 처하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때에도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로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에 관해 배우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에게 “내가 시대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28:20).” 라고 약속하신 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이사악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은 누구인가?

- 2)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는가?
- 3) 그는 어디로 갔는가?
- 4) 그가 가는 도중 하룻밤을 지낸 곳은 어디인가?
- 5) 여러분은 본문 외에 어느 부분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접했는가?
- 6) 야곱은 무엇을 베개로 사용했는가?
- 7) 그는 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8)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 9) 누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가?
- 10) 천사란 무슨 뜻인가?
- 11) 주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을 했는가?
- 13)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가?
- 14) 꿈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15) 우리가 가진 야곱의 사다리이란 무엇인가?
- 16) 우리의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란 무엇인가?
- 17)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에사오와 야곱    2) 아내를 구하고 형을 피하기 위해서    3) 하란    4) 베델
- 5) 아브람의 이야기    6) 돌    7) 사다리    8) 주님    9) 천사들    10) 특사, 전달자
- 11) 네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의 것이 되게 하리라    12) 석상을 세웠다    13) 16-19절을 읽어 보자    14) 야곱에게 용기를 주었다    15) 말씀    16) 생각들    17) 각자에게 기초가 되는 진리들

## 7

### 감옥에 갇힌 요셉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본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공부 중에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체류했는지, 그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었는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음 등이다. 또한 4반과 5반에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리즈가 갖는 의미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집트의 의미도 재고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어 왔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친숙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흥미롭다.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창세기 39, 40장

39장: 1.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 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2.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3.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 되게 해 주셨던 것이다. 4.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 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5.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6.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끼끗하고 잘 생긴 사나이여서 7.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꾀는 것이었다. 8.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 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9.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10.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 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11.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12.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13.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14. 그는 집안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고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 왔구나. 그 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15.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 둔 채 뛰쳐나갔다.” 16.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17.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글썄 그 놈이 내 방에 들어 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18.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19.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단 말이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20.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2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22.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40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2.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3. 경호 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4. 경호 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 온지 여러 날이 지났다. 5.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7.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는군요. 왜 그러십니까?” 8.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 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였다. 9.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10.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11.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 드렸대요.” 12.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5.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 올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16.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본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17. 제일 윗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18.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하며 요셉이 말해 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19.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20.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21.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22.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 버렸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영적 애착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애착을 보호하며 강건케 해 주신다.
- \*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 진리는 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 \* 주님께 순종함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상응 공부

빵 = 선함

포도주 = 진리

## 해설

스웨덴북은 다양한 각도로 요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간단명료한 것은 「천국의 신비 제 3969항」인데, 요셉은 “진리로부터 있게 되는 선”을 표현한다고 설명된다. 이를 더 설명하자면,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해지려는 깊은 바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바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도록 해 주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생각 속에서도 시정해야 할 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가게 해준다. 창세기 37장 19절을 기억해 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꿈장이가 온다.”라고 말한다. 이는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형들과 부모보다 더 위대해진다는 꿈의 내용 때문이었다. 우리의 영적 애착은 자연적 애착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나 자연적 애착들은 그 법칙에 저항하기 위해 영적 애착을 시야 밖, 즉 “마음의 뒷전”에 처박으려고 애쓴다. 마음의 뒷전에 두는 순서는 먼저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고 후에는 그를 이집트에 팔아버린다.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집트란 “기억적 지식”을 의미한다. 기억적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 진리들이 자연 과학에 속한 우리의 지식에 묶이도록 하여 영적 진리들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 즉, 꿈의 해석이란 우리가 장차 겪을 경험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보는 것을 뜻한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주님의 견지에서 의를 행하려는 진지한 바램으로부터만 오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혹은 오랫동안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편치 않게 할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감금시키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모른 척 해버리는 것, 우리의 영적 미래를 관심 밖으로 두는 것이 당장에는 시원하게 느껴지거나 그것이 자신을 유쾌하게 하거나 현명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보호하셨다. 먼저 요셉은 왕의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된다.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세상적 추구에 전념해 있을 때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 또는 교회에 나가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때와 같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 종교와의 연결 상태는 이기적으로 향한 우리의 속마음과 토닥거리

는 다툼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지닌 의미이다. 또한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신 안의 보다 높은 자극을 짓누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듯이, 우리는 더 깊고 높은 종교적 측면에서의 느낌들을 한쪽 마음 구석에 처박아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만든다.

파라오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다. 파라오(왕)란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 중에서 기억 속 모든 지식을 좌지우지하는 원리를 뜻한다. 따라서 그 원리는 때로 좋은 결과를 있게 하고 나쁜 결과도 있게 하는데, 이는 마치 나라에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 모습과 같다. 왕의 대신 또는 시종이란 우리의 원리가 결정 한데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감각 기관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감각들이 원리가 세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마음 안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빵이 선함을, 포도주는 진리를 표현함을 배웠다. 따라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란 우리 마음의 지적인 면에 영향을 주게 될 감각들을 표현하며,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란 의지를 일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감각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감각들의 직무 수행이 선과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감각들은 질서대로 되지만, 거짓과 악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그것들은 질서 없게 된다. 본문에서 두 시종장에게 요셉이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꿈을 말했다. 반면,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 해석이 마음에 들면 말하려고 주저하고 있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그가 복직되어 옛 모습 그대로 파라오의 술잔에 포도주를 짜 넣어 올리는 모습이었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빵이 파라오에게 올려지기 전 새들이 그 빵을 먹어 버리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새와 관련하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이 구절에서 새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함들이 우리의 생명으로 싹트기도 전에 그것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짓들로서 나쁜 측면에서의 새의 상응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히 인생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직장 혹은 전공에 몰두하여 종교에 관한

생각을 삶의 최전방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기억 속 어느 구석에 감금시켜 두는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가 밥 먹여주나?”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그의 가족들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기근이 닥치자 요셉의 가족들은 그들의 식량과 보호를 위해서 요셉에게 가야 했다. 인생 중 빠르든 혹은 느든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힘 또는 그분의 빛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곤경이 오게 마련이다.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속의 “요셉”을 보존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 안의 요셉을 기억이라는 감옥에 가두거나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요셉의 보호 하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때, 즉 요셉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는가?
- 2)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어디로 끌려갔는가?
- 3)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 4) 그와 더불어 감옥에는 누가 있었는가?
- 5) 요셉은 두 시종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6) 술잔을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7) 빵을 구워 올렸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인가?
- 8) 두 시종장의 신변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했는가?
- 10) 우리 삶에서의 요셉은 무엇인가?
- 11) 우리는 때로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 12)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1)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귀여워했고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2) 이집트  
 3)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4) 파라오의 두 시종장 5) 꿈을 해석해 주었다. 6)  
 잔에 포도주를 붓는 모습 7) 새들이 빵을 먹는 모습 8)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되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이 매달려 죽었다. 9) 기억 못함 10)  
 선해지려는 마음(바람) 11)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갖게 되어 선해지고자 했던  
 마음을 잊으려고 할 때 12) 우리의 경험을 이해함

## 8

# 불붙은 떨기나무

###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내용과 본 과를 연관 지어 본다. 즉,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한동안 요셉의 보호를 받았던 것과 이집트에서의 편안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 가야함을 망각해 버리는 시험을 겪게 된 것을 본 과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이 주신 선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옳은  
 길, 즉 선택해야 할 길 대신에 편한 길을 택했던 것이다. 또한 롯에게 살아갈 땅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목도 예로 든다. 쉽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과 옳은  
 것에 항상 고생이 뒤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장

3장: 1.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2.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3. 모세가 “저 떨기가 어찌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4.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5. 하느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6.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뵈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7.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8.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 가고자 한다. 9.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10.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어라.” 11.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내겠습니까?” 12.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나?’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15.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 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17.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 가기로 작정하였다.'

16.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할 길을 걸어 가 우리 하느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20.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 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 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22.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얻어 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탈리라."

### 교리 요점

- \* 주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I am)”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악용될 수 있는데, 상응에 관한 지식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마술로 변한 사실이 그 예다.
- \*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

### 상응 공부

미디안 = 아주 단순한 혹은 어린 시절 같은 신앙심

신발 = 우리의 일상생활 혹은 “실제적인” 생각들

## 해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오래 머물러 노예 상태가 된 것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 세상적인 것들의 노예가 됨을 그려준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쫓다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가 돈 또는 일의 노예가 되거나 정치를 하다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예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직장을 생각할 때 일상 업무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고향뿐만 아니라 그들 하느님의 이름조차도 잊어 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 삶과 자아 만족이라는 갑옷의 단추를 푸는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모세가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숫자 40이란 시험 또는 시련이 충만한 상태를 뜻한다. 당시 이집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고대 말씀의 잔재들이 모세 시대 때까지도 그곳에 있었을지 모른다. 상응들은 이집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상응에 관한 지식은 상형 문자로 된 문서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악용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즉, 모세가 몇 가지 기적을 파라오에게 보였을 때 파라오의 술사들도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는 상응의 악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세는 이집트의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히브리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 노예를 구타한 이집트인을 살해하여 파라오를 불쾌하게 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했던 장면으로부터 알 수 있다. 모세가 그의 민족에게 봉사하기 위해 했던 첫 번째 시도는 그의 약함과 소심함만을 보여주었다. 그는 큰 부름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미디안 족은 좋은 의미에서 어린 시절과 같은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의미한다. 모세는 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여 년을 보냈다. 이 시기는 모세에게 힘든 일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에게 준비하는 시기였다. 준비하는 시기에는 배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심을 건립함이 있었다.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늘 시험을 보류하신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그 후 모세는 호렙 산으로 오게 되었다(호렙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러 산중의 하나임). 그리고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했다. 떨기나무(진달래나 앵두나무처럼 키가 크지 않은 목본 식물임)란 이미 습득된 지식들로부터 형성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상 속의 진리들인데 하느님의 사랑은 이 진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른다. 우리가 진지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름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 즉, 우리가 타인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인식하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우리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듯이 모세도 그의 현 위치, 즉 조용하고 안전한 방랑생활을 떠나 짜증나고 힘들기만 한 업무를 수행하려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와 함께 동행 할 것을 약속하셨고, 실지로 그가 순종하면 발휘하게 될 능력을 보여주셨다. 제 4장은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실재성을 느끼도록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이름은 사물의 질을 의미한다. 주님이 스스로 주신 이름 - “나다, I am, 히브리말로 Jehovah” - 은 그분의 근본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며 그분만이 진실로 “I am”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모세는 어디서 양육되었는가?
- 2) 그는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는가?
- 3) 그는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야 했는가?
- 4) 그는 어디로 피신했는가?
- 5) 미디안이란 누구인가?
- 6)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가?
- 7)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산 근처에 있었는가?
- 8)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9) 주님은 어떻게 그를 불렀는가?

- 10)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모세는 그 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싶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이집트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머물러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6) 미디안 땅은 좋은 의미에서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머물렀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붙은 떨기나무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 19)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이집트의 궁전 2) 40년(사도행전 7:23참조) 3)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
- 4) 미디안 땅 5) 아브라함과 게투라의 아들 6) 40년 7) 호렙(시나이)
- 8)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9) 불붙은 떨기 10)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인도함
- 11) No 12)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13) 은불이와 금불이 그리고 옷 등
- 14)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5) 지식은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16) 단순한 믿음 17) 시험이 충만해진 상태 18)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심
- 19) 신성한 법

## 9

# 마라와 엘림

### 머리말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되돌아오는 줄거리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순종했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생활 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한다. 이러한 광야생활 중의 실망과 불평은 구원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광야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영적 시험에 든 상태를 상징한다고 한다. 즉, 구원에 더 가까이 이르기 위한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힘들고 험난함을 느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의 기복”에 아주 친숙하다. “삶의 기복”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 삶의 기복에도 적용된다. 본과는 “ups”으로 출발하나 “down”이 금방 뒤따른다. 그리고 또 다른 “ups”으로 끝난다. 이를 염두 해 두면 본과의 공부에 용이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5장

15장: 1.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 야훼는 힘 있게 나를 불드시어 나를 살려 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3. 야훼는 용사, 그 이름 야훼이시다. 4.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더라. 5. 깊은 바다가 덮치니,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기더라. 6.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셨습니다. 7.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8.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쏘였고 물결은 독처럼 일어섰으며 바다 속 깊은 데서 물이 엉겼습니다. 9. 원수는 장담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 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10.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 버렸습니다. 모두들 거센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겼습니다. 11. 야훼여, 신들 중에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12.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께서 손수 건지신 이 백성 아,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14. 이 소식을 듣고 만방이 술렁거립니다. 불레셋 주민은 겁에 질리고, 15. 에돔의 두목들은 놀라고, 모압의 권력가들은 떨며,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들 기가 죽었습니다. 16. 덮쳐 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역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17.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 심으십니다. 야훼여, 이곳이 바로 당신께서 계시려고 마련하신 곳, 주여,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성소가 아닙니까? 18.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어라. 19. 파라오의 말들은 결국 기병을 태운 병거를 끌고 바다 속에 잠겨 버렸다. 야훼께서는 그들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요, 여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노래를

매졌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다.”  
 22.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바다에서 수르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23.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 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24.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25.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 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26.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27. 그들은 샘이 열두 개 있고 종려나무가 일흔 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 \*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란 주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이글거리고 있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 \* 인생 중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강함을 증진시키는 기회이다.
- \* 선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즉 선의지는 우리에게 영적성장의 고진감래를 느끼게 해준다.

### 상응 공부

구름 = 말씀의 글자

종려나무 =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얻는 선

광야 = 고향에 정착하지 못한 마음의 영적인 상태

## 해설

우리는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 계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집트로 되돌아와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승낙하도록 설득시키고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열 가지 재앙을 수단으로 확신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음을 공부했다. 또한 과월절 축제와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이야기도 공부했다.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욕구와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 경향성과 생각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건강하며 행복한 영적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열 가지 재앙이란 세상적인 욕구와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급기야 생존할 수 있고 커 갈 수 있는 순수한 선 혹은 진정한 생각마저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상세히 그려준다. 마지막 재앙, 즉 열 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소산이 죽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들어 이를 깨뜨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그의 삶의 새로운 길을 보호하며 안내할 지도자를 바로 그곳에 설비하신다. 그러나 낡은 습관들은 이내 우리를 다시 잡아 가두기 위해 뒤쫓는다. 이는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것과 같다. 홍해란 우리를 과거로 되돌아 가게하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케 하는 우리의 첫 번째 큰 시험을 그린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어 물을 뿜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모세란 법의 글자를 뜻하며, 모세의 지팡이란 법에 순종할 때 그 글자 안에 있는 권능을 뜻한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뽑아내어 스스로 응용해야 한다. 그 후 진리가 주는 권능 안에서 곧바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면 길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이고 적들은 우리 뒤에서 침수될 것이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안전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 시작 전의 대목이다. 홍해 동편에 서서 적들이 빠져 죽는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로 본문이 시작된다. 타인이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보면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글자적인 면으로는 잔인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집트인과 이집트

군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협하는 우리의 거짓 사상과 이기적 욕망을 표현함을 인지하게 되면, 적이 쓰러짐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실감할 것이다. 노래는 우리가 공부해 온 성경 중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노래란 자연스러운 느낌의 표현이다. 간혹 좋은 성대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있게 되면 노래의 흥을 깨트릴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럿이 잘 부를 수 있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위해서 곡조를 잘 구성시키려 할 때도 많다. 히브리인들의 노래는 영창으로 짜여 있어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영감을 줌과 동시에 멜로디도 있게 된다. 아주 오래된 영창이 오늘날의 예배 형식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새교회에서도 영창들이 때때로 사용된다. 그 이유는 영창이 성경 말씀의 구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에는 될 수 있는 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과 천국에 직접 연결시켜 주기 때문이다.

승리의 노래가 끝난 뒤 백성들은 광야로 향했고 여행은 다시 계속되었다.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된 첫 경험의 직후여서 용기와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지 모른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끈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인도했다. 구름(불)기둥이란 말씀의 글자를 뜻한다. 비록 우리가 기둥들을 “통하여 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기둥들은 안전하게 우리의 광야 생활을 마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삶의 여정에 착수한 이들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 같이 큰 희망을 안고 전진하고 있다. 전진이야말로 선하고 유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뭔가 큰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두 기둥을 계속 따라나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땅에 도착하기 위한 여정이 짧지 않고 쉽지도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예견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발생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실망의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만 할 전투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결정들 중 하나는 아는 것과 이루고 싶은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분수도 모른 채 능력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이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결국 주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첫째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만큼 알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일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물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착수한 새로운 인생은 친숙한 도로표지도 또는 잘 표시된 지도도 없는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이다. 우리는 자연적 지식 속에 있는 물에 대한 우리의 만족을 뒤에 남기고 왔고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발견하며 즐겨야 하는지도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상태를 충분히 (삼일의 여행임) 인정한 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가져다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과 반대되어서 그저 쓴맛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무, 즉 모세에게 쓴 물에 던지라고 한 나무란 선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순수한 바램을 뜻한다. 이 바램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달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진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개의 샘이 있고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는” 엘림에 이르렀다. 종려나무는 선과 상응된다. 이 선이란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부터 온 지혜의 선을 뜻한다. 광야를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첫 두 단계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깊은 교훈들을 준다. 전체적인 윤곽으로 본 광야의 여정은 “재형성”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장단(長短)에 관계없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자신과 일치되어 가는 때다.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어떤 축제를 가졌는가?
- 2)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무엇에 의해 인도되었는가?
- 3) 홍해는 어떻게 되었는가?
- 4)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은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 5) 모세와 아론의 누이는 누구인가?
- 6) 미리암이 사용한 악기는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물을 발견하기 전 며칠간 광야를 여행했는가?
- 8)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 9) 쓴 물이 발견된 지역은 어디인가?
- 10) 그들의 다음 번 여행지는 어디였는가?
- 11)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이집트로부터 빠져 나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 13)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쓴 물과 쓴 물을 달게 만든 나무란 무슨 뜻인가?
- 15) 열 두 개의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란 무슨 뜻인가?

####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구름 기둥, 불기둥 3) 물이 갈라짐 4) 노래를 불렀다
- 5) 미리암 6) 소구 7) 3일 8) 물이 쓴맛 이었다.
- 9) 마라 10) 엘림 11) 열 두 개의 샘,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
- 12) 세상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영적 상태를 추구함
- 13) 말씀을 담은 글자 14) 진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반대되어 있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순수한 바램 15)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앎으로부터 오게 되는 선

## 10

## 궤

### 머리말

본과에 앞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들이 시나이 산에서 주어지는 일련의 법률과 각종 지침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이 여행 초기 석 달째에 시나이 산에 도착했고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정부 형태를 갖추었음과 그 형태가 그들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지속되며 오늘날의 일부 유대인들에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막과 성막 안의 가구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백성들의 자유로운 헌납으로 되어졌음과 그 재료들이 구해진 곳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출애굽기 12:35-36).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것처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요구되어진 모든 재료들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랑 민족의 특성상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훈육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사료만을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하려는 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25장 1-22절

25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3. 너희가 받아 둘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4.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5. 분홍색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나무, 6.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7.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8.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9.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 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10. 그들은 아카시아나무로 껀을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 높이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1. 순금판을 껀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12.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 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 쪽에도 고리 두 개를 붙여라. 13. 또 아카시아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이 채를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고 15. 채는 고리에 꿰어 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16.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17.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이 척 반, 나비는 일 척 반으로 하여라. 18.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룩 둘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19. 거룩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룩은 맞은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룩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20. 거룩들은 날개를 위로 퍼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21. 그 속죄판은 궤 위에 얹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 주리라.

### 교리 요점

- \*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한다.
- \* 시나이 산에서 주어진 법의 영적 의미를 공부하면, 말씀을 담은 글자의 세부 사항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실용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
- \* 성막의 설계는 천국적 인격을 위한 청사진이다.
- \* 계명들은 심정에 새겨져야 하며 지성에 새겨져서는 안 된다.

### 상응 공부

아카시아 나무 = 공의의 선

거룩(cherubim, cherubs)들 = 거룩한 것을 모독함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 해설

광야 여행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고 본 반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광야 여행은 약 40년간 지속되었으므로 긴 여행처럼 보일지 모른다. 여러분은 차차 그 여행이 길게 지속되었던 이유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광야 여행 중 발생하는 놀랄만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첫 해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해의 첫 두 달은 시나이에서 보내졌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삶의 무엇을 그리는가? 앞서 우리는 광야 여행이 우리의 바깥 삶을 질서 안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표현한다고 배웠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배우며 선한 습관을 갖도록 교육된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이나 대학 등을 위하여 집을 떠나있을 때 좋은 습관이나 습득된 좋은 일들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같이 나도 해 봤으면...” 하고 원하기도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위험성과 불행함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는 시작조차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영적 여행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처럼 몇 가지 단계가 수반된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되는 실질적인 시험이다. 두 번째로는 마라에서의 쓴물의 경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삶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발견치 못할 때 실망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로는 엘림에서의 휴식이 상징하는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네 번째로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 것으로 상징되는 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날마다 충분한 선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심을 실감케 하신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르비딤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상징되는 바, 우리가 힘든 삶에서도 우리를 채워주는 진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로 상징되는 바, 실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나이에 도착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주님을 만나서 참된 법, 즉 나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주님의 진리를 얻는 것이다.

백성들은 시나이에 도착할 때까지 단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면서 모세의 리더십하에 움직이는 비조직화 된 유목민에 불과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그들같이 더듬거린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표현은 진실할 수 없으며, 우리의 행동에 대한 명백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맛본 후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알게 되고,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하기 위해 차분히 앉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조직화

된다. 이것이 바로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 때 주님이 산에서 그들에게 내린 규례와 법들로 인해 그들은 하나의 국가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열 두 지파는 서로서로 적당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각 지파뿐 아니라 지파간의 다양한 분과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규율들은 그들의 일상 업무의 지침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처벌은 법의 위반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계명들과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침이 주어졌다. 시나이에서 머무는 기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항목은 아주 이상하여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항목이 읽을 가치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는 시대에 뒤쳐진다고 결론 내리기도 한다. 그들은 법들의 내적 의미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우리는 그 의미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게 되면 위의 사람들의 성급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법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시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법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법들이 합쳐져서 질서 있는 삶을 위한 완전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청사진은 오늘날의 엔지니어, 건축가, 도시 계획 또는 기타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나이에서 주어진 법들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처음에는 이 법들의 일반적인 윤곽만이 우리에게 이해되나 우리가 실생활을 이러한 법들에 의거해 건설하다 보면 각각의 세부 사항의 의미와 그것들이 합해져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됨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세부 사항 중 하나인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것은 길이가 4피트, 높이가 2피트 그리고 넓이가 2피트이다. 상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의 안과 밖은 순금 판으로 덮여져 있다. 그리고 둘레는 금테로 둘러져 있고 위는 금으로 된 속죄판이 있다. 속죄판 위에는 금으로 된 두 거룩들이 세워졌다. 거룩은 통상적으로 천사의 모양일 것으로 생각된다. 두 거룩들은 속죄판 쪽으로 날개를 위로 펴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보존되어 있다. 상자는 성막의 가장

깊은 방,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이다. 상자는 종교적 기관의 중심이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멈출 때는 진영의 중앙에, 행군 시에는 대열의 중앙에 그리고 거룩한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의 중심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막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로 인식했다.

우리는 성막이 상징하는 바를 알고 명심해야 한다. 성막은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예배 그 자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스웨덴북은 성막은 좁은 의미에서 천국 또는 소천국이라 불리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천국적인 사람이 없다면 어디에도 천국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적으로 남녀들을 만드는 것은 삶에서의 주님의 현존이다. 주님의 현존은 이기심을 버리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법을 배우며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성막 안의 지성소는 우리의 심정(heart)들을 표현한다. 또한 그곳은 우리가 계명을 간직해야 할 장소이며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곳이기도 하다. 아카시아 나무는 공의를 표현한다. 나무를 덮어 씌운 금은 사랑을 의미한다. 속죄판은 사랑에 의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의 악들이 청결케 됨을 뜻한다. 거룩이란 우리의 선행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속의 악들로부터 꾸준히 보호하시는 주님의 섭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과 이러한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성공 혹은 선한 행위를 헤아리려고 할 때 또는 타인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거룩 사이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주님과 이웃사랑에 근거한 계명의 순종은 천국적인 삶의 중심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산꼭대기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2) 주님은 이밖에 무엇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3) 백성들의 예배 장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4) 그곳의 가장 깊은 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5) 그 안의 가구는 무엇인가?
- 6) 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 7) 궤의 꼭대기는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
- 8) 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 9) 주님은 궤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 10) 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속죄판”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2) 거룩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여러 가지 작은 법들 3) 성막
- 4) 지성소 5) 언약궤 6) 아카시아 나무
- 7) 덮개 8) 두 돌판(계명들)
- 9) 백성에게 말하시는 데에 사용
- 10) 우리의 내적 존재,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11) 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함
- 12) 신성한 섭리의 보호

## 11

### 열 두 스파이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어본다. 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38절을 읽어본다. 그 후 레위기서의 일반 목차를

훑어보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기억한다. 이 후 민수기 10장 33-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초기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적 행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준다.

### 성 서 본 문: 민수기 13장, 14장

13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3.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4.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구르의 아들 삼무아, 5.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6.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7. 이싸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야갈, 8.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9.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10. 즈불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가떠엘, 11. 요셉 지파와 므나쎄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가띠, 12.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13.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들, 14. 납달리 지파 대표는 읍시의 아들 나흐비, 15.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1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 준 것은 모세였다. 17.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 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 가 보아라. 18.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20.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21. 그들은 썬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 갔다. 22.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하만, 세새,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칠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23.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 왔다. 24.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 왔다고 해서 그 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5.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데 사십 일이 걸렸다. 26. 그들은 바란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 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28.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29. 네겟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32.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 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33.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든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든 그랬을 것이다.”

14장: 1.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은 떠들썩하게 아우성을 쳤다. 그 날 밤새도록 통곡하며 2.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좋았겠다. 3. 야훼는 어찌자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내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내와 어린것들이 적에게 붙잡혀 가게 하는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4. 이렇게 수선을 피우며 그들은 지도자를 하나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였다. 5.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6. 그러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6.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향하여 외쳤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오 8.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 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요.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소.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0. 온 회중이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1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그렇게도 내 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12. 나 이제 염병을 내려 이 백성을 없애 버리고 이들보다 훨씬 큰 민족을 너에게서 일으키리라.” 13. 모세가 야훼께 호소하였다. “하느님께서 몸소 힘을 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모든 이집트인이 다 들었습니다. 14. 야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소식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야훼께서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시어 이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15. 그런데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 버리시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어 아는 민족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6. ‘야훼는 맹세만 하였을 뿐, 백성을 그리로 데려 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종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17.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약속하셨던 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18. ‘야훼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미쁘시어, 짐짓 거역하고 반항한 죄도 용서하신다. 어떤 죄든지 그냥 넘기시지는 않지만 선조의 죄를 그 후손 삼, 사대에게만 물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 하느님의 사랑은 그지없이시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동안 참아 주시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해 준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야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다.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나타낸 힘을 보고도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시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23. 내가 저희 선조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토록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24. 그러나 그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라 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로 하여금 가서 보고 온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리라. 25.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발길을 돌려

홍해바다 쪽 광야로 떠나거라.”

26.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7. “이 못된 회중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는 불평소리를 나는 들었다. 28.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29. 바로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덩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이 넘어 병적부에 오른 자로서 나에게 불평한 자는 그 누구도 30. 내가 정착시켜 주겠다고 손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리라. 31. 또한 너희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던 너희 어린 아이들은 너희가 거부한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리라. 32.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 쓰러지고 말리라. 33.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의 배신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어야 한다. 34. 너희가 사십 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으니, 그 하루를 한 해로 쳐서 사십 년 동안 너희는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야 나를 배반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되리라.’ 35. 나 야훼가 말한다. 한 무리가 되어 나를 거역한 이 고약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다루고야 말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으리라.”

36.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 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 이렇게 그 고장을 악평한 자들은 야훼께 벌을 받아 염병으로 죽었다. 38.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뿐이었다. 39. 모세가 야훼께 들은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자, 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40.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 치달으며 외쳤다. “어서 쳐올라 가자.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야훼께서 꾸중하시는데, 이려고만 있을 터이냐?” 41. 그러나 모세는 한사코 말렸다. “왜들 이러느냐? 야훼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42. 올라 갈 생각을 말아라. 야훼께서는 이미 너희를 떠나셨다. 너희끼리 쳐올라 갔다가는 43. 거기에서 적에게 패하리라.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에게 달려들어 칼로 무찌를 것이다. 너희는 야훼를 배반하여 야훼의

눈 밖에 나고 말았다.” 44.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야훼의 계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서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달려 내려 와 호르마까지 쫓아오며 그들을 무찔렀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시험은 보류해 주신다.
- \* 구약 성서에서 언급된 거인들이란 태고 교회에서 잔류된 악들이다.
- \*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전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거인들이다.

### 상응 공부

젓 = 선함이 들어 있는 진리

꿀 = 선함과 진리로부터 오는 행복

### 해설

민수기(Numbers)라는 책의 이름은 이 책의 서두가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인구조사, 즉 사람의 수를 셈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덴의 동산」에서 공부했듯이 이름이란 어떤 사물의 속성을 말한다. 스웨덴붉은 셈 또는 숫자는 언제나 진리가 어떠한지를 말한다고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법이 주어진 후 그들의 숫자가 세어지게 되었음은 꼭 맞는 이치이다. 즉, 진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수를 세는 것은 각 지파 별로 수행되었는데, 특별히 전쟁에 필요한 남자만이 세어졌다. 또한 은을 바치는 일은 지파들의 우두머리에 의해 행해졌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2-13절에서 주어진 법과 일치된다. 이 말쑥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임을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성을 날날이 살피려는 것은 헛된 노력임을 뜻한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아 다시 만들어져 완성된 인간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법을 받았던 시나이를 떠나 삼일 동안의 여행 후에 도착한 첫 야영지에서부터 불평하며 처벌받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 순종이라는 교훈을 또다시 가르치셔야만 했다. 이 후 그들은 카데스라는 곳, 즉 거룩한 땅의 접경 부근에 진을 치도록 인도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땅을 정탐하도록 열두 스파이들을 보내 그들이 그곳에 대한 이모저모를 보고하도록 했다.

스파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었다면, 그들은 즉시 거룩한 땅에 진입하여 그 땅을 소유했을지도 모른다. 주님은 순종과 신뢰란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진전됨을 알고 계신다. 이사야서 28장 10절을 찾아보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인간이 이러하여 주님은 언제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수색할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설비해 두고 계신다.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적들, 즉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우리 안의 결점들을 명확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적인 삶에서 오는 이득, 즉 과일의 맛도 명확히 보아야 한다. 우리의 표면적인 나쁜 습관들을 타파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난 적들을 정복하는 것과 같으나 진짜 정복하는 전투는 우리 내에 깊숙이 뿌리박힌 악들을 대면하게 될 때 시작된다.

우리의 지각력은 스파이처럼 그 땅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들 보다 앞장서서 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곳은 좋은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한다. 즉, 영적 가르침이 풍부하며 그 가르침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대한 보고이다. 그들은 큼지막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 이는 우리가 순수하게 선을 행함을 맛보는데서 가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그들이 가지고 되돌아온 석류나 무화과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연적인 선함에 대한 경험들을 뜻한다. 또한 스파이들로 상징되는 우리의 지각력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고 변론하는 우리의 상황을 타파하고 자아 사랑이 근간이 되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것을 상징하

는 거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제 선택이 놓여진다. 여호수아와 갈렙인 우리속의 슬기로운 선함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바탕은 “나는 전진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해, 약하게 태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이집트로 되돌아감이 차라리 나을 거야.”라고 자극시켜 말한다. 14장 1-10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양심의 소리를 진정시키려는 논쟁들이 바로 반대 집단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던지려고 한 돌이란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 보려는 노력을 중단하게 될 때 이 대목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한 삶에 대한 노력을 중단할 때마다 우리의 광야 여행은 더욱 길고 힘들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실제였던 것들은 우리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두려움으로 인한 소심함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릴 때까지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 내기에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음을 보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그들 앞에 놓인 적을 실감했을 때 스스로 돌진하여 이기려 했으나 좌절됐듯이, 우리는 자신만의 강함을 가지고는 앞으로 돌진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 만난 적은 오히려 우리를 때려 부순다. 그러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꾸준히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거짓 사고가 우리들 뒤에 쳐져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시나이 산을 떠난 뒤 그들이 도착한 거룩한 땅 경계선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백성들은 누구를 파견했는가?
- 3)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 왔는가?
- 4) 그들은 그 땅에 관해 어떤 보고를 했는가?
- 5) 열 스파이들의 결론적 충고는 무엇인가?
- 6) 어떤 두 스파이가 주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상기시켰는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한 충고에 따른 벌은 무엇인가?
- 9) 누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가?
- 10) 나쁜 충고를 준 열 스파이에게 무슨 변이 일어났는가?
- 11)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해야 했는가?
- 12) 거룩한 땅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카데스 2) 열 두 스파이 3) 포도, 석류, 무화과 4)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5) 그곳 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해볼 수 없다. 6) 갈렙, 여호수아 7) 열 스파이의 충고 8) 40년간의 배회 생활 9) 20세 이하인 자, 갈렙, 여호수아
- 10) 재앙이 덮쳐 죽었다 11) 대략 38년 12) 천국 또는 거룩한 삶

## 12

### 여호수아를 부르심

####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스토리로 다루기보다는 토의 형식의 진행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우선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상기하면서 성경 스토리를 간략히 재고한다. 이에 따른 전체적 윤곽은 성경 공부의 중요한 기본이 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장

1장: 1.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3.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 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4.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헷족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네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6.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7. 용기백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8.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9.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전군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 “진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전군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만 있으면 너희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의 것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 간다.’” 12. 그리고 여호수아는 르우벤 사람들과 가드 사람들과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 일렀다. 13. “너희는 야훼의 종 모세가 한 말, 곧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정착지로 주신다던 말을 기억하여라. 14. 너희의 아내들과 어린것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군인들은 부대를 편성, 앞서 건너 가 동족들과 함께 싸워라. 15. 너희 동족이 너희처럼 정착지를 얻게 될 때까지 함께 싸워 주어라.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너희의 차지가 된 땅, 곧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너희가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 있는 땅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16.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느님 야훼께



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18. 장군의 지시를 거스르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다만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순위에 두어서는 안 됨도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재구성과 중생은 다르다.
- \* 최선의 용기란 시험 중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 상응 공부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계곡 = 삶의 자연적 평면

### 해설

모세의 죽음은 우리 인생 여정의 어느 특정한 지점을 표현하므로, 그 시점을 간략히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꼭 거쳐 가야만 할 유사하지만 근본이 다른 많은 지점들을 묘사한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도 우리 삶의 지점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큰 윤곽으로 볼 때 성경의 이야기 형식의 줄거리들은 태아 시절부터 우리의 진정한 고향, 즉 고향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그곳까지의 우리의 일생을 다룬다. 이를 염두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자. 창조, 에덴의 동산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류 대대로 물려 내려 온 본성, 즉 유전성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대한 것은 우리의 발전 과정을 말해준다.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후 유아기 때부터 십대 후반까지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하향하나 자연적으로는 발달 상승한다. 다시 설명하면, 유아기 시점(아브라함)은 순진하고 신뢰심으로 충만한 천적인 상태로 주님에 아주 가깝게 있으나 세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능력 면으로는 무지하고 무력한 상황이다. 우리는 초기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나마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배운다. 그 다음 이σμα엘과 이삭으로 말해지는 시기가 온다. 즉, 우리의 추론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먼저 자연적인 추론(이σμα엘)이 발달되고 뒤따라서 높은 추론, 즉 영적 추론(이삭)이 발달된다. 이제 우리는 두 날개를 가진 것이다. 그 다음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두 날개를 시험해보는 때를 맞게 된다. 즉, 야곱의 일생으로 우리 스스로 외향적인 지침들을 처음으로 통제하고 실시해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한 의도의 많은 실수들을 행하나 실수의 과정은 언제나 배움의 때로 야곱이 열 두 아들을 낳았듯이 우리의 다양한 능력이 계발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세상적 삶의 견지에서는 진전되어 가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내적 삶의 견지에서는 천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로 하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거나 어른이 될 무렵쯤에 이집트에 속박되는 시기를 맞는다. 이 시기란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주장, 즉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를 말한다. 앞서 우리는 이러한 속박을 실감하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공부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진보가 시작된다. 영적 진보를 위한 필수 요건은 하느님의 법을 우리의 지도자와 길잡이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와 길잡이는 본문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모세이다. 우리는 이 지도하에서 우리의 외향적 지침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 여정은 길고 고되다. 우리는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바른 종교 생활이 결국은 우리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게 되면 억지로나마 따르는 순종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진보의 출발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선택된 백성”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재구성의 시기일 뿐 아직 천국적인 상태에는 이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재구성이라는 영적 여행의 초기에 천국적인 인격인 거룩한 땅을 확인할 수 있는 곳까지 오도록 허락되어 그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재구성의 단계에 있을 뿐이어서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삶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다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습관들을 일구는 것이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억지로나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영적인 성장을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적인 인격을 연마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모세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하느님의 법을 상징한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적인 삶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주님의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스웨덴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적인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면 하느님의 법은 더 이상 강제노동의 감독관을 따르듯이 억지로 따르지 않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지도자를 따르듯이 진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박감을 주는 충동에 따르는 대신 기꺼이 따름으로 전진한다는 말이다.

스웨덴봄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고 말한다. 여호수아는 광야 여행 초기부터 이스라엘 전투 용사들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또한 그는 과거 열 두 스파이로서 거룩한 땅을 정탐했을 당시 주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군에게 전진하자고 제의했던 두 스파이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거룩한 땅은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을 표현한다.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거룩한 땅 즉 천국이기도 하다. 천국을 만드는 요소는 주님의 영에 있는 이타적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심정에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우리 속에 악이 들어 있음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치워버리는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단계가 거룩한 땅 자체를 정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내용의 대략적

의미이며, 이를 흔히 거듭남 또는 재탄생이라고 부른다. 재구성과 거듭남은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다. 재구성은 외적 생활을 질서 안으로 갖다 놓는 것이고, 거듭남은 이런 생활을 의지로 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재구성의 수준은 억지로 삶의 틀을 잡아가는 상태이며, 거듭남은 계명적인 삶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문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발달과 더불어 있는 그림이며 거듭남의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된다. 스웨덴북은 어느 누구도 성장할 때까지는 거듭나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선생 또는 조력자의 충고에 따르거나 부모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 삶의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는 때가 된 것을 주님이 보시게 될 때 비로소 거듭남의 시작이 있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거듭남은 각자의 의지 속에서 시작되어 생각 속으로 와서 다듬어져 마지막으로 행동 선상에 나타난다. 따라서 거듭남은 우리의 작업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작업이며, 주님이 작업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과 이를 비교해 보자. 먼저 우리는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린 후 자라 오르기를 기다린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작업이 우리의 몫이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가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님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라고 당부하셨다. 그 다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모세의 법을 따라 행하되 “한 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키며 그 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우리의 거듭남이 진행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추구하고 발견한 진리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는 것이다.

제 12-15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 1-6절과 13-22절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2½지파가 요르단 평지를 점령한 것과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에 롯이 그곳에 정착했던 것과의 차이점을 주시해야 한다. 롯과 2½지파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함에 있어서 똑같은 지역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정착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정복해 버릴 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 질문 정리

- 1) 열두 명의 스파이들은 거룩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돌아 왔는가?
- 2) 그들이 그곳에 관해 보고한 것 중 좋은 것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 나쁜 것은 무엇인가?
- 4) 보고 결과를 토대로 열 명의 스파이들은 무엇을 충고했는가?
- 5) 나머지 두 스파이는 무엇을 충고했는가?
- 6) 주님을 신뢰한 두 스파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 7) 백성들은 어떤 충고를 선택했는가?
- 8)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 9)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10) 그들이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야영지는 어디였는가?
- 11)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 12) 여러분은 전 과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것 중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 13)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인가?
- 14) 어떤 지파가 요르단 강 동쪽에 터전을 잡았는가?
- 15) 그 지파들이 정착하기 전 먼저 처리한 일은 무엇인가?
-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모세와 여호수아는 상응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열매들    2)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답다.
- 3) 그 땅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산다.
- 4)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5)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 6) 갈렙, 여호수아    7) 열 명의 스파이의 충고

- 8)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 9) 40여년 10) 모압 평야  
 11) 여호수아 12) 좋은 충고를 한 스파이, 또는 군대 사령관  
 13)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14)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지파  
 15) 다른 지파가 정복하는 것을 먼저 도왔다. 16) 거둢남의 시작  
 17) 모세: 법에 순종, 여호수아: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감

## 13

### 아이성의 포획

#### 머리말

먼저 2-6장을 읽고 간략히 재고한 후 본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장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실이다. 이 승리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자신이 우월하여 획득된 승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신 것이기도 하다. 예리고성을 점령하되 폐허가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필두로 본과를 시작해 본다.

####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7장, 8장

7장: 1.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중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2.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 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 가 아이를 정탐하고 3. 여호수아에게 돌아 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삼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리하여 군대 약 삼천 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5.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에서 비탈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 오면서 삼십 육 명이나 죽었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6.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7.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 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까. 8.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룰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10. 야훼께서 야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1.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낭에 숨겨 두었다. 12.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 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14.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15.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16.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17.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18.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중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21.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시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 두었습니다.”

19.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 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 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23.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야훼 앞에 놓았다. 24.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 갔다. 그의 아들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25.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26.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렬한 분노가 건넜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8장: 1.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2.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3.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 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췌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4.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5.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6.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 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쫓아내거든, 7.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8.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9.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10.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11.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 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12. 그는 오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13.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14.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15.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체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16.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 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17.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을 비워 두고 성문을 열어 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뺐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뺐었다. 19. 그가 팔을 내뺐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 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체하던 부대가 돌아 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21.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22.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짓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23.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 왔고 24.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 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25. 그 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해서 모두 만 이천이나 되었다. 26.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뺐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27.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28.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 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곳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는 것이다. 29.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30. 그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31.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야훼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32.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 둔 모세의 법시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33.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없이 모두가 야훼의 계약궤를 멘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하여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짐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34.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35.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 마디도 빠지 않고 낭독하였다.

### 교리 요점

\* 주님은 이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도록 경고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 \*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 우리는 진리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우리 속의 동기들을 점검해야 한다.

### 상응 공부

성벽 있는 성 = 거짓이나 진리로 확립된 상태

베델 = 천적인 지식들

아이 = 자연적인 지식들

### 해설

성경에 있는 모든 강들은 생동하는 일련의 진리들을 뜻한다. 거룩한 땅의 경계라는 측면에서 요르단강은 종교적인 삶의 범주를 정해주는 기본적인 진리들, 이른바 십계명과 같은 진리들을 표현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도 처음에는 삶을 바르게 하도록 인도하는 기본적인 진리들을 무겁고 힘든 장벽처럼 여길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그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느꼈던 것과 같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기꺼이 전진해 보겠다는 의지와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보려는 노력이 함께 어울려지면 요르단강이 갈라져 길이 만들어졌듯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피해도 없이 천국적인 삶의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후 요르단 강은 예전같이 합쳐져 흐르는데, 이는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진리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힘이 되어 영원히 “사람의 발걸음”에 힘을 주게 된다는 뜻이다. 이제 진리는 우리 속의 적들과 싸우는 데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그러나 전투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초기 이야기들은 자만심을 경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을 건넌 후 먼저 행해진 일은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제단을 쌓은 것과 과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두 사건 모두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런

다음 예리고성의 정복이 전적으로 주님의 힘에 의하여 이뤄진다. 예리고성의 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궤의 권능을 통하여 이뤄진 것이다. 적의 수중에 있는 예리고는 “선과 진리에 대한 모독”을 뜻한다. 즉, 우리는 선과 진리가 좋은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때 선과 진리가 모독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똑똑하여 자신으로부터 선과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리고성의 어떤 것도 그들을 위해 착복하지 말도록 경고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천적인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선하며 슬기롭다는 생각 혹은 느낌마저도 우리의 마음 안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패함으로 위협받는 내용이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곤경에 빠짐은 어불성설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의 속뜻을 연결하여 공부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는데 동료의 성급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동기 속에 있는 결점이 드러나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베델, 즉 하느님의 집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이 사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던 장소이다. 베델이란 하느님과 영적인 것에 기초를 둔 삶의 철학 혹은 교리를 뜻한다. 베델과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자연계의 지식에 기초를 둔 철학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요한계시록 설명 제 655-8항에서 “아이란 선에 관한 지식 그리고 반대적 의미로는 악을 확증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은 이기적인 용도와 이타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적의 수중에 있고 베델로 가야 할 우리 앞에 서 있는 아이란 우리의 장애물이다. 따라서 그곳은 점령되어야 하며 그곳의 거주민도 파괴되어야 한다. 본문의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을 흠모하여 천막 바닥에 남겨두는 한 우리의 자연적 지식 위에 세워진 거짓 철학, 즉 우리 스스로도 진리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찌꺼기들이 우리 심정의 한 구석에 감추어 있는 한 거짓 철학은 뿌리 뽑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날산의 좋은 외투 한 벌”이란 자아공의를 뜻하는 것으로 “나는 슬기로운 자야. 나와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악한 자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은 이 백 세겔과 금덩이 오십 세겔”이란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가진 참된 생각과 선한 바램들을 상징한다. 하지만 아간은 그것들을 주님께 돌리는 대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감춰 결국 그것들의 의미조차도 악해져 버렸다.

아간(Achan)은 “고생 또는 괴롭히는 자”라는 의미이다. 거듭난 삶은 계명에 반대되는 것들은 쉽게 내버린다. 그러나 심정 밑에 잠복해 있는 완고함이나 자만은 거듭난 삶을 옹어뜨리려고 시도하면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자만이나 독선은 외형적 재난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된다. 우리는 때로 재난을 당하거나 실패하게 될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보다는 주님에게 돌리려고 한다.

진리를 수단으로 감춰진 죄를 색출하는 것은 연속적인 제비뽑기로 “괴롭힌 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그려진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를 점검하고 전체적인 관점 하에 특수한 것, 즉 세부사항을 하나씩 간추리면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 진정한 요인들을 색출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하고 그것들이 발견되는 대로 모두 파괴해야 한다. 아간이 처형된 후 아이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었다. 이 순간은 자만심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공격 전략은 베텔 쪽에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후 성내의 적들이 공격하러 성을 빠져 나와 추격할 때 매복병들이 성을 함락하고 불을 지르는 순간 양쪽의 병력이 아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것이었다. 베텔 쪽에 매복해 놓은 병력이란 영적인 지식 안에 비축된 힘을 말한다. 우리로부터 비롯된 추론만으로는 세상적인 논쟁에 대처하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 지식으로 보강되면 우리는 쉽게 적을 정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져도 된다고 허락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자연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꽤 유용하다는 말이다. 파괴되어야 할 것이란 자연적인 지식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겨대는 마음들이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정복에 앞서 다음 사항이 따른다. 그 땅의 중앙인 세겔에 제단을 쌓아 법을 선포하고,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낭독한 후 백성들의 응답이 있게 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영적으로 서게 되든지 혹은 타락되는 지가 결정됨을 각자 거듭하여 회상하자.

##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2) 그 성을 정복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울 것이라고 하셨는가?
- 3) 이스라엘은 예리고성의 부정한 것들에 관해 어떻게 하라고 명령 받았는가?
- 4) 그들이 공격한 두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5)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 성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 6) 공격해 들어간 군대가 도망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그들은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했는가?
- 9) 범죄자는 누구였는가?
- 10) 그는 무엇을 착복했는가?
- 11) 어떤 벌이 그에게 내려졌는가?
- 12)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의 공격에 얼마의 군대를 사용했는가?
- 13) 그는 군대의 일부를 어떻게 배치했는가?
- 14) 아이성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15)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는가?
- 16) 아간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 17) 아간의 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예리고 2)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3) 자신을 위해 착복하지 말라.
- 4) 아이 5) 작은 군대를 파견했다. 6) 얼굴을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하느님께 실패한 탓을 돌렸다.
- 7)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8) 제비뽑기 9) 아간 10) 외투, 금, 은 11) 돌로 치고 불을 질렀다. 12) 전 군대를 동원했다. 13) 일부 군대를 매복시킴 14)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15) 제단을 쌓고 법을 새기고 읽었다. 16) 자신의 과오 중 어떤 것은 괜찮다는 느낌 17) 곤경에 처할 때 하느님이나 타인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

## 14

### 판관 기드온

#### 머리말

우선 판관 시대의 요지인 판관기 17장 6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자. 주님으로부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과 자신에게서 찾아보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열조시대(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판관시대 그리고 이후에 오는 제왕 시대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판관들이란 지방적이며 일시적인 지도자들이다.

#### 성 서 본 문: 판관기 6, 7장

6장: 1.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아합께서는 그들을 칠 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2.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 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 와

4.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농사를 망쳐 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 두지 않았다. 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천막을 떠먼 채 메뚜기떼처럼 몰려 왔다. 사람이고 낙타고 이루 다 셀 수 없이 몰려들어 와 온 땅을 망쳐 버렸다. 6.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야훼께 울부짖었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야훼께 부르짖자, 8.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었다. 9.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못살게 굴던 모든 사람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 내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느님 야훼요 아모리인들의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1.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셀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12.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3.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14.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나쎄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17.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 주십시오. 18. 제가 다녀 오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돌아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19.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오는 것을 보고 20.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21.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 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22.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뵈었군요!” 23.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4.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셀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25.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일곱 살 된 살진 소를 끌고, 네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어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느님 야훼께 바칠 제단을 차곡차곡 쌓아라. 그리고 그 살진 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은 부하 열 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치웠다. 28.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어이없게도 바알의 제단은 헐려 있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선 제단 위에는 살진 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다. 29.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서로 부산을 떨며 조사하고 캐어 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아냈다. 30.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를 닦달하였다.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죽여 버려야겠소. 바알의 제단을 헐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 냈는데 어찌 그냥 뉘 두겠소?” 31. 요아스는 둘러 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 아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오?” 32. 그 날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얻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33. 마침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 가지고 강을 건너 이즈르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34.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빨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일족에게 따라 나서라고 하였다. 35. 그는 또 전령들을 므나쎄 온 지파에 보내어 므나쎄 지파도 따라 나서라고 불러내었다. 아셀 지파와 즈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 와서 기드온과 합세하였다. 36.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37.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펴 놓습니다. 만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제 손으로 구하시려는 줄로 알겠습니다.” 38. 정말 그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짜 보니 한 대접 가득 물이 나왔다. 39. 기드온은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 뭉치로 꼭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양털만 말라 있고 사방의 땅바닥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4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땅바닥은 온통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1.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온 군대는 일찍 일어나 엔하롯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편으로 모레 언덕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2.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스할 테니 말이다. 3. 그러니 이제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기드온이 지체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니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다. 4.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 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 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할 수 없다.” 5. 기드온이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편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은 다른 편에 세워라.” 6.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7.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나는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8.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빨나팔을 거두어 들고는 삼백 명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군은 그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다. 9. 그 날 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적의 진지로 내려가거라. 내가 적진을 네 손에 붙였다. 10. 그러나 만일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먼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거라. 11. 그리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을 들어 보아라. 너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진으로 쳐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접근해 가보니,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든 동방의 백성들이 메뚜기떼처럼 거기 평지를 덮고 있었고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았다. 13. 기드온이 다다라 보니, 마침 한 병사가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천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뒤엎자 천막은 쓰러지고 말았네.” 14. 친구가 대꾸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일세.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붙이셨군.” 15. 이렇게 꿈 이야기와 그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야훼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 와 일렀다. “일어나거라. 야훼께서 미디안 진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16. 기드온은 삼백 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빨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17.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18.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19. 기드온이 자기 부대 일백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다다른 것은 한밤중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었다. 20.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21.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22. 삼백 명 군대가 나팔을 불어 대고 있는 동안 야훼께서는 적으로 하여금 저희끼리 마구 칼로 찔러 죽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스레라 쪽으로 도망치던 적군은 벳시타에 이르렀고 더러는 타빻 건너편 아벨므홀라 냇가에 이르렀다. 23.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나쎄 지파에서 불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24.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에 전갈을 보냈다. “내려 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몰려 나와 벳바라에 이르기까지의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25. 그리고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렘과 즈엡을 사로잡았다. 오렘은 오렘 바위에서 죽이고 즈엡은 즈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오렘과 즈엡의 머리는 요르단강을 건너 기드온에게 전해졌다.

### 교리 요점

- \* 스웨덴북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상태는 사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 \* 겸손과 용기는 악과 싸우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 기본 상응 공부

판관들 = 특수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특수한 진리들

### 해설

앞서 우리는 거룩한 땅의 정복과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는 시기를 여호수아서에

서 망라하고 있음을 배웠다. 이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관련하여 우리의 모든 자질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거듭나는 상태를 그려준다. 또한 “평화”를 의미하는 실로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므로 우리 속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가 뒤로 미끄러져가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것이다. 신명기 6장 10-12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한 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또한 여호수아 23장 4-13절에는 각 지파에게 주님께 대한 예배를 게을리 하지 말 것과 그들 경계선 내에 남아있는 적들과 어떤 교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이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시므온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은 경고와 책임을 소홀히 해 버렸고, 그로 인해 그들은 적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적들은 다시 강해져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서게 되었다. 이것이 판관기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로, 판관기 17장 6절에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로 함축하여 기술되고 있다. 이것은 영적 성공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위험과 파멸의 길이다. 주님이 누군가를 들어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했을 때만이 그들의 구원이 가능했다. 구원을 위해 일으켜 세운 판관들은 전 국토를 망라하는 통치자가 아니었고 오랜 세월동안 지배하지도 않았다. 판관들이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고개를 돌릴 때 우리의 기억들 속에 있는 진리들 중에서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신 특별한 진리를 뜻한다.

기드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외면의 것과 싸우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디안족이라는 사람들이 외면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내적으로는 종교적인 것들에 관한 거짓 생각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노령기 때의 부인인 게투라에게서 난 아들로, 어린 시절 우리의 종교적 진리에 대한 개념들과 개념들이 형성될 당시의 순진함과 선함을 그려준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피신하여 미디안 땅에 온 뒤 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고 40년간 그곳에서 보호되어졌다. 즉, 우리의 심정 안에 순진함이 있고 우리의 지성이 믿음에 대항하기 위한 추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어릴 적 생각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세상적 추론에 접촉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릴 적 종교개념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길에 놓이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님과 영적 삶에 대한 이해를 더해 가지 않으면, 불합리한 생각들의 무리는 미디안족이 이스라엘 농토를 짓밟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마구 휩쓸게 된다. 동물 세계에서 메뚜기란 어린 시절의 방자함이나 피상적인 생각들을 표현한다. 미디안족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메뚜기같이 돌아났던 것이다. 감각적인 경험에 기초한 모든 생각은 피상적(표면적)이고 어린애 같은 상태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종교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사용하도록 주어져 있음도 염두 해야 한다.

미디안족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밭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는 기드온은 시험 중에서 진실로 선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속의 보다 높은 자아를 표현한다. 그의 겸손함과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그를 쓰실 수 있도록 한 자질이다.

그가 요구한 두 가지 표적은 매우 흥미롭다. 양털이란 순진함에서 비롯된 선한 외적 생활을 표현하며, 땅바닥이란 넓은 의미에서 마음을 뜻한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란 새로운 상태의 시작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주님의 진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의를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때때로 갱신과 보다 나은 이해의 측면에서 보상받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은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다. 두 가지 보상은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 하에만 있다. 기드온은 주님이 자기를 이끌고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했다. 이 같은 확신은 우리 역시 실망과 좌절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기드온이 전투를 위해 대 규모의 군대를 소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시험에 직면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시험에 대처하기보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상징한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법정에 끌고 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 시간에 일러주실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기드온의 군대에서 첫째로 두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을 제거해버리셨고, 두 번째로는 방중한 자와 마음을 내켜하지 않는 자들을 추려내셨다. 이는 우리가 악마에게 응답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아야 됨을 말한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경험이 주어졌다. 여러분도 자기만족을 위한 피상적인 추론이 아닌 단순한 선택만으로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의 천막에 접근하여 옛들은 보리떡에 관한 꿈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삼백 명의 군대를 백명씩 세 팀으로 구성한 것은 삶의 세 평면을 의미하며, 세 팀이 적의 세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이란 우리 삶의 세 평면이 동시에 노력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른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공격은 횃불과 나팔로 이뤄졌다. 이는 캄캄한 시험에 말씀의 진리로 섬광을 비추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선포함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기드온의 칼”이었다. 적들은 그 앞에서 갈광질팡했다. 이기적인 것을 위해 세속적 추론을 즐기는 이들의 말문을 막게 할 무기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으로부터의 인용문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굳건한 삶의 자세뿐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은 성경의 무슨 책인가?
- 2) 판관이란 누구인가?
- 3) 지도자적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판관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4) 판관시대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 5)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6)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
- 7)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기드온이 주님께 부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 9) 그는 주님에게 어떤 확증을 요구했는가?
- 10) 그는 어떤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했는가?
- 11) 주님은 왜 군대의 수를 축소하셨는가?
- 12) 처음 돌려보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 13) 두 번째 테스트는 무엇이었는가?
- 14) 결국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 15) 그들은 무기 대신 무엇을 가졌는가?
- 16) 공격 작전은 어떠했는가?
- 17) 공격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 18) 판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판관기(사사기) 2) 일시적이며 지방적인 지도자들 3) 판관은 전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는 아니었다. 4) 하느님을 잊어버린 것 5) 기드온 6) 므나쎄 7) 미디안, 야말렉 8) 스스로 겸손했다 9) 양털뭉치와 이슬 10) 아셀, 즈불론, 납달리, 므나쎄 11) 하느님이 승리를 안겨 주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12) 두려움이 있었다. 13) 물을 마시는 태도로 14) 삼백 명 15) 횃불, 단지, 나팔 16) 적을 포진하고, 단지를 깨고 고함을 지름 17) 혼란에 빠지게 해서 승리함 18) 특수한 곤경에 빠질 때 필요한 특수적인 진리들

## 15

###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다



## 머리말

본과를 통해 주님께 대한 정기적인 예배를 갖지 않고도 스스로를 규율하며 인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엘리와 아들들의 죄를 보면, 예배 자체가 이기심과 자기 충족 그리고 불순종으로 연속되어 타락해 감을 볼 수 있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3장

3장: 1.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 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2.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자리에 누워 있고 3. 사무엘은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4.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은 “예”하고 대답하면서 5. 엘리에게 뛰어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 와 자리에 누웠는데 6.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엘리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거라”하고 대답하였다. 7.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으셨고 사무엘은 아직 야훼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8. 야훼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다. 그제야 엘리는 야훼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일러 주었다. 사무엘은 돌아 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 그러자 야훼께서 거기에 나타나 서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리라. 12. 그 날이 오면, 내가 엘리와 그 집안을 두고 말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

리라. 13.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는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여 끝내 벌하고야 말겠다. 그것은 제 자식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안을 두고, 제물이나 예물을 소홀히 다룬 그 죄는 영영 용서해주시 않으리라고 맹세하였다.” 15.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 감히 밤에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고하지 못하였다. 16. 그러는데 엘리가 “애, 사무엘아!”하고 불렀다. 사무엘이 “예!”하고 대답하자. 17. 엘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 다오.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 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느님께서 너에게도 나에게 내리시는 벌 못지 않은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하고 다그쳤다. 18. 그래서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랴!”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야훼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받들게 되었다. 21. 야훼께서는 실로에서 당신을 거둬 나타내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그 곳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 교리 요점

- \* “아껴두심 혹은 나머지”에 관한 교리: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해 놓으신 일들을 말한다.
- \* 말씀의 글자를 담고 있는 기억적인 지식은 우리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 \* 룯기서는 내적인 뜻은 없다.

### 상응 공부

듣는 것 = 순종하는 것  
 머리털 = 가장 바깥쪽의 삶  
 주님을 표현하는 머리털 = 말씀의 글자

## 해설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친숙한데, 그의 이야기는 질서 정연한 삶의 발달에 관해서 말해준다. 한나가 사무엘을 일찍이 성막으로 보내서 주님께 헌신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일찍이 세례 받게 하고 기독교인의 삶 안에서 육성하겠다고 서약하는 일들이 그에 해당된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심껏 주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올 때 어린아이는 들을 준비가 되어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

본문에는 기억해 두어야 할 구절이 많다. “그 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는 일도 드물었다.”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여 주님과과의 접촉을 잃어 버렸다는 뜻이다. “엘리는 이미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성이 구름에 덮여 있음을 뜻한다. “하느님의 궤가 있는 야훼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서의 등이란 성소의 일곱 가지가 있는 등불을 의미하며 등불은 계속 타도록 되어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계속 역사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즉 하느님의 등불이 꺼질 무렵이란 주님의 진리와 우리의 연결이 거의 깨질 무렵을 뜻한다. 주님은 바로 그 때, 즉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 부름에서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세 번 부름이란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호소하시는 것을 말한다. 우리 마음의 세 측면이란 생활 면과 지적 면 그리고 의지 면이다. 밤중은 우리의 냉담한 가슴을 말하며, 주님의 음성은 기꺼이 순종해 보려는 심정에 들려진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열었으나”에서 아침이란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영적 상태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야훼의 성전 문들을 연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상황을 표현한다.

우리가 성숙된 의식 구조를 갖고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시작은 사무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와 그의 아들을 문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영적 재구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바로 잡아야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지 않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던 어린 시절의 좋은 습관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주장에 휩쓸려 자기만족만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의 영예나 영달을 우선하게 된다.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주님의 것을 착복했듯이 주님의 것인 선을 그분으로부터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겸손함과 순진함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다. 우리는 고대 히브리 백성들에 의하여 표현된 생각과 감정의 모든 복합체들은 우리가 성숙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들을 말해준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들이란 물질주의, 우상숭배, 자기만족, 완고함, 거룩한 것을 모독함 그리고 자신 혹은 타인에게 있는 죄를 못 본 척 해버리는 약한 의지 등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사무엘도 있다. 어린 시절에 우리의 기억 속에 심어진 사무엘에게 주님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는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야 할 부분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심어두신 선의지를 통하여 말씀하는 주님의 진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무엘로 상징되는 선의지 곧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하느님의 등불,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마치 드센 바람 앞의 등불처럼 즉시 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첫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예배할 필요성을 깨달은 후 우리 삶을 이끌어갈 더욱 높은 원리(왕)들을 채택해 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사무엘은 모세와도 연결된다. 스웨덴북은 성경에서의 지도자나 예언자가 말씀을 표현하듯이 사무엘과 모세도 말씀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특수한 면으로 볼 때 모세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의무조항으로 여겨지는 시기에 있게 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순종은 의무이며, 즐거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싫어서 행하는 것일 뿐이다. 사무엘 역시 순종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가 어리석은 길, 즉 자아의 길로 간 후 다시 우리의 심정으로 되돌아와 자리 잡은 순종이라는 점에서 모세의 순종과 다르다. 또한 사무엘은 예언자였다.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솔로몬의 영화로 표현되는 그들의 역사상 최고점으로 발달하게 될 것을 소개하고 그 시기로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다.

### 질문 정리

- 1) 마지막 판관은 누구인가?
- 2)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대 사제는 누구였는가?
- 3) 사무엘은 왜 성막으로 데려와졌는가?
- 4)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 5) 엘리와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 6) 엘리는 왜 아들들의 잘못을 막지 못했는가?
- 7)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 8) 주님이 부르시자 그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 9)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기 전 주님은 몇 번 그를 부르셨는가?
- 10) 주님은 엘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는가?
- 11) 본문 이 후 백성들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2)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엘리 3) 어머니가 주님에게 서약했기 때문
- 4) 엘리를 섬겼다 5) 주님께 드릴 예물을 착복했기 때문
- 6) 너무나 나약했다 7)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다.
- 8) 엘리가 부른 것으로 생각했다 9) 세 번
- 10) 엘리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잃게 될 것이다. 11) 예언자
- 12) 주님은 세 평면, 즉 생활면과 지적면 그리고 의지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 16

# 사울의 성급함

### 머리말

사무엘의 인격과 직무는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판관 시대와 제왕 시대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사무엘과 사울의 직책의 차이점과 사무엘이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 사울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기간까지 실제로 존재 했었던 이유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그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 그리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요소인 선택의 자유에 근원하고 있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3장

13장: 1... 2.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므마스 와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천 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방 계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불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리하여 불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방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4.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불레셋 수비대를 쳐서 불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 사울과 합세하였다. 5. 불레셋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가 삼천,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올라 가 거기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7. 더러는 요르단 여울을 건너 가드와 길르앗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칠 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여 번제를 드렸다. 10.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은 11. “이게 도대체 무슨 일ियो?”하며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시는데다가 불레셋군은 믹마스에 집결해 있어 12. 야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도 전에 불레셋군이 길갈로 쳐내려 올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 주실 터인데,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 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우실 것이요.” 15.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 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적군 쪽으로 이동하였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계바로 올라 가 병력을 점검하여 보니 육백 명밖에 되지 않았다. 16.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계바에서, 믹마스에 진을 친 불레셋군과 대진하였다. 17. 불레셋 진영에서는 기습부대가 셋으로 나뉘어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18.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였다. 19.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불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2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려면 불리셋 사람이 사는 데로 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1.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삼분의 이 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가는 값은 십분의 일 세겔이었다. 22.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다. 23. 불레셋군의 전초부대는 믁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 교리 요점

\* 자아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발전을 위한 기본자세이다.

### 상응 공부

불레셋 = 의를 행함 없이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시험

사울 = 글자만으로 이해한 말씀의 진리

사무엘 = 어린 시절 같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무기들 =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나 시험에 대처하여 우리를 방어해 주는 진리들

농기구 = 인격을 발달시키는데 사용되는 진리들

### 해설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고 판관으로서 전 백성에게 인정받기도 했다. 사무엘 외의 다른 판관들이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주님이 끌어내신 개별적인 진리들을 표현한다. 진리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개별적 과오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과오가 극복되면, 개별적인 진리들은 우리의 통괄적 지식 안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반면, 사무엘은 통괄적 진리를 표현한다. 통괄적 진리란 우리의 약함과 과오로 얻어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얻어진 진리이다. 우리와 주님과 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언제나 약하고 무지하므로 아버지로서 그분을 찾아야 하며, 설령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이해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께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진리가 바로 사무엘이다.

위의 논지는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성을 주셨고, 우리가 실수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때조차도 우리가 이해성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의를 실천하려 하고 우리 속의 판관이 사무엘임을 인식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한 실수로부터 득을 보도록 도우실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해 주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살아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과 둘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음과 사울이 왕일 때조차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심판해 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들이다. 사무엘상 7장 15-17절을 읽어 보자. 사울은 40여 년간 통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치 기간은 성경에서 알 수 없다. 사무엘은 대략 사울이 죽기 4년 전까지 살았었다.

이스라엘의 세 왕은 우리를 주도하는 연속적인 원리와 주님의 진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을 표현한다. 사울은 진리에 대한 자연적 이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다. 자연적 이해성은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며 행동면에서는 오히려 더 열성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연적 이해성은 인내력이 없어서 지체함을 참지 못하고 표면적(가시적)인 것만을 바탕으로 추론하여서 다른 모든 것보다(특히 주님도 포함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을 올려 세우는 일이 흔하다. 이것은 사울이 암몬족은 이겼으나 불레셋은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의 의미이기도 하다. 제 11장은 사울의 첫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 암몬족이란 롯의 후손으로 우리의 외적 악들을 뜻한다. 이러한 사울의 승리는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더라도 도덕적이며 유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레셋이란 시험은 상황이 다르다. 진리에 대한 자연적(피상적) 이해는 사람들을 올바른 외향적 생활 태도로 이끌어 줄 수 있으나 그들 속의 이기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신의 총명을 자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게 된다. 불레셋이란 진리를 외향적으로만 알면 된다는 시험을 표현한다. 사울이 불레셋에 대항하여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과 그 힘이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의 방향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승리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 그가 실제로 신뢰한 것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힘일 뿐 주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이 그를 떠나 뿔뿔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일들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의 이해성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빠른 결과를 원한다.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의 이해성은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새로운 경로를 밟기 위해 서두르며 애쓴다. 사울로 상징되는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의 이해성은 주님에 대한 가장 단순한 순종심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혜마저도 신용하려 들지 않음이 결정적인 흠이다.

사울에게 가해진 벌은 혹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단지 우리의 초기 단계의 이해성이 우리의 적절한 안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해 줄 뿐이다. 우리의 초기 단계의 이해성은 내면의 깊이가 부족하며 인내심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안내자 대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령(왕)이 세워져야 한다. 제 14절의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이란 표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제 19-22절을 주목해 보자. 당시 이스라엘은 불레셋에 그들의 무기나 농기구들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기 과신에 포로가 되어있는 명확한 그림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 과학과 인문 과학적 추론의 발전을 찬양하는 반면 종교는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왕으로서의 사울은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표현한다. 그 진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이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늠이 가능하다. 자연적 이해성은 명백한 약함을 가지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더 깊고 영적인 이해성으로 경질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이해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승리하며 약간의 순수한 진리나 교리도 산출할 수 있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게 할 진정한 교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차후 더 공부하게 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 2) 그들의 첫 왕으로 주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 3)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백성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 4) 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데 기뻐했습니까?
- 5) 사울이 처음 정복한 적은 어떤 적입니까?
- 6) 그 다음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 7)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 8) 무엇이 블레셋을 성나게 만들었습니까?
- 9) 어떤 방식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 10)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 집결했습니까?
- 11)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 12) 사울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13) 그는 사무엘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 14)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15)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6) 특별히 사울 왕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17) 블레셋족은 무엇에 상응됩니까?

## 질문의 답

1) 전쟁을 이끌 지도자 때문에 2) 사울 3) 제비를 던져서 4) 키가 크고 강건했기 때문에 5) 암몬족 6) 블레셋족 7) 블레셋의 군사가 더 막강했다 8) 요나단의 공격 9) 이스라엘에게 대장장이 직업을 허용치 않음으로 10) 길갈 11) 칠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라 12) 자기 스스로 제물을 바쳤다 13) “군인들은 하나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하신 때에 오지 않으므로...”

- 14)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오...” 15)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함  
16) 진리를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해함 17) 믿음만을 강조

## 17

### 다윗과 골리앗

#### 머리말

말씀은 세 왕들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네 개의 과에서만 각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왕의 통치에 따라 있게 된 사건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각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세 왕들은 성인이 되어서 거듭나는 세 단계 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다뤄지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진리 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용하려는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사울)는 성급하고 피상적이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되기 마련이다. 사울의 실패는 성급하게 일을 치르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판단이 주님의 것과 부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어겨버리는데서 근원한다. 다윗은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면을 보는 것, 즉 동기를 살피며 자신의 필연적인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을 자기의 인도자

로 삼아 그분께 절실히 도움을 간구하는 면을 지닌다. 솔로몬도 다윗과 사울처럼 진리를 표현한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리는 우리의 심정 속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실천한 후에 얻어진 것이므로 사울과 다윗이 표현하는 진리와 무게를 달리한다. 세 왕들의 관계적 측면을 염두하고 각 과의 사건을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7장

17장: 1. 불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뎀에 진을 쳤다. 2. 사울은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불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3.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4. 불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 왔다. 그는 갓 출신으로서 장신이었다.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나갔으며, 6.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받이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 창대는 베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육백 세겔이 넘었다. 방패당변을 앞에 세우고 8. 나셔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찌겠느냐? 너희 사울의 줄개들아, 이 불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 보내라. 9. 만약 그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그리고 나서 그 불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11.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불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12.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팔 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13.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세째 삼마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16. 그런데 불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볍은 밀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18. 이 치즈 열 개는 그 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 가지고 오너라.” 19.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불레셋군과 싸우고 있었다. 20.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 준 대로 채비를 갖추어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불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22. 다윗은 가지고 온 보파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 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23.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갓 출신 불레셋 장수가 불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 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24.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25.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땀해 주는 말을 듣고, 26.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불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준 다구요? 저 불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27.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리이러하게 해 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 주었다. 28.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 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29. 다윗은 “그저 물어 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하고는 30.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 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31.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서 불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달련해 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았다.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 가면 35. 소인은 한사코 되쫓아 가서 그놈을 쳐 그 아가리에서 양새끼를 빼내곤 했습니다. 그놈이 돌아 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불레셋의 오랑캐놈도 그렇게 해치우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37. 계속해서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 내신 야훼께서 저 불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 내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내렸다. “그러면 나가거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38.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낫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39.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을 입어 본 일이 없었으므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 버렸다. 40.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개울가에서 자갈 다섯 개를 골라 목동 주머니에 넣은 다음 돌팔매 끈을 가지고 그 불레셋 장수 쪽으로 걸어갔다. 41. 불레셋 장수도 방패당번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에게 다가 왔다. 42. 불레셋 장수는 다윗을 건너다보고 불이 붉은 잘생긴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습게 여겨, 43.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리고 불레셋 장수는 다윗에게 올라메었다. “어서 나오너라. 네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나 다윗은 불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욕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46.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 주셨다. 나야말로 네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불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47.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 불레셋 장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대열에서 벗어나 뛰쳐나가 다가 49.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팔매질을 하여 그 불레셋 장수의 이마를 맞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리하여 다윗은 칼도 없이 팔매돌 하나로 불레셋 장수를 누르고 쳐 죽였다. 51. 다윗은 달려가서 그 불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 불레셋군은 저희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불레셋군을 추격하여 갓을 지나 에크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이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는 길에는 불레셋군의 시체가 덩굴게 되었다. 53. 이스라엘군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 와서 불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 54. 다윗은 그 불레셋 장수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는 자기의 천막에 간직하였다. 55. 사울은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와 대결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사령관 이브넬에게 “아브넬 사령관, 저기 저 소년은 누구의 아들이오?”하고 물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아는 바 없습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대답하자, 56. 왕은 아브넬에게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보시오”하고 일렀다. 57. 다윗이 그 불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손에는 불레셋 장수의 목이 들려 있었다. 58. 사울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 교리 요점

- \* 진정한 추론은 반드시 영적 원리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 우리의 자만심은 영적 인생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이다.

### 상응 공부



다윗 = 영적 추론으로 통치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골리앗 = 우리 속에 깊게 자리 한 자만으로 기울려는 경향성  
 양 =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  
 개울에서 주운 자갈 = 경험으로 입증된 말씀의 진리  
 악기들 =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 해설

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들은 자연적인 이성의 통치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 때를 맞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통치 원리, 즉 새 “왕”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새 왕이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 줄 진리를 보다 깊고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원리를 뜻한다. 이는 우리가 보다 더 깊게 선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울이 우리 안의 보좌에 있을 때, 우리는 무작정 선을 행한다. 하지만 이때의 선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수준에 불과하다. 타인을 해치지 않음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선을 찾으려는 마음과 선을 행하며 타인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 머문 마음을 사울과 다윗이 상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기 직전의 모습을 말한다. 다윗이 부름 받을 때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고(사무엘상 16:11), 사울이 부름 받을 때 그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고 있었다(사무엘상 9:3). 나귀는 자연적 추론을 사모하는 마음을 뜻하고, 양은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

다윗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인데, 이는 “선으로부터 온 진리”를 표현한다고 스웨덴북은 말한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은 우리를 통치해야 할 진정한 왕으로서 보다 더 깊은 합리성을 인식하는 첫 단계를 그린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 안의 보좌에 앉기까지는 길고 긴 여정이 소요된다(사무엘하 5:3 참조). 다윗이 기름 부어지고도 사울이 계속 왕위를 지켰듯이, 과거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지만, 그는 계속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긴 투쟁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도우며 친절을 잃지 않았다. 이는 청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의 특성이기도 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 들인 습관은 악착같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요구될 때마다 그것을 수궁하는데 걸림돌이 되곤 한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한 아주 초기 단계중의 하나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삶의 의미를 더 높은 이해성의 빛으로 조명함으로써 영적인 독선인 자화자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추론과 그 속에 깊이 든 오류들을 판단해 내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을 뜻한다.

거인 골리앗은 태고교회가 전복된 후 남은 이들 중 마지막 사람이다. 그는 유전으로 받아 우리 속에 깊게 들어앉은 자만심을 표현해 준다. 그의 무기나 갑옷은 자만심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각종 추론들을 그려준다. 그는 블레셋족의 장수였고, 우리 속에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성 즉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나 정작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동기와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고 지식을 원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다윗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했으며, 개울가에서 얻은 자갈을 목동 주머니에 담아 무기로 사용했다. 자갈이란 자기 체험으로 입증한 말씀의 단순한 진리들이다. 그리고 진리들이 장차 자신의 삶에 유용할 것으로 여겨져 기억 속에 저장해 둔 상태가 바로 목동 주머니에 담긴 자갈이다. ‘재빨리 뛰쳐나가다가’ 온힘을 다한 팔매들은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되었다(48절). 골리앗의 이마란 이기심이 통치하는 원리를 말한다. 다윗은 달려가서 블레셋 장수를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목을 잘랐다(51절). 이 구절은 자아를 추켜세우고 지켜 줄 것 같았던 골리앗의 칼, 즉 자만심에서 비롯된 추론은 결국 자승자박을 초래하고야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 장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전투에 등장한 적들은 우리 속에 항존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왔다. 적의 대열에 앞장선 거인의 본성을 안다면, 거인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정복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블레셋 같은 악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블레셋족 또는 골리앗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루만이라도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악이 많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자칫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스스로를 꽤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여 변명해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타인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하게 된다. 이 같은 것이 우리 속에 늘 상존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특별한 지식 또는 실력을 과시하면서 타인들에게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문 16절에는 “불레셋 장수가 아침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 온 지가 사십 일이나 되었다”라고 기술된다. 즉, 자존심 또는 자만심이라는 거인은 우리 생활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몰하면서 우리의 영적 진보의 각 단계에 싸움을 건다는 말이다. 그러나 시험에 대적하는 우리가 45절의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온” 다윗의 용기와 47절의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와 같은 다윗의 신뢰함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시험의 이마를 강타해줄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백해진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을 삶에 적용시켜 더 나은 선한 삶을 건설해 갈 수 있게 된다. 본과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4장 1-11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 질문 정리

- 1) 다윗은 어디에 살았는가?
- 2)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3) 사울의 군대와 불레셋 군대는 어디에서 대치했는가?
- 4) 불레셋 장수는 누구인가?
- 5) 골리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 6) 그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가?
- 7) 다윗은 왜 군인이 집결한 싸움터에 오게 되었는가?
- 8) 그는 사울에게 무엇을 제안했는가?
- 9)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10) 왜 다윗은 사울의 무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11)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 12)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지게 했는가?
- 13)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는가?
- 14) 불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골리앗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 16) 개울가에서 주운 자갈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목자 3) 엘라 골짜기(느티나무 골짜기) 4) 골리앗 5) 키가 9피트였고 무거운 무장을 했다 6) 불레셋 장수와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 보내라 7) 전투하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8) “소인이 나가 저 불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9) 하느님을 신뢰했다 10) 그의 무장을 입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11) 돌팔매 끈, 다섯 개의 자갈 12) 돌팔매질을 하여 쓰러트렸다 13) 골리앗의 칼
- 14)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함
- 15) 자만심, 교만함
- 16) 우리가 사용해보아 효과가 입증된 말씀속의 진리

## 18

### 솔로몬의 영화

#### 머리말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평화로운 상태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윗의 통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9장, 10장

9장: 1.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2. 야훼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3.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네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 곳에 두리라. 4.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 준 모든 계명을 지켜 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5.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 주리라.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6.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7.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8.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9.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흘러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10.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이십여 년이 걸렸다. 11.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재목과 금을 보내 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이십 개를 히람왕에게 떼어 주었다. 12.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 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13.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뭐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14. 히람은 금 백 이십 달란트를 솔로몬왕에게 보냈다. 15. 솔로몬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성을 쌓고 하술, 므기또, 게젤을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는

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6.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젤을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보내면서 이 게젤성을 결혼선물로 주었는데 17. 솔로몬이 이 게젤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벳호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18.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말을 다시 세웠다. 19.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20.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2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 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22.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3.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오백 오십 명이나 있었다. 24.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 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25.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일 년에 세 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26. 솔로몬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27.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28.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사백 이십 달란트를 실어 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10장: 1.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2.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3.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4.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 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5.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해 마지않으며 6.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7.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8.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 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9.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 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0. 여왕은 금 백 이십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두 번 다시 받아 보지 못하였다. 11.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12.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 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13. 솔로몬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4. 일 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육백 육십 육 달란트나 되었다. 15.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16. 솔로몬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이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이 들었다. 17.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삼백 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삼мина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18.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19. 그 옥좌에는 계단이 여섯 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팔걸이 옆에는 사자 두 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20. 여섯 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쪽에 여섯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21. 솔로몬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2. 또 왕은 다르싯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싯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삼 년이 걸렸다. 23. 솔로몬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24.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

25.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26.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천 사백 대, 군마는 만 이천 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27.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맹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28.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29.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에 은 백 오십 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 교리 요약

\*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하게 될 수 없으며, 시험은 진리로서만 정복될 수 있다.

### 상응 공부

솔로몬 =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에 기초하여 진리를 이해함



40 = 시험

상아 = 합리적인 진리

배 = 지성으로 지혜를 탐사할 수 있는 지식

## 해설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히브리인의 역사 중 정점에 해당된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거룩한 땅에 살던 타민족들은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쳤고, 주변 국가의 왕이나 여왕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영예를 주시했었다.

주님이 섭리하셔서 기록된 전 유대인의 역사는 개인의 삶의 과정과 더불어 인류의 삶에 관한 것 그리고 특별히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을 심도 있게 그려주고 있다. 히브리 국가가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작고 무지함으로부터 출발한 것같이 우리 각자는 자아 사랑과 자만으로 가득한 본성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하면서도 때로 승리하며 계속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용기를 갖고 전진하다가 시험에 직면하여 자포자기하면서도 때때로 얻은 승리에 만취하여 삶을 영위해간다.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적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질서적인 삶의 상태로 점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위의 외적인 적들을 정복하게 된다. 그 후 우리는 우리 속, 즉 보다 깊고 내적인 적들을 짓누르고 천적인 인격에 도달하게 된다. 천적인 인격이란 우리의 심정이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지성은 주님의 진리로 기뻐하여 우리의 실생활이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부유해짐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천적인 인격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기 위해 수반되는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본문의 솔로몬과 야훼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솔로몬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어느 누구도 천국적인 인격의 내적 평화와 아름다움에 쉽게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세상적인 성공은 영원히 소유될 수 없지만 천적인 인격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평화로웠고, 그의 이름 또한 평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심정 안에서 악과 투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우리는 평화 안에 있게 된다. 우리의 약함이나 한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9:20-21 참조).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자질은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게 된다(9:22-23 참조). 자연계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해지며 우리의 영적 생각 속에 제각기 자리 잡아 정돈된다(9:11). 우리의 지성은 학식에 속한 전 분야를 잘 배열하고 유익한 것들을 실어 보내준다(9:26-28). 솔로몬의 상선대는 히브리국가가 소유한 최초의 해군으로 성공적이었다. 상선대는 약 60년 후 여호사밋의 통치 때에 사라졌다(열왕기상 22:48 참조). 주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의 진정한 균형과 관계를 알도록 한다. 그 믿음이 약화되어갈 때 우리의 해군(상선대)은 조난당하게 된다.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는 주변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는 “그리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식을 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또한 그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공동번역 성서 5:14). 솔로몬을 방문한 왕들 중 한 예로 세바의 여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본은 세바는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천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세바의 여왕이 가져온 선물, 즉 낙타에 실려 온 각종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10:2)은 자연적인 인간의 총명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AC 3048).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는 진정한 천국적인 인격을 소유한 이들이 갖는 판단하는 힘과 고상함을 그린다. 천국적인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혜와 이해성 때문에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개혁되는 과정과 거듭나는 상태를 거쳐 솔로몬으로 표현되는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출해진다. 이는 제 10장 23-24절의 “솔로몬 왕은 땅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 왔다.”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질문 정리

- 1) 다윗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 2) 다윗 후의 왕은 누구인가?
- 3)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4)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 5) 주님은 그가 간청한 것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는가?
- 6) 솔로몬은 다윗에게 금해진 어떤 일을 실행했는가?
- 7) 그밖에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 8) 누가 솔로몬에게 송백나무와 숙련공을 공급해 주었는가?
- 9)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10) 솔로몬의 첫 아내는 누구인가?
- 11) 솔로몬은 이스라엘 족들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엇을 창설했는가?
- 12) 어떤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는가? 왜 그녀는 그를 방문했는가?
- 13) 그녀는 솔로몬과 대담한 후 어떤 말을 했는가?
- 14) 솔로몬의 옥좌에서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15) 본문에는 왜 금에 관한 언급이 많은가?
- 16) 왕으로서의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40년 2) 솔로몬 3) 평화 4) 지혜 5) 부와 영예 6) 성전 건축
- 7)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성 8) 히람 9) 20개의 성읍 10) 파라오의 딸
- 11) 상선(商船)단 12) 세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13) 들은 것보다 더 슬기롭다
- 14) 여섯 계단, 열 두 사자, 금을 입힌 상아
- 15) 금은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 16) 충분히 거둬낸 사람

## 19

# 호렙 산에서의 엘리야

### 머리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와 이스라엘 왕국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9장

19장: 1.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2.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내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3.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곳에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싸리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5.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6. 엘리야가 깨어 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7.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하고 말하였다. 8.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렀다. 9.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 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 왔다. 13.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겹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져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 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을 남겨 두리라.” 19.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열두 켤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겂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20.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 보게. 내가 어찌 작별인사를 금하겠는가?” 21.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 상응 공부

유다 = 심정 또는 의지부분  
 이스라엘 = 지성 또는 이해성부분  
 아합 = 지성을 통치하는 거짓 원리  
 이세벨 = 세상과 자아만을 사랑함에서 나오는 기쁨  
 엘리야 = 예언적인 말씀  
 엘리야의 겂옷 = 말씀의 글자

### 해설

엘리야는 가장 잘 알려진 예언자이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의 권능 때문, 또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모세로 지칭하여 말했듯이 말씀의 예언적인 부분을 엘리야로 지칭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본 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엘리야는 분단된 왕국 중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다.

유다왕국은 심정 또는 의지를, 이스라엘 왕국은 지성 또는 이해성을 표현한다. 어떤 이는 좋은 습관을 갖고 성장하여 성실한 시민이 되어 자신 속에 경건한 삶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자신 속의 동인이나 생각 또는 행동들이 주님의 진리 앞에서 신실하게 되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망각하기도 한다. 이는 제 11장에서 솔로몬의 여인들과 그의 타락으로 그려진다. 그는 이러한 망각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 원리에 배치되는 세상의 많은 사상이나 목표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방심해 버린다. 그는 오랜 방심의 상태가 지난 후 자신이 분단된 마음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선한 의도심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 이른바 유다왕국이 나름대로 오랜 기간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한 모습과 같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세상적인 사상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수용하려는 것과는 반대되는 원리로 삶이 이끌어지는 상태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상징된다.

엘리야 역시 많은 예언자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한다. 그는 주님에 의해 들려져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왕을 경고하고 견책하도록 보내졌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한 인물이다. 바알숭배란 자아숭배를 상징한다. 이는 그가 시돈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자아와 세상 사랑에서 오게 되는 기쁨을 표현한다. 그녀는 역사상에서 가장 사악한 여인으로 지칭된다. 그녀는 450여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두었다. 그러나 가르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의 강력한 대결로 그녀의 예언자들은 키손 개울에서 살해되었다.

아합과 그의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확인했으나 이세벨만은 분노하였다. 이는 우리속의 이기적인 모든 것이 우리를 확신시켜 주려는 형태로 어떤 진리가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에 대항하려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과 같다.

엘리아의 실망과 도망은 우리가 우리속의 깊은 이기심이 아주 강함을 느끼게 되어 그것을 꺾는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우리를 그려준다. 이러한 상태에 처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은 엘리아의 여행 이야기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그는 처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거주지로 정했던 곳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의 심정 상태인 단순한 신뢰 속에 든 주님의 언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돌아감은 우리가 좌절할 때 취하게 되는 첫 단계이다. 그 후 엘리아는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었다. 이는 자연적인 사람에만 어울리는 추론을 자신으로부터 떨쳐 버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이는 자연적인 수준의 추론을 버린 뒤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는 한 단계 높아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싸리나무 덩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아 죽여 달라고 기도했다. 싸리나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싸리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의 광야에 흔한 금작화의 일종으로 그늘로서 용이하다. John Worcester는 「성경의 식물들」이란 책에서 싸리나무란 지상 위에서 운행되는 주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그린다고 말한다.

위의 구절들은 글자대로 보면 엘리아가 크게 실망했음을 알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텅 빈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바램임을 알 수 있다. 그 바램은 “엘리아는 싸리나무 덩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명백해진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의식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일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두 번씩 빵과 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의지가 구석으로 밀려나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선과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심정과 지성이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엘리아는 음식과 물로 힘을 얻어 호렙산 혹은 시나이산까지 갈 수 있었다. 그 산은 항상 계명을 상징한다. 엘리아는 그곳에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을 맞게 되는데, 이들 세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의지 면에서의 시험을 상징한다. 주님의 음성은 어느 시험 속에도 계시지 않고 시험이 다 지나간 뒤 오는 조용한 묵상 속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도록 해 준다. 이 후 엘리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칠천 명”이 있다는 보증으로 위로 받는다. 즉, 우리가 홀로 주님의 의를 준수하며 고되고 지치고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올바른을 위해 우리와 동행할 자가 상상보다 많이 있다는 말이다.

엘리야는 그의 일을 완성시키도록 되돌려 보내졌다. 그의 일이란 그의 일을 맡아서 수행해 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하나, 엘리사는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해서 사용되는 말씀의 글자를 표현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했을 때, 그가 수소 열두 마리에 거리를 지워 밭을 갈고, 이미 열두 켤레 갈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선을 행하려 하고, 그렇게 선을 행했음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이해된 말씀이 영적 도움에 사용되기 위해서 최고의 바탕(ground)임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솔로몬이 건립한 세 건축물은 무엇인가?
- 2) 솔로몬이 죽은 뒤 왕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솔로몬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 4) 분열된 두 왕국은 각각 무엇이라고 불리었는가?
- 5) 분열된 왕국은 각각 무엇을 그려주는가?
- 6) 이스라엘에 어떤 승패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 7)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누구인가?
- 8) 그 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 9) 본문에서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10)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 11)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처음 간 곳은 어디인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 13) 그 다음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 14)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과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 15)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6) 주님은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 계셨는가?

- 17) 이러한 징조 뒤에 무엇이 뒤따랐는가?
- 18) 주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는가?
- 19)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20)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 21) 주님이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성전과 두 궁전 2) 왕국이 갈라졌다 3) 우상숭배, 무거운 세금
- 4) 이스라엘, 유다 5) 인간의 마음이 심정과 지성으로 구성된 모습
- 6)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숭배했다 7) 아합 8) 이세벨 9) 엘리야
- 10) 그가 바알 예언자들을 살해했다 11) 브엘세바
- 12) 천사들이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
- 13) 호렘 14) 시나이산, 십계명 15) 주님이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 주셨다
- 16) 아니다 17) 조용하고 여린 소리 18) 주님께 신실한 자가 칠천 명이나 있다
- 19) 새 왕들을 기름 붓고 후계자를 세워라
- 20) 황소 열 두 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다.
- 21) 시험 후 조용한 명상 시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그린다.

## 20

### 히즈키야 왕과 이사야

#### 머리말

본문을 통해 유다왕국의 특수한 성격을 알아본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포로가 되는 신세를 떠올리면서 공부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은 사악했다. 반면,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하는 히즈키야왕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0장

20장: 1. 그 무렵 히즈키야가 몹시 앓아 거의 죽게 되었다. 아모쓰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요,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시를 내려 기강을 바로 잡아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하지 못하리라.’” 2. 히즈키야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야훼께 기도하였다. 3. “오, 야훼여,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으며,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즈키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다. 4. 이사야가 성의 안뜰을 떠나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왕 히즈키야에게 일러 주어라. ‘너의 선조 다윗의 하느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 주리라. 삼 일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6. 내가 너의 수명을 십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 주고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 말을 전한 다음 이사야는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무화과로 만든 고약을 가져다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왕의 병이 나았다. 8. 히즈키야는 자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삼 일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는 무슨 증거라도 야훼께서 주셨는지 이사야에게 물었다. 9.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여기에 야훼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할까요?” 10.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를 열 칸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예언자 이사야가 야훼를 불러 찾았다. 그리고는

그림자를 아하즈의 계단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12. 그 무렵 바빌론의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13. 히즈키야는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 주었다. 히즈키야는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14. 예언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요.” 15.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았소. 또 나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그들은 모두 보았소.” 16.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네 선조들이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였던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기우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18.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친아들들 중 더러는 바빌론 왕궁으로 끌려가 내시가 되리라.’” 19.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전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하였다. 20. 히즈키야의 나머지 사적과 업적, 저수지를 파고 물길을 터서 성안으로 물을 끌어 들인 일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즈키야는 잠이 들어 그의 선조들 곁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므나שה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 교리 요점

- \* 신약 성서에서 사마리아인들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 그곳에 정착하여 산 외국인들의 후손이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포기하고 그릇된 사고로 점령되어 그릇된 사고가 오래 지속되는 양상을 그려준다.
- \* 우리의 지성이 세상적인 추론에 포로가 되면 우리의 선한 의도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 외향적인 선한 일 안에는 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 상응 공부

무화과 = 외적으로 선한 일

아시리아 = 합리적인 평면

바빌론 = 자아욕에서 비롯된 지배욕

### 해설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영화만을 추종했을 뿐 어느 누구도 나라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엘리야 시대 후 약 150여년 되던 해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지극히 자연적이며 세상적인 추론에 포로가 된 모습을 그린다. 아시리아는 텅 빈 땅에 동쪽 먼 나라의 외국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놓았는데, 그들이 바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이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사라지게 되자 남쪽 유다왕국은 외세 침략에 대한 방어벽을 잃은 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진정한 진리 보다 자연적인 추론을 더욱 중요시하여 이해성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심정이 제아무리 선한 의도를 품고 있다하더라도 결국 악들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 왕국의 포로가 되어 사라질 때 유다왕국은 히즈키야왕의 통치하에 있었다. 그는 솔로몬 이후 가장 선한 왕이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이 알게 된 진리를 수호해 보려는 노력을 중단한 이후에도 우리의 심정에서 곳곳이 노력하는 모습을 말한다.

히즈키야는 산당을 철거한 첫 번째 왕이었다. 산당이란 자아 찬양에 쏠려 있는 생각들을 뜻한다. 그는 산당과 더불어 구리뱀도 파괴시켰다. 민수기 21장 4-9절을 보면, 구리뱀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들어

세웠던 것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간직해 오다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구리뱀은 처음 주님에 속한 신성한 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 감각적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만이 진리인 듯 착각할 때, 즉 뱀을 우상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는 18장 4절에서 “구리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산산조각 내었다함은 감각적인 쾌락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히즈키야는 18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훼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제 19장에서 소개된다. 주님의 권능은 과거에 보이셨던 만큼 위대하고 강력함을 19장에서 볼 수 있다. 19장 35절을 보면, 우리가 주변의 권세에 압도당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으면 주님께서 아시리아와 같은 적도 하룻밤 새에 녹아버리게 하심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성의 보호가 없는 심정은 선과 악 사이에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결국 퇴보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히즈키야의 겸손과 단순한 순종심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이 없는 유다는 아시리아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고 만다. 이해성에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악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즉,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에 뒤따르는 바빌론의 사절단에서 그려지고 있다.

바빌론이란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지배욕을 의미한다. 지배욕이라는 악은 평소에는 우리 심정 깊숙한 곳에서 웅크리고 있으며 겉보기에는 마치 우리의 동맹국처럼 보인다. 간단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척 칭찬해달 때가 있을 것이다. 칭찬을 처음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 또는 특별한 재능에 큰 관심도 없고 그로 인해 스스로가 잘났다고 우쭐대지도 않으나 수차례 반복되는 칭찬을 듣다보면 자신이 잘난 것처럼 우쭐대기도 한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 우리의 자연적인 자아가 은근히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은근히

갖게 되는 유쾌함으로 인해 우리의 속심을 드러내게 되는 때가 흔하다. 이는 본문 13절에서 히즈키야가 그 사절단을 환대하고 자기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금, 은, 향료, 향유, 병기, 기타 모든 귀중품을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다. 지옥은 우리의 마음이 허약해지는 때, 즉 병든 때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은 12절에서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는” 구절의 내용이다. 지옥 사절단은 문병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강탈해 갈 보물들을 염탐하려고 했다. 우리는 사절단의 의도나 출처를 의심하거나 조사해보지 않고 우리의 심정 안에 친구인 것 같은 사절단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두는 경우가 흔하다. 역대기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즈키야는 병이 치유된 뒤 건방진 생각이 들어 그 은덕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서술은 거룩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야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형태의 악으로 인해 시험에 복종된다는 것과 시험에 빠지고도 시험에 빠져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음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즉, 우리는 우리속의 동인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염두 해야 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스스로가 나름대로 겸손하며 이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 같이 선하게 살면 세상이 바르게 될 텐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자아 찬양 중의 일부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초기의 바빌론이 유다왕국의 동맹국처럼 행동하며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서 유다왕국과의 사이를 돈독히 했으나 그러는 동안 힘을 길러 결국 유다왕국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음을 우리 안의 지배욕과 연결 지어 명심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 2) 그 왕의 초기 통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누가 아시리아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었는가?
- 4) 누가 히즈키야왕 시대 때에 예언자였는가?
- 5) 히즈키야가 심히 아프자 이사야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6) 그래서 히즈키야는 무엇을 했는가?
- 7) 이사야는 주님이 주신 어떤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가?
- 8) 히즈키야의 병명은 무엇인가?
- 9)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무엇으로 낮게 해주었는가?
- 10) 히즈키야는 어떤 징조를 요구했는가?
- 11) 어떤 나라에서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냈는가?
- 12) 히즈키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 13) 그래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4)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15)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 1) 히즈키야
- 2) 아시리아의 포로가 됨    3) 주님의 천사    4) 이사야
- 5)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며...”    6) 기도했다
- 7) “내가 너의 수명을 십 오 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 8) 종기    9) 무화과로 만든 고약
- 10)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오    11) 바빌론    12)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 주었다    13) 어리석은 짓을 했다    14) 북쪽의 방어벽이 사라진 셈이다
- 15) 아시리아 -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생각들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오는 지배욕

## 21

### 시편에 관하여 (2)



## 머리말

시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표현 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주님에 의해 영감 된 노래이다.

### 성 서 본 문: 시편 19편

- 19편: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숨씨를 일러줍니다.
2.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3.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4.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 갑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고  
그 뜨거움을 벗어날 자 없사옵니다.
7.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 준다.
8.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9.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10.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욱 달다.
11.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겠거늘
12.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이까?  
모르고 짓는 죄 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13. 일부러 범죄 할까, 이 몸 막아 주시고  
그 손아귀에 잡힐까, 날 지켜 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14.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교리 요약

- \* 주님은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 \* 열왕기하와 시편 사이의 성경은 내적 의미가 없다.
- \*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되돌아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진리뿐이다.
- \* 여호와를 경외(두려워)함이란 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 우리는 심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행동도 깨끗이 해 두어야 한다.

## 상응 공부

주님의 영광 =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진리

태양 = 하느님의 사랑

꿀 = 선에서 나오게 되는 즐거움

별집 = 진리로부터의 즐거움

## 해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이집트의 노예 신세를 거쳐 거룩한 땅에 되돌아 와 하나의 국가로서 영예의 정점까지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함과 불신으로 인해 퇴조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처하게 되는 그들의 역사를 추적해 왔다.

본 반에서 다루지는 책은 글자상에서 히브리국가의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가장 미약하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율법과 예언서와 동등한 지위를 이 책에 주지 않고 직접적인 영감이 없다고 여겨 거룩한 저술 수준에 이 책을 분류해 놓았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시편서가 성전의 찬송가였을 뿐 성전에서 읽힌 책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것의 주된 용도가 예배의 음악과 결부되어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24:44).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시편을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에 적용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명명해 두셨다. 일부 시편들은 글자 표면에서도 주님의 생애에 관한 명확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 시편 22편에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뜻에서 모든 시편들은 주님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성을 입으시고 거쳐 가신 다양한 상태들에 관한 것을 다룬다. 이와 같은 가장 깊은 뜻은 신성한 영감이 가지는 마지막 증

거이다.

내적인 면에서 시편들은 주님과 관련된 인간의 심정 상태가 기술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대한 적절한 표현들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편이 노래로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편은 널리 알려져 사랑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에게 호소되는 특별한 것을 시편 속에서 자주 발견한다. 주기도문을 제외한다면 시편 23편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기억되는 구절일지도 모른다. 이는 인간 영혼의 가장 보편적 갈망이 보호와 위로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와 위로뿐만 아니라 그분의 안내와 판단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도 주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죄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시편들은 우리에게 사실 친숙하지 않으나, 우리는 억지로라도 시편들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찬양과 감사를 지적하여 노래하는 시편들에 더욱 친숙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며,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회상할 때 자아찬양을 즐기려드는 인간의 근본적인 악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편 19편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가져야 할 완전한 모형을 담고 있다. 스웨덴볼의 “예언서와 시편에 관한 내적 의미의 요약”에서 시편의 일반적 주석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죽은 뒤 발견되어 출판된 그의 원고중 일부로 긴 저술의 외견상의 윤곽에 불과하다. 작품의 미완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그 윤곽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편 19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4절: 신성한 진리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5-6절: 신성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천국과 교회의 첫 번째 것에서 마지막에 이르는 것까지 퍼져나간다.

7-11절: 신성한 진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을 완성시킨다.

12-13절: 어떤 자만심도 있을 수 없다.

14절: 순수한 것만이 있어야 하며 기꺼이 신성한 진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개요로부터 개개인의 삶에 있는 신성한 진리가 시편의 시작부

터 끝에 이르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주님의 작품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러한 인식에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9편과 111편은 아주 흡사하므로 비교하여 생각하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두 시편에 흐르는 일반적인 생각은 같지만 강조하는 바는 서로 다를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시편 19편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라고 하며 하느님(God, Elohim)으로 시작한다. 이는 앞서 배운 대로 신성한 지혜를 주제로 한다. 시편 111편은 주님(야훼, Jehovah)이란 이름이 사용된다. 그리고 일, 정의, 인자 또는 음식과 같은 사랑에 관한 표현들로 가득하다. 시편 111편은 “내 마음 다 쏟아”, 즉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우친 사람이다”, 즉 진리로 완성되고 있다. 시편 19편과 111편에서는 선과 진리가 실지로 분리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 마음에 선한 바램이 가득하더라도 올바르게 표현하며 행동하게 해줄 진리가 없으면 선한 바램은 무용지물이 되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 즉 우리 마음에 선한 바램이 없으면 진리는 거짓으로 쉽게 변해 버림을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미련하면 쓸모가 없고 머리가 영리하더라도 선한 의도가 없으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전 시편 중 73개가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다른 시편들도 다윗을 통해 주어졌다고 믿어진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시편서를 언급할 때 늘 다윗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편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이가 기록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시편 90편의 경우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명칭을 서두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시편의 제호에도 영감이 있는 것으로 스웨덴북은 고려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시편의 제목들에 관해서는 그의 저서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시편서는 일반적으로 다섯 권으로 분류한다. 즉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그리고 107-150편으로 분류한다. 각 권은 송영(아멘)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제 1권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새 성막으로 궤를 모셔 들인 후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감독 하에 배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 2권은 히즈키야왕 하에 수집되어 제 1권에 첨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 3권은 요시아왕 때에 그리고 제 4권과 5권은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후 첨가되었을 것으로 본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했는가?
- 2) 시편이란 무엇인가?
- 3) 주님은 시편에 관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4) 많은 시편은 누구에 의해 쓰였는가?
- 5)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6)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7) 시편 19편 1절은 무엇인가?
- 8) 그 첫 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9) 시편은 주님의 법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가?
- 10) 주님을 두려워 함 혹은 경외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11) 19편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2)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시편서 2) 노래 3) 시편은 주님께 관해 말했다 4) 다윗 5) 찬송
- 6) 주님께 관해 우리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 7)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 8) 우리는 창조의 완전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9)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 10) 주님을 언짢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11) 의를 행함 속에 행복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간구해야 한다
- 12) 우리의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 22

### 대 예언서에 관하여 (2)

#### 머리말

본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대 예언자, 성경에서 이 책들의 위치, 이 책들의 역사적 시기와 예언자들의 직분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예언의 의미와 영감에 따라 예언자가 말했음도 기억하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예레미야 1장

1장: 1. 예레미야 일대기.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삼 년 되던 때의 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은 그 후로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유다 왕으로 있는 동안, 또 요시야의

또다른 아들 시드키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십 일 년 되던 해의 오월, 그의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4.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다. 5.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6.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7.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8.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감이 없다.” 9.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둔다. 10.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11.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감복송아 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2. 야훼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13. 야훼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부글부글 끓는 솥물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14. 야훼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5. 이제 나는 북녘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오리라.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그 왕들은 몰려 와서 예루살렘성과 유다의 모든 성들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항복을 받으리라. 16. 나는 나의 백성이 저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저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죄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17.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의 백성에게 일러 주리라. 내가 시키는 말을 모두 전하여라.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리라. 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돛담처럼 세우리니, 19. 아무리 덤벼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감이 없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인간을 인도해 줄 충분한 진리도 주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 \* 예언자란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모든 말씀은 예언이다.
- \* 우리가 자아의 힘과 지식 대신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 \* 열매란 진리에 순종하는데 근원한 선을 표현한다.

## 상응 공부

가지 = 힘

감복송아(살구)나무 = 주님으로부터의 진리

북쪽 =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의 상태

## 해설

누가복음 1장 68-79절에 수록된 찬미의 노래에는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라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 인간이 그분에 의해 인도되기를 선택하면 그들을 인도해 줄 진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족들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롯기를 제외한 열왕기하까지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앞서 우리는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전국에 걸쳐 인정받았음과 대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배웠다. 이들 외에도 구약성서의 역사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 사무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의 지시와 교훈 하에 예언자들이 모여 살았다 (사무엘상 19:18-24 참조). 또한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왕후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고 오바די야는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겨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언자들은 당시에 존재했던 예언자 집단에 속한 이들로서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예언자가 되었고, 그들의 예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았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악한 자들아.’ (7:22-23)”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것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허황된 점이나 치고, 제 욕망에서 솟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들이다 (14절)”라고 경고한다. 예레미야서의 가르침과 마태복음서의 가르침은 결국 같은 것이다. 즉, 스스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바랬기 때문이다.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를 선택하시되 예언자의 집단에서 언제나 선택하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와 같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이 드물었던 사무엘의 시대 이전의 약 1-2세기 동안은 제외하고는 주님의 예언자들이 상존하여 그들의 더러운 행실을 견책하고 그들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일들과 그들이 잘못을 멈추고 주님을 섬기면 축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왔다.

주님의 진정한 예언자들은 당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가져왔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시므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 해 두실 수 있었다. 그분의 섭리는 각 개인의 삶과 역사 위에 존재하며 각 개인이 스스로 바라는 인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보증해 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언자들의 모든 말이 보편적인 취지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전 시대를 망라하며 말해왔던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선택하여 받아쓰게 하였고 그들의 예언이 말씀의 일부가 되도록 섭리하셨다. 넓은 의미에서 모세의 책도 전부가 예언이다.

후기 예언서들은 총 16권으로 구약성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연속적인 역사는 아니나 기록된 시대나 환경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책의 어떤

부분에서는 당대 사람들을 위한 명확한 의미를 글자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책의 대부분은 어두운 배경을 말하고 있다. 즉, 예언자들을 통해 기술된 인간의 내적 상태들에 관련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회의 시대에 이 예언서의 해석을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상응에 관한 지식이 없어 일관된 해석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의미가 성경글자에서 빛을 발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언서의 구절들이 자주 설교 본문에 이용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예언서의 연구는 주로 책의 저자, 기록된 시대, 기록된 장소 혹은 책의 줄거리로 보아 저자가 한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치중하여 예언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하된 감이 없지 않다. 원문에 대한 이런 저런 연구는 사실 흥미롭다. 그러나 예언서의 진정한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문 연구가 진행될 때만이 진정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자들의 필수 사항은 신성한 영감이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외적 혹은 내적으로 환상을 보여 주시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그 예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본문 1장을 살펴보자. 2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 요시야 시대부터 왕국의 말기까지 내렸음을 알려 준다. 본문의 나머지는 예레미야를 내세워 말해지는 진리를 청종하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주님과 이러한 임무를 맡기를 주저하는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큰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선을 행할 기회를 잃게 되는 때가 흔하다. 우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말할 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두 가지 환상은 “아몬드 나뭇가지”와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고 하고 있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두 환상에 관한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주셨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외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예레미야서에서 50번 이상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네 개의 대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이다. 이사야는

히즈키야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예언의 일부가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던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광경과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함을 눈뜨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와 애가서는 그 후에 기록된 책이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간 젊은이들에 속해 있었고 바빌론에서 포로들에게 예언했다.

### 질문 정리

- 1) 예언자들은 메시지를 어디서 구했는가?
- 2)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
- 3) 4개의 대 예언서는 무엇인가?
- 4)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가?
- 5) 예레미야는 어느 왕의 시대에 예언하기 시작했는가?
- 6)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 7)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 8) 주님은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예레미야가 가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10) 주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1) 그의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 12)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3) 예레미야는 어떤 비극을 목격했는가?
- 14) 애가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5)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서 예언의 직무를 수행했는가?
- 16) 그는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더 예언했는가?
- 17) 그는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18)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19) 그들은 어떻게 바빌론으로 가게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 등을 통해서 2)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경고하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3) 이사야, 예레미야, 예제키엘, 다니엘 4) 히즈키야왕의 시대 5) 요시아왕의 시대  
6)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7)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 8) “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9) 감복송아 가지 10)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켜보리라” 11)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려 하는 부글부글 끓는 술물 12)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13) 바빌론의 침공 14)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함  
15) 유다왕국 16) 이집트 17) 그의 의사와는 달리 반역적인 백성들에 의해 끌려감  
18) 바빌론 19) 포로로 끌려감

## 23

### 에제키엘의 환상

#### 머리말

대 예언서의 배경을 재고하며 공부를 시작한다. 4권의 대 예언서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언자의 직무와 네 권의 책을 대(Major) 예언서라고 이름 한 이유도 알아본다.

#### 성 서 본 문: 에제키엘 1장

1장: 1. 삼십년 되던 사월 오일이었다. 그 때 나는 그발강 가에서 포로들 속에 끼어

있다가 하늘이 열리며 나타나는 신비스런 광경의 발현을 보게 되었다. 2. 그 달 오일은 바로 여호야긴왕이 사로잡혀 온 지 오년째 되는 날이었다. 3. 그 날 보자의 아들 예제키엘 사제가 바빌론의 그밭강 가에서 야훼의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던 것이다. 4. 그 순간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구름이 막 밀려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어 사방이 환해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놋쇠 같은 것이 빛났다. 5. 또 그 한가운데는 짐승 모양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이 넷 있었는데 6.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이었다. 7.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놋쇠처럼 윤이 났다. 8. 네 짐승 옆구리에 달린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다. 넷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따로 있었다. 9. 날개를 서로서로 맞대고 가는데 돌지 않고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0. 그 얼굴 생김새로 말하면, 넷 다 사람 얼굴인데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이 있었고 왼쪽에는 소 얼굴이 있었다. 또 넷 다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다. 11. 날개를 공중으로 펴서 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12. 돌지 않고 앞으로 날아가는데, 바람 부는 쪽을 향해 곧장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다. 13. 그 동물들 한가운데 활활 타는 숯불 같은 모양이 보였는데 그것이 마치 횃불처럼 그 동물들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그 불은 번쩍번쩍 빛났고, 그 불에서 번개가 튀어 나왔다. 14. 그 불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하였다. 15. 그 짐승들을 바라보자니까, 그 네 짐승 옆 땅바닥에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게 보였다. 16. 그 바퀴들은 넷 다 같은 모양으로 감람석처럼 빛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듯 되어 있었는데 17. 이렇게 사방 어디로 가든지 떠날 때 돌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18. 그 네 바퀴마다 불쑥 솟은 데가 있고 그 둘레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 있었다. 19. 그 짐승들이 움직이면 옆에 있던 바퀴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떠올랐다. 20. 그 짐승들은 바람 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1. 그 바퀴에는 짐승의 기운이 올라 있어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짐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짐승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22. 그 짐승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같은 덮개가 수정같이 환히 빛나며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23. 그 창공 밑에서 짐승들은 날개가 서로 맞닿게 두 날개를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 우고 있었다. 24. 짐승들이 나느라고 날개를 치면 그 날개 치는 소리가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소리처럼 요란하였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25. 머리 위에 있는 덮개 위에서 소리가 나면 날개를 접었다. 26. 머리 위 덮개 위에는 청옥 같은 것으로 된 옥좌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다. 높이 옥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27. 그 모습은 허리 위는 놋쇠 같아 안팎이 불처럼 환했고, 허리 아래는 사방으로 뻗는 불빛처럼 보였다. 28. 사방으로 뻗는 그 불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마치 야훼의 영광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리자, 말소리가 들려 왔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진리를 사용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진리를 감추신다.
- \* 예언자의 환상은 당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였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 \*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죄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 기본 상응 공부

거룩들 = 하느님의 보호하시는 섭리  
 날개 = 세상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드높여 주는 진리  
 손 = 성취하는 힘

### 해설

네 개의 대 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과 다니엘서는 유다왕국의 몰락 전 약 일 세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포로생활 전까지의 약 이백 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던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히즈키야왕의 개혁정치와 후대 우찌야왕의 선한 정치 때문에 왕국의 파멸이 지연되었으나 결국 왕국의 운이 다함을 살펴보았다. 예레미야서는 왕국과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으로 이뤄져 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비참함을 보면서 살았다.

에제키엘서와 다니엘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왕국에 불행히 닥치게 되자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그들에 대한 경고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자신의 악에 관해 말해질 때 경청할 준비가 된 자들도 있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았다. 반면,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존경을 받았다. 그 이유는 두 예언자의 예언이 백성들에게 믿을 만하다고 여겨졌고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에제키엘은 여호야킨왕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왕이 첫 번째로 끌고 간 포로들 중 한사람이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유다왕국은 그 명맥을 존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 24장까지 장차 다가 올 파괴에 초점을 둔 것이며, 이 후 본서 1장 1-3절에 서와 같이 주님께 신실해 있는 자들의 귀환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에제키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의 의미를 당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정도로만 국한시킴을 흔히 본다. 그러나 예언서의 진정한 취지는 전 시대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지이다. 성경을 진지한 태도로 대해 온 사람들은 예언들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언들의 기이함을 글자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글자 내에서 주는 조그만 이해에서도 권능을 느꼈기 때문이다. 상응에 관한 지식이 없는 성서의 해석은 변덕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기 쉽다. 특히 성경상의 비유적 표현이나 상징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가 어려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응의 법칙에 따라 예언들을 읽어 나갈 때 한없는 이해와 보상을 받게 된다. 상응의 법칙에 따른 성경 공부는 성경의 내적 의미들을 파악하게 해 주고, 성경이 인류의 심정과 지성을 향해 말하고 있어서 우리 속의 악을 드러나게 해 주며 그것을 질책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성경이 개인과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 예로 여기서는 본문으로 에제키엘의



환상이 다뤄지고 있다. 그는 기이한 그림들을 보았으나 환상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영에 의해 이끌어 졌다. 생물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0장에서 에제키엘에게 다시 생물이 보여 질 때 그는 그것을 “거룩들”이라고 불렀다. 오랜 뒤에 사도 요한에게 보인 “생물”도 이와 같은 상징적인 모양 이었다 (그리스어 짐승은 단순히 생물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거룩이란 하느님의 섭리 중에서 어떤 특별한 직능을 그리는데 그 직능이란 가장 높고 천적인 선이 더럽혀지는 데서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창세기 4장 24절의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룩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와 출애굽기 24장 18절과 22절의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룩들이 양쪽에 자리잡게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리라”하는 구절을 떠올려보면 본문의 생물(짐승)로 언급되는 거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에제키엘의 환상이 인간의 생활에 있는 끝없는 신성한 섭리를 표현한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환상의 세부사항들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신성한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그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신성한 섭리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듯 우리에게 와서 처음에는 불가사의하게 구름이 밀려 온 듯 하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 속에 신성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 알도록(계시) 해 주신다. 즉, 4절의 “그 한가운데에는 불이 있고 그 속에서 뚝뚝 같은 것이 빗났다”는 구절의 의미이다. 우리는 신성한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국면(네 얼굴)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생각들 위로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영적 진리(날개)들을 동반한다. 그래서 신성한 섭리는 “짐승 모양이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갖춘 것 넷이 있었는데 각각 얼굴이 넷이요 날개도 넷 이었다”라고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다리는 곧고 소 발굽 같았으며 닭아 놓은 뚝뚝처럼”이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다. “네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성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 영적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본문 14절의 “그분은 번개처럼 이리 번쩍 저리 번쩍”라는 구절과 마태복음 24장 27절의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를 생각해보면 이해될 것이다. 바퀴란 작용이나 반작용을 원활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총명을 상징한다.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 박혀 있다함은 주님이 과거와 현재의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니고 갈 우리의 선택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다. 날개에 관한 것은 환상의 끝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성경의 두 부분에서 주님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고 기술된다(에제키엘 42:2, 계시록 1:15). 이는 신성한 진리가 우리 지성에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신성한 진리가 처음 들려 올 때 에제키엘처럼 고함소리나 큰 물소리 또는 전능하신 분의 음성등과 같이 혼란된 소리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차차 깨끗하고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된다. 26절에서 에제키엘이 거룩들 위의 보좌와 그 위의 사람 같은 모습이 소리의 근원임을 알아 차렸듯이 우리도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때에 뵈 그분의 모습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 사방으로 뻗은 무지개 불빛과 같으며, 이는 야훼의 영광처럼 보인다. 이 후 주님은 에제키엘에게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를 주신다.

환상을 본 에제키엘과 본문을 읽어 온 독실한 신앙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본문의 확실한 근원 혹은 재촉하는 권능을 인식하기 위해서 환상의 세부 사항의 의미를 알고자 했으나 이해하지 못했다. 에제키엘은 인간의 역사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았으므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만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환상이 필요치 않는다. 그 이유는 말씀이 완성되어 공부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고 말씀의 뜻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합리적인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운행되는 신성한 섭리의 역사하심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향과 안내를 꾸준히 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4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2)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3)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했는가?
- 4) 에제키엘은 예언의 직분 외에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5)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 6) 주님은 그가 예언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 7) 그가 본 생물은 몇 이었는가?
- 8) 생물들은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가?
- 9) 생물들의 얼굴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 10) 생물들의 다리(발)는 어떠하였는가?
- 11) 생물들은 날개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2) 생물은 자기 옆 땅바닥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 13) 바퀴들은 어떻게 이동했는가?
- 14) 날개 소리는 무엇 같았는가?
- 15) 에제키엘은 생물 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 16) 옥좌 위에 누가 계셨는가?
- 17) 에제키엘은 후에 이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18) 거룩들에 관한 구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19) 거룩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질문의 답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유다 3) 바빌론 4) 사제 5) 그발 강가에서 6) 환상 7) 넷 8)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0) 다리는 곧고 발굽은 소 발굽 같았으며 닦아 놓은 돛쇠처럼 윤이 났다 11) 사람의 손 12) 바퀴 13) 생물과 더불어 움직였다 14) 큰 물소리 같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으며 싸움터에서 나는 고함소리처럼 요란하였다 15) 옥좌 16) 주님 17) 거룩들 18) 에덴의 동산, 증거궤 19) 거룩한 것이 모독되는 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신성한 섭리

## 소 예언서에 관하여

### 머리말

본과에서는 예언서를 탐사할 것이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과 성경에서 예언서들의 위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흐름도 언급한다.

### 성 서 본 문: 요엘 4장 9-20절 (개역 성경 3:9-21)

4장: 9. “너희는 못 민족을 불러 전쟁을 선포하여라. 장사들을 불러 모으고 군인들을 총동원하여 쳐 올라오너라. 10.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자들까지 ‘나는 용사다’라고 외쳐라. 11. 그리고 빨리 오너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그리로 모여라.” 야훼여, 당신의 용사들을 보내 주소서. 12. “못 민족은 떨쳐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 모든 민족을 심판하리라. 낫을 대어라. 13.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술틀이 찼다. 독이 차 넘친다. 못 민족의 악이 이토록 극에 달하였다.” 14.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 왔다. 15.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었다. 16. 야훼께서 시돈에서 고향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시니,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구나.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의 산채가 되시리라. 17.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야훼 너희 하느님으로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는 줄을. 예루살렘은 성소가 되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지 못하리라. 18.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즙이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흥건하리라.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흐르고 야훼의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 아카시아 골짜기를 적시리라. 19. 그러나 이집트는 썩발이 되고 에돔은 허허벌판이 되리라. 억울한 유다 백성의 무고한 피를 쏟고 어찌 벌을 면할 수가 있으랴? 20. 내가 그 피 값을 보상하리니 아무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심판한다.
- \*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 또한 주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고자 하면 성경으로부터의 계발을 얻게 된다.
- \* 말씀에서 배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 \* 이기적인 것들은 들추어내서 자주 점검하지 않으면 더욱 더 이기적인 쪽으로 쏠려 버린다.

## 상응 공부

누리 = 선을 파괴하는 거짓

황충 = 감각적인 것에서 나온 거짓

결정의 골짜기 = 우리의 일상생활

## 해설

본 반에서는 소 예언서를 공부한다. 이 책들에 “소”라고 붙여진 이유는 각 책들의 부피가 작아서 열 두 권의 책이 모두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 예언서는 각 책들이 부피가 커서 각권에 하나의 두루마리가 필요했다. 일부 소 예언서는 한 개의 환상이나 메시지만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 책들은 모두 계시임을 주장한다. 그 예로 첫 절에서의 “...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또는 “...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책들은 모두 유대인의 정경(canon)이나 새교회의 경우 영감 된 말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의 일부는 역사적인 위치가 서술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학자들은 책의 연대 혹은 장소와 같은 역사적 규명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으나 그 견해 차이는

아직도 구구하다. 성경 원문 연구는 흥미롭고 유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학자들이 잘못 행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학자들이 역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데 전념하고 예언자가 목격한 것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여 그 안에 암시된 영감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엘이 기근이나 해충의 재앙을 말하여 학자들이 역사상에서 이 같은 재앙이 언제 있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전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요엘이 묘사하는 상황은 세상 혹은 개인의 삶에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적 상황에 대한 그림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엘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당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했는지에 대해서 골몰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우리는 모든 예언들이 똑같은 기능을 가짐을 배웠다. 즉, 예언들은 인간의 심정에 든 악과 지성에 뿌리박힌 거짓들을 지적해 보여주고, 그러한 악과 거짓들을 고집하여 간직할 경우 받게 될 결과들을 경고한다. 또한 주님의 끊임없는 현존과 보호를 선한 이들에게 보증해 주고,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소유하게 될 영원한 행복을 전달한다. 누가복음 1장 70절의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통해 세상의 시작부터 예언자들이 있어 왔으나 그들의 이름이나 메시지의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 메시지는 당대의 사람 혹은 국가들에 특별히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신성한 섭리 하에 말씀으로 보존되어 온 예언들은 전시대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국한시켜 그 말씀들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말씀의 모든 구절이 삶에 응용되거나 예언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재림에서 밝혀진 상응의 법칙뿐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터인데 그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라며 언젠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완성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우리가 상응의 법칙을 모두 안다고 하더라도 소 예언서의 매 구절을 읽으면서 즉시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구절의 내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거듭나는 삶에 지속적으로 응용하여 영적 삶의 진보를 이룬 후 거듭난 지점에 도달될 때까지 성서를 읽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령 성경을 읽을 때 매 구절의 의미를 즉시 혹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을 공부해 가면 성경의 큰 테두리인 일반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가 배려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성경의 큰 테두리에 속하는 일반적인 의미들을 먼저 알고 이해하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담긴 참된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붉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규율할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주님께서는 각자의 능력 혹은 필요성에 따라 그의 영혼에 직접 깨달음을 주신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증을 요엘서에서 찾아보자. 우리가 날마다 산출해내는 이기적인 욕구나 잘못된 생각들은 마치 열매 많은 토지에 엄습해 오는 해충의 무리와 같다고 한다. 해충들은 우리 안에서 발달되어야 할 선한 것들을 먹어 치우며, 우리의 지성이 받아야 할 진리에 마음의 문을 닫게 하여 결국 영적 흥년을 야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타락된 삶이나 범죄로 빠진 이들을 보며 그들의 악독함을 의아해 한다. 요엘서 1장 8-13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상황이나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들은 단번에 악한 상태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날마다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 2장에서 요엘은 주께서 거둥하실 날이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날은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때, 즉 영원히 간직하게 될 인간형을 스스로 완성한 때를 뜻한다. 그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일 것이다. 그리고 선한 자들은 그 날에 자신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과 좀 더 노력했다라면 더 나은 인간형을 꾸렸을 텐데 하며 아쉬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2장 18-27절에서와 같이 아름다운 약속이 대기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즉, 주님이 그들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신다는 가르침이다.

제 4장(구번역 성경 3장)에는 악함과 선함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주며 요약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음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택을 만들어 감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늘 있게 되는 하찮은 시험일지라도 그것을 확대시키는가 아니면 저항하여 그것을 꺾어 버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제 14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발견하는 모든 경우들을 우리를 위해서 함축하여 묘사되고 있다.

“타작 수레 골짜기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야훼께서 거동하실 날이 다가왔다(공동번역 성경).”와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개역 성경).”라는 구절을 각자 익히고 되새겨 보기 바란다.

### 질문 정리

- 1)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2) 소 예언서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3) 왜 소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 4) 소 예언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 5) 우리는 그 책들이 영감된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 6) 소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 7) 소 예언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
- 8) 요엘서는 소 예언서의 몇 번째 책인가?
- 9) 요엘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10) 요엘은 우리의 심정 속의 악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 11) 그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불렀는가?
- 12) “결정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타작 수레 골짜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 13) 주님의 날에 악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4) 주님의 날에 선한 자들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 15)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질문의 답

- 1)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2) 열 두 권
- 3) 각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    4) 구약 성서의 맨 끝부분
- 5) 각 책 모두 주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    6) 호세아    7) 말라기
- 8) 두 번째    9) 3장(공동번역 4장)    10) 해충
- 11) 주님의 날    12) 우리가 죽을 때    13) 우리의 일상생활    14) 지옥
- 15) 천국    16) 우리가 스스로 매일 선택하여 영원히 지니게 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25

### 요나와 큰 물고기

#### 머리말

먼저 소 예언서들의 배경을 살핀 후 요나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본다.

#### 성서본문: 요나서 1, 2장

1장: 1. 야훼의 말씀이 아미때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3.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다르싯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거기서 다르싯으로 가는 배를 만나 배 값을 내고 남들과 함께 배에 탔다.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샘이었다. 4. 그런데 야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5.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저희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 가 누워 잠들어 있었다. 6.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 주실지 아느냐?” 7. 한편 사람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누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 보니 요나가 나왔다. 8.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9. 그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느님 야훼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10. 그리고 자기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곡절을 알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며 몹시 두려워했다. 11. 바다는 거칠어져만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너를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었다. 12.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인 줄 압니다.” 13. 바다는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허사였다. 14.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우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다 뜻이 있으시어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15.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16.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들어 야훼께 제물을 잡아 바친 후에 다시 서원제물을 드리기로 하였다.

2장: 1.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 2.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 야훼께 기도를 올리니, 야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뱃속에서 내게 하셨다. 3. 요나가 입을 열었다.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느님께서 들어 주셨습니다. 4. 하느님께서 이

몸을 바다 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밀려 오다 부서지는  
 하느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5. 하느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6.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7. 저 땅 밑 뗏부리로 빠져 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 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  
 내셨습니다. 8.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9.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10. 저만은 이 고마움을 아뢰며, 서원한 제물을  
 드리렵니다. 저를 구해 주실 이 야훼밖에 없습니다.”

### 교리 요점

- \*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배움을 거절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것을 허용하신다.
- \* 교리란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 \* 상대방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상응 공부

배 = 일반적인 교리  
 바다 = 모든 기억된 지식들  
 물고기 =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애착

### 해설

스웨덴북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요나의 이야기, 특히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이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된다. 요나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원인이 되는 번역상의 오류를

확실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큰 물고기”를 많은 영문 번역자들이 “고래”로 번역했다. 하지만 신약 성서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정확히 표현하여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찮은 번역상의 오류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이해될 때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오류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고래의 뱃속에서 사람이 사흘간이나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결국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 이유는 요나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단순한 사실 또는 과학적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의미를 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하고 의아해 하기보다 주님께서 왜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나의 사건을 주님께서 실제의 사실로서 언급하시고, 그 사건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신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스웨덴본은 요나의 이야기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계시록 설명 제 538-11항에서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기도가 지옥과 주님의 전투를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3일이라는 기간은 무덤에 놓이신 3일과 같은 의미이며, 숫자 3이란 전투상태의 완료와 주님께서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승리하심을 의미한다고 한다.

스웨덴본은 시편과 예언서의 요약에서 요나서는 요나 시대의 유대인들의 내적 상태, 특히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라고 설명한다. 즉,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주위의 다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으나 실제로 그들이 그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마음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언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의 실망하는 태도로 잘 그려지고 있다.

요나의 사건은 또한 우리 실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할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을 때 있게 되는 곤경이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예언을

전하라는 대상이 이방인들의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찾아보면, 우리가 싫어 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그를 도울 방법이 우리에게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요나는 다르싯으로 가는 배를 타고는 곧장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버렸다. 배란 일반적인 교리 또는 마음의 태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곧장 배 밑창에 내려가 잠들어 버린 요나는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만으로 판단하며, 그 사람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름이 있게 되면 귀를 막아서라도 모른척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지러워졌음을 느끼고 인정하여 그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선원들이 요나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요나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을 선함을 이루는 것을 위해 의연히 희생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면 주님께서 곤경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큰 물고기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착, 즉 삶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내 안의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하게 하는 걸까, 내 속에는 얼마나 크고 깊은 이기심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일까’라고 되물어야 한다.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이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기도로 표현되고 있다. 요나가 기도를 3일 동안 밤낮으로 했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요나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주님에 대한 감사일뿐 곤경에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이다. 요나는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면서 기도를 끝맺고 있다.

## 질문 정리

- 1) 우리가 공부하는 소 예언서는 어느 책인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 3) 어느 성경책의 구절에서 요나의 신변이 확인되는가?
- 4) 주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5)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 6) 왜 요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는가?
- 7) 그는 어떻게 순종을 피하려고 했는가?
- 8) 그가 탄 배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선원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기로 했는가?
- 10)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어떠했는가?
- 12)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는가?
- 13) 요나의 기도 종류는 무엇인가?
- 14) 그는 기도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 15)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내뱉어지자 무엇을 했는가?
- 16)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 17) 주님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그린다고 말씀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요나(다섯 번째 책) 2)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3) 열왕기하 14:25
- 4)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 5) 아시리아의 수도 6) 너무 거만해서
- 7)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탐으로써 8) 폭풍을 만났다 9) 제비를 뽑아서
- 10)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11) 잠잠해졌다 12) 3일 13) 감사기도
- 14) 하느님께 순종하기로 15) 니느웨로 갔다
- 16)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지 말 것과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 17)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 26

### 주님의 세례

#### 머리말

성경에 네 복음서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네 복음서는 네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장

1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네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3.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대로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5. 그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 꿀을 먹으며 살았다. 7.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12.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는 사십 일 동안 그 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16.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17.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샹꾼들을 배에 남겨 둔 채 예수를 따라 나셨다. 21.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 가 가르치는데 22.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23. 그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24.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25.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 갔다. 27.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을 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8. 예수 소문은 삼시간에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29. 얼마 뒤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 가셨다. 30. 때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 왔으며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37.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이렇게 갈릴래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 40.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1.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42. 그는 곧 나병 증세가 사라지면서 깨끗이 나왔다. 43. 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44.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45.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

### 교리 요약

\*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거룩한 땅에 살았기 때문이다.

- \* 세례자 요한은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시켰고 신, 구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 \*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앞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그것들을 죄처럼 멀리해야 한다.
- \* 진실로 선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상응 공부

세례 = 진리에 의거하여 삶을 깨끗이 함  
 요르단 = 입문적인 진리  
 비둘기 = 믿음의 거룩함

### 해설

많은 유다왕국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중 주님께 신실한 이들에게 귀환이 허용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에즈라거나 느헤미야서는 비록 내적 의미는 없지만 포로들의 귀환의 역사를 알게 해준다. 포로가 된지 약 칠십 년 후 주님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귀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다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고레스는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은 귀환하는 동포들에게 재물이나 다른 것들을 주어서 그들의 귀환을 후원하도록 했고, 그 역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강탈했던 성전의 각종 제기들을 돌려주었다. 이리하여 약 오만 여 명이 당시에 귀환했고 나중에 추가로 천여 명 이상이 에즈라와 함께 귀환했다. 그 결과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의 모든 형태들도 재정립되었다. 하깨와 즈가리야 그리고 말라기는 이 재건의 시대에 속했던 예언자들이다. 그들의 예언은 성전 재건을 재촉하면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했던 악에 대해 일깨워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라기 이후 사 백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귀환한 백성들은 공개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과 지상의 연결을 보존하는 각종 예배 의식들을 준수하기 위해 율법과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었으나 그들의 역사는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도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의 역사는 말씀의 일부가 되지못했던 것이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야 했던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로 오셔야 했고 말씀에서 사용된 지명들과 인명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해서 갖게 되는 상응들 때문이라고 한다.

본장의 본문은 마가복음이다. 네 복음서들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주님의 생애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본장에서 주목할 사항은 주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에 관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 일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가는 주님이 삼십 세 되신 때, 즉 그분이 나사렛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사실 성탄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실제로 알았던 사람은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서의 시작 부분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의 많은 경이로운 역사 이야기들, 즉 여호와께서 수행하셨던 기적들과 그들에게 보내셨던 많은 예언자들에 대해 들으면서 양육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연히 배우면서 구세주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예언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 요한은 옛 예언자들의 본보기인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모습으로 나타나 옛 예언자들처럼 매섭게 꾸짖는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질책했다. 그들은 요한이 예언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외쳤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의 악을 보고 알게 된 백성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고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실 물세례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다. 레위기를 보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이 죄를 정하게 하는 의식임을 알 수 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그들이 아주 오래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강림에 관한 특사라고 했다. 그러던 중 요한이 세례 주고 있던 요르단 강에 나사렛 출신의 누군가가 나타났고 그가 세례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이적이 일어났다.

주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 완성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말씀의 내적인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심을 뜻한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스스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형체를 입는다는 것 외의 다른 의미는 없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9장6절)”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진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인정했던 이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하여 말라기의 예언처럼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지지 않았다면 주님의 오심은 저주가 되어 인류를 강타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주님이 심정으로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거짓과 위선이 되어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면 결국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자들과 그분의 사랑에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는 이들이 살도록 허용된 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지옥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33절에서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신랄히 비판하시며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신 것이다.

마가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다. 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가의 이야기는 세례와 시험을 간략히 언급한 후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첫 네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가는 사도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저명했음을 알 수 있다(12:12). 따라서 마가도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가 기술한 성경 내용 중 일부는 목격된 것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후에 그는 베드로의 가까운 동반자로 등장한다. 이 부분은 그가 말씀의 기록자로서 주님께 선택된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그는 주님의 가장 신실하고 열렬한 사도인 베드로에게서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질문 정리

- 1) 구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 2) 신약성서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특징 지워 구분되는가?
- 3) 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귀환하도록 허용되었는가?
- 4)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귀환 후 예언했는가?
- 5) 예언 중 마지막 예언의 책은 무엇인가?
- 6) 말라기의 예언 후 주님이 탄생하실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는가?
- 7)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왜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 8) 복음서는 몇 권인가?
- 9) 주님은 왜 그분의 생애에 관한 사건을 몇 권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는가?
- 10) 마르코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자.
- 11) 마르코는 주님의 생애 중 어느 시절부터 기록했는가?
- 12)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는가?
- 1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14)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 15) 그의 음식은 무엇이었는가?
- 16)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17) 세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누가 나자렛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왔는가?
- 19)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마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 20)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이 제자라고 부른 첫 네 사람은 누구인가?

###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역사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3) 가나안에 유대주의의 재건설
- 4) 하깨, 즈가리야, 말라기 5) 말라기 6) 약 사 백년 7) 예언이 없었기 때문
- 8) 네 권 9) 상호 보충해 주기 때문 10)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음, 베드로와 함께 여행했음 11) 주님의 세례 12) 말라기의 예언
- 13) 광야 14)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15) 메뚜기와 들꿀 16) 회개하라
- 17) 주님의 진리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냄 18) 예수 19)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옴
- 20)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21) 시므온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27

### 새 포도주

#### 머리말

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상기해 본다. 기적들에 관한 것과 주님의 공생애는 설교와 가르치심 그리고 병 고치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재 언급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한 그분의 능력의 표시임을 설명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2장

2장: 1.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2. 많은 사람이 모여 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3. 그 때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4.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려 보냈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6.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7.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네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10.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11.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12.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서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13. 군중도 모두 따라 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15. 어느 날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많았는데 그 중 여럿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 바리사이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이며 세리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이요?”하고 물었다.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하고 대답하셨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다. 19.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칫집에 온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없다. 20.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때에 가서는 그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21.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켜져 더 찢어지게 된다. 22.  
 또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그 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24.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에비아달 대사제 때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적들을 행하셨다.
- \* 주님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적 해석에 대해서만 파격을 보이셨다.
- \* 인간이 기적으로 고쳐지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Faith had to be present if a man was to be healed by a miracle)
- \* 안식일에 선을 행함은 옳은 일이다.

### 상응 공부

중풍병 = 의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무기력함  
 단식 = 시험 속의 슬픔  
 병(가죽부대) = 진리를 담게 되는 바깥쪽 형태



## 해설

앞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선교와 주님의 세례를 공부했다. 그리고 주님이 광야에서 사십 일간 시험 받으신 후 첫 네 제자를 부르신 것은 본문에서 주님이 베푸신 기적 중의 하나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마가복음서는 가장 짧은 복음서로서, 타 복음서에 있는 가르침이나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마태나 누가와 같이 거의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것은 아마도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없애 버리고 쓸모 있는 인격을 회복시키심을 의미한다.

본문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치유하심 속에 주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그 사람의 죄였다. 중풍 또는 중풍 병은 올바른 길을 걷는데 무능력함을 의미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질병에눌려 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이끌겠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요(bed)란 교리를 상징한다. 교리란 종교적인 진리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스스로의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만들어낸 생각의 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체계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늘 그럴듯한 변명들을 준비해 준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의 본성이 이런 것을 어찌란 말인가?” 또는 “이런 상황에서 나같이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등의 변명들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가 요에 눕힌 채 다른 사람들에 의해 떠메어져 움직이는 모습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먼저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자신의 탓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용서를 절실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건너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은 모든 이들이 함께 목격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믿기를 거부했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거부가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시게 된 진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기적으로 인해 갖는 신앙은 결국 가시적이며 세상적이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듭남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인해 그분을 거부하지 못하여 믿는다면 이는 강요된 신앙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얻는 확실한 진리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반대되는 강요된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복음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 즉, 이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깎아 내리려는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고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의 첫 비판은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레위(그는 마태오임, 마태복음 9:9 참조)를 세리의 직업에서 떠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태오는 세리였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는 바, 그것 때문에 바리사이파인들에게 경멸받아 죄인이라고 칭해졌다. 주님의 적들은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분을 향해 덫을 놓았으나 그때마다 그분은 그들이 내놓는 비판의 뿌리를 현명한 답으로 덮어버리셨다. 본문에서 주님은 약하고 불운한 자를 돕는 것은 진실로 강하고 위대한 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여서 이에 대한 어떤 항변도 있을 수 없었다.

본문의 요지는 제 21-22절에 있다. 마태복음 23장 13-33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잔소리꾼이었을 뿐 정작 율법이 의도한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신성한 진리의 내적인 질을 사람 앞에서 살아내심으로써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세의 책들에 명령된 세세한 규정도 사실은 그 안에 시공을 초월하는 의미인 영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규정이나 율법 그 자체는 밀의 씨눈을 보곤 가능케 하는 껍질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한다. 그래서 주님께

서 오신 이유는 밀의 겉이 아닌 속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고 껍질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깨어져야 만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나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렸다고 한 비난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껍질뿐임을 스스로 폭로한다.

새 포도주는 신성한 진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 내기 위한 새로운 형체를 요구한다. 산상설교를 보면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마태복음 5:21-48).”하는 구절이 반복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것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주님은 옛 형체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영과 대비시키셨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는 모세의 규정 중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바는 율법은 글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 즉 율법의 영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으로 더욱 확실해 진다. 즉,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바리사이파인들이 해석해 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깨드린 것이지 안식일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병고침과 선행을 위해 사용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가르치셨음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으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안식일을 성스러운 날로 제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날 만큼은 세속적인 일에서 쉼을 얻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묵상하며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질문 정리

- 1)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가?
- 2)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3) 첫 네 제자들은 누구누구인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 5) 주님은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 6) 주님의 시대 때에 거룩한 땅은 어떤 세 구역으로 구분되었는가?
- 7) 그 구역 중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 8) 주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어느 구역에서 있었는가?
- 9) 공생애 동안 주님은 어디서 사셨는가?
- 10) 본문에서는 어떤 기적이 기술되고 있는가?
- 11) 중풍 병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는가?
- 12) 주님은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 1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 중 누구를 부르셨는가?
- 14) 그 제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란 어떤 이들인가?
- 16) 사람들은 왜 세리를 멸시했는가?
- 17) 본문에서 주님에 대한 첫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8) 두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19) 주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20) 세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는가?
- 21)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2) 안식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세례자 요한 2) 비둘기가 나타났다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 4) 전도, 가르침, 병 고치심 5) 회당 외 많은 곳에서 6)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대 7) 유대 8) 갈릴래아 9) 가파르나움(갈릴래아 해변가) 10) 중풍병자를 고치심 11) 요에 뉘여서 들고 왔다 12) 그의 죄를 용서하심 13) 레위(마태오)
- 14) 세금을 거두는 자 15) 바리사이파인 - 율법주의자, 율법학자 - 성경을 베끼는

이들 16)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임 17) 세리들과 식사하셨기 때문임  
18)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았기 때문임 19) 공존해야 할 필요성 20) 안식일을 주님이  
깨트렸다고 해서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21)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이다”  
22) 예배드리고 주님께 관해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 28

### 열 두 사도

#### 머리말

27장에서 공부한 안식일에 관한 것을 상기하면서 본장을 시작한다.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재고한 뒤 본문 서두의 기적을 그 예로 언급한  
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3장

3장: 1.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 가셨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지만  
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게는 “일어나서 이 앞으로 나오너라”하시고 4.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그 손은 이전처럼 성하게 되었다. 6.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래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9. 예수께서는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룻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10.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11. 또 더러운 악령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14. 예수께서는 열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15.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뽑으신 열 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둘 다 보아네르게스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혁명당원 시몬, 19.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20.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 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 온 율법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는니 하고 떠들었다. 2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갈 수 없다. 26.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27.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 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28.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29.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31. 그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 보냈다. 32. 둘러 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시고 34. 둘러 앉은 사람들을 돌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예비해두신다.
- \*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교회가 말씀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 믿음은 이해성 또는 생각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선행은 심정 또는 의지적인 평면에 속한다.
- \* 심정 속에 든 이기적인 욕망들은 외적인 선행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행을 파괴시킨다.

### 상응 공부

산 = 사고의 놓은 평면

베드로 = 믿음

야고보 = 사랑 또는 선행

요한 =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삶 또는 이타으로부터 비롯된 선

## 해설

주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당에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다. 이는 27장의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과 연결되는 질문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님은 오그라진 손을 고쳐 주셨다. 손은 행하는 힘에 상응된다. 뭔가가 오그라든다는 것은 필요한 자양분의 결핍이다. 이는 식물에게 물이 부족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사실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은 말씀과 사람들 중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공급을 차단했다. 이는 벌레가 식물의 줄기를 갉아먹어 잎이 시드는 모습도 유사하다. 그래서 백성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오그라진 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바리사이파인들이 나가서 헤로데 당원들과 만나 예수를 없애 버릴 방도를 모의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주님을 비판 할 수 있는 적당하고 정당한 수단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호수(바닷가)가에 모여든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한 교훈을 특별한 제자들에게 주시며 열 두 사도를 임명하고 계신다. 이는 상응으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바다(호수)는 기억 속에 수집된 지식을 표현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속의 바다를 항상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진리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진리를 우리의 기억 속에 준비해 두신다는 것이다. 복음서의 수많은 군중들은 선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리만을 원했으나 주님은 그들 중에 자신의 구원을 위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이웃을 섬기기에 충분한 진리를 가능한 한 많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셨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산으로 부르신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열 두 사도들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믿음과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섬기도록 해 주는 우리 속의 모든 자질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 가장 가까웠던 세 사람, 즉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사랑의 삶을 표현한다. 이 셋은 선한 삶의 필수 요소이며, 지성과 심정 그리고 행동에 있게 되는 선함의 필수요소이다. 그 외 아홉 제자들은 각기 알맞은 위치에서 있어지는 선하고 유용한 자질들을 표현하는데, 가롯 유다도 이에 포함된다. 사실 가롯 유다는 고대 히브리 국가를 표현하는데, 그 국가는 예배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외적인 것도 사실 필요하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은 선물에 있어서 내용물보다 포장을 중요시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겉과 안이 바뀌어 가치의 기준이 거꾸로 되고 만다. 그래서 유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도 받을 수 없었다.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주님이 떠나신 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서 기독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이들 모두는 각기 다른 재능과 인격을 소유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역량에 맞는 능력이 있음을 보였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도들이 가졌던 능력과 그들이 전파한 복음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기독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즉, 사도들이 복음서의 진정한 저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복음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든 사실들이 주님의 영감에 따라 배열되어 글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말씀이 교회를 만든 것이지 교회가 말씀을 만든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자 나자렛에 살던 주님의 친척들은 주님을 붙들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는 마귀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떠들어댔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선과 진리를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누가”가 아닌 “사실과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언급하셨다. 이는 우리가 우리 안의 악들을 질책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인식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고집하게 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악으로 빠져들어

악을 정당화시키게 되어 결국 지옥의 길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만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옥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 언급하신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심정과 지성을 알고 계시듯이 당대 사람들의 심정과 지성의 상태를 모두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하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계명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를 마지막 절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중풍으로 앓는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 주셨는가?
- 2)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행해야만 하는가?
- 3)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가?
- 4)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결점을 주님께에서 발견했는가?
- 5) 주님은 새 포도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6) 주님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 7) 5번 질문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바는 무엇인가 ?
- 8) 본문에서 병 고치는 기적은 무엇인가?
- 9)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병 고치심에 불만족했는가?
- 10)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음모를 꾸몄는가?
- 11) 주님은 군중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 13) 주님은 몇 명의 사도를 선택하셨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보자.
- 16)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 17)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말했는가?
- 18)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 19)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 20) 주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전해 들었을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왜 주님은 가족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죄를 용서하심 2) 일어나서 요를 건너 걸어감 3) 마태오(레위)
- 4)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깨트린 것
- 5) 새 그릇이 필요하다 6) 옛 사상과 새 진리는 공존할 수 없다.
- 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8) 오그라진 손을 펴주심
- 9) 안식일,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 받았다 10) 헤로데 당원 11) 바닷가 12) 산
- 13) 열 둘 14)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냄 15) 본문 참조
- 16)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음 17) 악마(베엘제불)
- 18) 우리의 악을 질책하는 진리를 거절함
- 19)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기 때문
- 20)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21) 주님은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29

###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

#### 머리말

지금까지 공부한 말씀 전체가 비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본문의 첫 비유를 풀이하셨음을 강조한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4장

4장: 1.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자, 들어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삼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백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예수께서는 이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하고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 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 준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 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13.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 14.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15.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썰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6.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18. 그리고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 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22.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어라.” 24.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 주면 달아 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덩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25.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27.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31.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32.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써 말씀을 전하셨다. 34.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갔다. 37.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고물을 베개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하고 부르짖었다.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하고 책망하셨다. 41.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 교리 요점

- \* 모든 말씀은 비유이다.
- \* 더 나은 삶 곧 선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원하는 자들만이 주님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 지상의 삶이 끝난 후 가게 되는 영원한 고향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심정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 사랑 중 어느 쪽이 주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 상응 공부

씨 = 말씀에서 나온 진리들

### 해설

본문 34절에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선언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도 해당됨을 명심해야 한다. 즉, 말씀의 모든 것이 비유라는 것이다. 10-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야 했던 이유와 제자들과 계실 때 그들에게 비유의 일부를 설명해 주셨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기꺼이 바꾸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내적 의미를 어느 정도 열어 주실 수 있으셨다. 누가복음 24장 44-45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에 관한 교리] 제 57항에서는 “깨달음은 주님께에서만 오며,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삶을 위해 진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된다. 하느님과 영적인 것에 관한 모든 지식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에게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깨달음이 없이는 말씀 속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더욱이 주님은 보다 선한 삶을 위해서 진리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 악해지고 만다는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에 대하여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들이 읽은 후 이해하면 외적인 행동지침을 위한 규율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말씀 안의 깊은 진리는 그것을 그대로 삶에 활용하지 않을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이해성이 우리의 발달과 경험에 의해서만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보다 차분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우리의 이해성이 경험에 의해서만 자란다는 것은 세상적인 문제들이 아닌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말씀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으나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의 이해성의 정도만큼, 즉 그가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읽은 것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읽은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기억적 지식에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꺼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시고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비유 중 세 가지는 씨에 관한 것이다. 주님 스스로 씨는 말씀에서 나온 진리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는 광범위하게 뿌려

졌다. 이는 오늘날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서 성경을 읽고자 하면 누구나 손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들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다져져 있는 길바닥과 같은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인 것들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사고의 습관이 세상적이어서 그들의 거짓된 사상이 진리를 듣게 될 때 즉시 진리를 파괴시킨다. 이것은 새가 쪼아 먹었다는 경우에 해당된다. 어떤 이의 마음은 언뜻 보기에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돌밭과 같아서 진리가 뿌리를 내린다하더라도 정착이 가능한 깊이까지 뿌리를 뻗지 못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진리를 잘 받아들이나 진리가 자신의 삶에서 응용되기 시작할 때 세상적인 것에 덮여 진리가 질식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속에 떨어진 경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진리를 받으면 곧 삶 속에서 진리가 살아 움직여 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주 단순하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유는 너무 쉽게 보여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복음서 중 세 복음서에 있는 일곱 개의 비유 중 하나다. 21-25절의 등불의 비유는 또 다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목이다. 등불의 비유는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지식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활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생김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리의 빛은 우리가 은밀히 감춰두고자 하는 우리의 결점이나 이기적인 악들을 환하게 비추어 드러나도록 한다. 집안이란 우리의 인격 속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누구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본문의 22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감춰두고자 하는 결점과 악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즉, 욕신이라는 껍질을 벗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속의 결점이나 악을 인식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저 세상에서는 누구도 자신속의 못된 것을 감춰둘



수 없다. 그 이유는 저 세상이 육체가 아닌 영체로 사는 세상이며 영체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볼은 우리의 영원한 인격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선에 가까웠다면, 저 세상에서 우리는 선의 발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떨어뜨려서 더욱 더 선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기심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알았던 모든 진리와 그에 대한 지식들이 사라져 이기심과 거짓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 우리는 25절에서의 가진 자를 단순히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식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진 자란 자신의 인격을 수정하고 발달시키기 위해 진리를 활용하여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을 말한다. 농부가 논에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는 자연의 이치이다.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진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농부가 논에 뿌려진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씨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을 마음속에서 제거할 뿐 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의 성장이 주님으로부터만 가능함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 30

### 기적을 베푸신 주님

#### 머리말

본장의 핵심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는 구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근원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음을 인식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우리는 본문의 기적을 공부할 때 기적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충분한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권능이 베풀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무관하다는 것과 믿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5장

5장: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매어 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5.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췄곤 하였다. 6.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 가 그 앞에 엎드려 7.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8.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9.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는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12.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14. 돼지 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15.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16. 이 일을 지켜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돼지 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지만 19.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하고 이르셨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22.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시었다. 24.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25.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26.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27.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9.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 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쿼”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않았다. 4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 교리 요점

- \*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 \* 이제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는다.

### 상응 공부

요르단 건너 동쪽 지역 =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상태  
 돼지 = 탐욕에서 오는 즐거움  
 주님의 걸 옷자락 = 십계명

### 해설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치료해 주셨다. 우리 또한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기적은 악령들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기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것이 베풀어진 장소가 거룩한 땅 밖의 지역인 요르단 강 건너편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회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 또는 우리속의 것들 중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접근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악령에 들린 사람의 본성은

선했다는 것이다. “그가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라는 구절로 알 수 있듯이 그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다.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그의 본성이 선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덤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여러 번 쇠고랑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메어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냈다고 복음서는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들을 에워싼 죄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나 주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발전이 없어 애통해하며 슬피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주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시켜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불은 당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의 보존에 필요한 진리를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진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태초이후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담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 놓인 인격을 입으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인격을 입지 않으시면 악들과 싸울 수 없으시고 그러면 지옥을 정복하셔서 그것을 그분의 질서 하에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악령에 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본성이 아주 악해져서 악마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지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강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과 다르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악마에게 물으시자 “군대라고 합니다.”라는 응답에서 군대란 우리가 가진 어떤 악 하나가 결국 수많은 악들을 만드는 모습을 연상케 해준다. 어린아이들도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저지르게 됨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악령들이 들어가기 원했던 돼지 때란 육체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는데서 오는 즐거움으로 살려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악마들이 돼지 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악마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자 돼지 때는 물에 뛰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들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 때 삶이 즐겁고 기쁜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안의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시킴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들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 밑에 두고 조절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적절히 즐기게 된다.

주님께서 악령 들린 자를 치료하신 후 갈릴래아 건너로 되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 거룩한 땅 내에서의 기적은 말씀을 갖고 있는 이들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주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가진 이들은 크게 두 계층, 즉 본문의 회당장이었던 아이로와 가난한 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비되는 두 계층의 사람들은 성탄절 이야기에서 나오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대비와 유사해 보인다. 회당장은 학식이 있고 부유한 사람(동방박사)을 의미하고, 가난한 여인은 단순하지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목자)을 의미한다. 당시 학식이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 중 주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본문의 아이로이다. 그는 자기 딸이 거의 죽으려고 하자 예수께로 와 도움을 청했다. 이는 그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으며 그분께 권능이 있음을 의심치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두말없이 그의 집으로 향하신 것이다.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 주님은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하혈증으로 상징되는 병을 고쳐 주셨음을 의미한다. 그 여인은 무려 12년간이나 하혈증으로 고생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병을 치료 하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을 것이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에 관하여 들었고 들은 바대로 믿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 자락만 만지더라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아는 바도 많지 않지만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리고 아이로는 그들의 나라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의 딸은 그런 사람들이 가진 애착을 상징한다.

가난한 여인은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치료되었다. 누가복음서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다고 전한다. 주님의 겉옷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상징하며, 겉옷의 옷자락이란 십계명을 상징한다. 따라서 가난한 여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과 곤고함을 인식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까닭에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회당장의 경우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것은 “손을 얹어”달라는 그의 요구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아이로는 주님으로부터 있게 되는 직접적인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성경 상에서 언급 되는 죽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활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곧 천국에서 천사로서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듯이, 천국이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볼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던 자들은 이곳에서의 죽음이 곧 진정한 죽음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는 지옥에 가기 때문이다.

거듭남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본문 마지막 두 기적들로 명확히 강조되고 있다: 주님을 알고 믿는 것, 계명에 순종할 것 그리고 주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생명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기적은 무엇인가?
- 2)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공부한 기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3) 본문에는 몇 개의 기적이 있는가?
- 4) 첫 기적은 어디서 수행되었는가?
- 5) 첫 기적 속의 사람은 어떠했는가?
- 6)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어떻게 보였는가?
- 7)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 8)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9) 악마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는가?
- 10) 돼지 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 11)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셨는데, 누가 도움을 청했는가?

- 12) 야이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 13) 야이로의 전달자는 무슨 말을 했는가?
- 14)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어떤 기적이 수행되었는가?
- 15) 그 여인은 어떻게 치료되었는가?
- 16)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떻게 소녀를 고치셨는가?
- 18) 주님은 부모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라고 하셨는가?
- 19) 주님은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수행하신 경이로운 일들
- 2) 중풍병자, 오그라진 손을 펴심    3) 3    4) 요르단 건너 지역
- 5) 악마에 사로잡혀 있었다.    6) 달려와 주님께 경배했다    7) 군대
- 8) 시험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9)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 10)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11) 야이로
- 12) 거의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려 달라고    13)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 14)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    15)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으로서
- 16) 그녀는 잠을 자고 있다    17) 손을 잡고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 18)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
- 19)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 31

###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머리말

주님을 만났던 군중, 제자들, 바리사이파인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그리고 헤로데와 나자렛 마을 사람들과 헤로디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6장

6장: 1.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 가셨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저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일까?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3. 저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하면서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4.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5. 예수께서는 거기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을 뿐,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촌락으로 두루 다니시며 7. 열 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 8. 그리고 여행하는 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며 9. 신발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끼입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1. 그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고장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경고하는 표시로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이 말씀을 듣고 열 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13.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5.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7. 이 헤로데는 일찌기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18.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와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래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 주마”하고는 23. “네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24.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하고 시켰다. 25.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 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왔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쟁반에 담아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29.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3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3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나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농가나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고 이르시자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하고 물었다. 38.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는가 가서 알아보아라.”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하자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군중을 풀밭에 떼지어 앉게 하라고 이르셨다. 40. 군중은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모여 앉았다. 41.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으며 44. 먹은 사람은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45. 그 뒤에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 베싸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혼자서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46.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 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 48.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네시쯤이었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50. 그를 보고 모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하시며 51.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겔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 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만 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능력은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신다.
- \*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 \*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 \* 말씀은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함유하고 있다.

### 상응 공부

헤로데 = 마음을 지배하는 사리사욕  
헤로디아 = 심정 속에 든 자아 사랑  
다섯 =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는 조금  
둘 = 선을 실현시키는 지식 또는 진리

### 해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한 후 ‘나’라는 존재를 알고자 하는 공부가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시도되고 있다. 현대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인해 인간의 심리와 성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면 교양과목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다. 설사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인간의 심리와 정신 작용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공부하게 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연구과제로 삼는 학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자 하면 한 번쯤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 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무한한 친절과 인내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분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내포된 참다운 교훈들을 읽을 수 있다면, 말씀이 우리의 참된 모습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 교재보다도 완전하고 유용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 속성들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곧 우리의 모습이며, 그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나자렛 마을 사람들, 사도들, 헤로데와 헤로디아,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일반 군중들이다. 군중이란 우리가 매일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열 두 사도들이란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속의 특별한 생각들과 애착들을 의미한다. 나자렛 마을 사람들이란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것들 중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사용해 온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습관들을 의미한다. 세례자 요한이란 주님께서 각자에게 제공하시는 자기 검증과 교정을 위한 영적인 자극을 말한다. 그리고 헤로데는 지성을 지배하는 사리사욕을, 헤로디아는 심정을 지배하는 자아사랑을 말한다.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성장하셨던 나자렛이다. 나자렛 사람들은 그들과 별로 다른 바 없이 같은 마을에서 성장했던 예수가 어떻게 신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며 주님의 복음을 믿기를 거부한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되는데,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수많은 복음서의 증언이나 기독교 역사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종교 지도자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 후 주님은 열 두 사도들을 둘 씩 짝지어 여러 곳으로 보내며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을 치료하도록 하셨다. 둘 씩 짝지어 보낸이란 어떤 일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속의 높은 속성은 이미 성경속의 진리에 응답해서 삶을 그 가르침 대로 놓아두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등장한 세례자 요한

이 이미 그의 일을 수행해왔던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는 14절을 통해 사리사욕을 상징하는 헤로데 조차도 질서 있는 가르침의 가치 자체는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 속의 헤로데 또한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리사욕은 자아 사랑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에 부닥치면 그대로 멈추고 만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가 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때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실수를 저지른다. 심지어 우리속의 자아사랑은 요한의 목이 베어지기 전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몇 구절만으로도 한 장을 채우고도 남겠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삶을 영위할 때 존재하는 심정과 지성의 일반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자. 헤로데는 말 그대로 사리사욕을 상징한다. 사리사욕이란 자신이 가진 지위나 지식을 스스로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만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자아사랑과 한 쌍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헤로데는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데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다. 자아사랑을 상징하는 헤로데아는 자아사랑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기적인 쾌락이나 기쁨까지도 의미한다. 이렇게 사리사욕과 자아사랑의 통치를 받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리사욕과 자아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악들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유전적인 성향들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게 되고 그것들을 이겨내야만 주님의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유전적인 경향성들과 싸우는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임하심에 응답할 자질들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예전에 배웠던 진리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을 가끔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증거이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영적인 자양분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으로 어떻게 오게 되는가를 표현한다.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우리란 우리 속에 있는 군중에 해당된다. 우리 속의 군중이란 생각과 느낌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이는 일상적인 문제와 일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와 힘을 요구한다. 이 군중은 주님의 가르침을 하루 종일 경청하나,

정작 가르침을 흡수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측면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속의 군중보다 높은 속성인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군중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구하고자 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의 높은 속성을 상징하는 제자들에게는 군중을 먹일 양식이 이미 있었음을 뜻한다. 그들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분한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인 선하게 살고자하는 의지와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속에 든 조그만 선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우리의 선과 진리들이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마지막 단원에서 상기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더라도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현재하심을 체험하여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우리속의 것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딪치는 시험들을 모두 극복해 내기 위해서 주님의 현재하심을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주님의 현재하심에 대한 체험은 곤경을 헤쳐 나가고 시험을 이기면서 더욱 뚜렷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

## 질문 정리

- 1) 왜 주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수행하지 않으셨는가?
- 2) 주님은 사도들을 파견할 때 어떤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 3) 헤로데 왕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 4)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5) 요한을 실제로 죽게 한 자는 누구인가?

- 6) 우리 속에서 헤로데와 헤로디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7) 제자들은 군중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이자고 제안했는가?
- 8)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들은 어떤 음식을 손에 들고 있었는가?
- 10)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 11) 주님은 물고기와 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2) 몇 명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가?
- 13) 먹고 남은 음식은 얼마나 되었는가?
- 14)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 15) 제자들은 어떤 곤란을 당했는가?
- 16)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와서 도와주셨는가?
- 17) 우리는 육신의 양식 외에 어떤 양식이 더 필요한가?
- 18) 우리의 영적 양식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 질문의 답

- 1) 그곳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 2) 어떤 여분도 취하지 말라
- 3) 세례자 요한 4) 그의 목을 베었다 5) 헤로디아 6) 사리사욕, 자아사랑의 지배
- 7) 제각기 양식을 구하러 보냈시다 8)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9)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10) 오십 명 백 명씩 때 지어 앉히셨다 11) 축사하시고 떼었다 12) 오천 명 13) 열 두 광주리 14) 베싸이다 15) 역풍을 만났다
- 16) 물 위로 걸어 오셨다 17) 영혼을 위한 양식, 즉 사랑과 지혜 18) 흐트러진 생각을 질서대로 놓고 우리의 재질을 선용하면서 지식과 강함을 주님께에서 찾는다



# 어린이를 축복하신 주님

## 머리말

본 장은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종려주일과 연관 지어 공부할 수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시기의 초기에 연유되고 있다. 성서 지도에서 거룩한 땅의 세 구역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이 요르단강 건너편과 여리고를 지나간 경로를 확인해 본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0장

10장: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 때에 바리사이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하고 반문하셨다. 4.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6.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돌아 와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물으니 11.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이며 12.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랐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 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6. “그리고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 19.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 그 사람이 “선생님, 그 모든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 오너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23.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24.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2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26.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9.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백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1.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 두 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 주셨다. 33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 가 사형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 갈 것이다. 34.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였다. 38.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나?”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40. 그러나 네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41.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46.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가고 있었다. 그 때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48.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소리 질렀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자 50. 소경은 걸옷을 벗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 왔다. 51.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2.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 순진함이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 \* 재물에 의지함이란 자신의 선함과 지혜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응 공부

유다 지역= 의지 또는 심정

사마리아 지역= 이해성

갈릴래아 지역= 바깥 행동 지침

어린 아이 = 순진함, 기꺼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

소경 = 영적 진리에 무지함

### 해설

주님은 본문에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뭔가를 받을까?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을 이루거나

얻을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지혜롭고 위대한 분인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따름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받는다. 스웨덴봄은 이것이 천국의 깊은 영역을 이루는 순진이라고 불리는 속성이라고 말한다. 즉, 스스로의 선행이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천국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보도록 해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하며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고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진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속에서 볼 수 있는 순진은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순진은 무지로부터 있어지는 것이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로부터 있게 되는 순진한 심정 상태는 주님에 의해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되는데, 스웨덴봄은 이를 일컬어 ‘남겨 두시는 것들, remains’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것들은 우리 안 깊은 곳에 저장되었다가 후에 우리의 영적 발달의 기초로 주님에 의해 사용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저장된 순진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많은 시험과 인고의 세월을 지나 새롭게 성장한 순진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으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이를 일컬어 스웨덴봄은 ‘지혜의 순진’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이다. 본문의 1절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지방과”라는 기록으로 시작된다. 거룩한 땅의 한 부분인 유다지방이란 우리의 심정 또는 의지 부분을 표현한다. 주님은 그곳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제시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으로 시험되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바는 결혼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근본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사랑과 지혜, 의지와 이해성 또는 선과 진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결혼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며, 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홀로 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항상 이타적이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안내자로 주님을 찾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다면, 해가 거듭될수록 둘의 사랑은 더욱 더 하나가 되어 커져 갈 것이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는 것은 언제나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들고, 서로가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게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주님께 의해 주관되고 인도되기를 마음으로 거절하게 만든다.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있는 교훈 또한 다르지 않다. 주님과 대화 시작될 때 주님은 그에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는 진리를 강조해주셨다. 부자 청년은 이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첫 단계를 이미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룬 그 단계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심정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겸손을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천국의 보물을 위해서 지상의 보물을 포기할 준비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울상이 되어 떠나갔던 것이다.

이제 23-24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 자체나 부유한 사람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심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 둘 또 하나는 성경에서의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선에 대한 소유욕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이나 부유함이 진정으로는 주님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부자나 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지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는 부자란 산상설교에 있는 축복 조항 중 첫 번째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이어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후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개인적인 가르침까지 받은 사도들조차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보상으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 주님과 제자들은 그분의 지상 생활에 있을 마지막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인지라 주님께서 그분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며 노력하고 있던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을 세상적인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디고 무지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틈나는 대로 강조하셨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만든 주원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리사이파인이나 젊은 부자 청년 그리고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진리를 알 기회가 주어졌던 모든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있는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르티매오이다. 그는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다. 소경이란 진리에 무지함을 표현한다.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 달라는 것 뿐이었다. 그는 주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완전히 믿은 자다. 이 믿음이 그가 눈을 뜨고 그분을 보게 되자마자 “예수를 따라나서게” 한 것이다. 그는 가난한 소경이었으나 어린이의 순진함을 가져 주님께 의해 인도되는데 기꺼이 순종하는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문이 있게 된 지역은 어디인가?
- 2)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3) 주님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 4) 주님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순진이란 무엇인가?
- 7) 부자 청년은 주님께 무엇을 물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9) 그 다음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0) 부자 청년은 왜 되돌아갔는가?
- 11) 주님은 부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2)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3)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요청했는가?
- 14)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 15) 주님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질문의 답

- 1) 유다지방 2) 예루살렘 3) 이혼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 4) 너희들의 심정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5) 어린이같이
- 6) 글자대로 보면 해치지 않음,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의해 인도되기를 바램
- 7)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 8) 계명에 순종하라 9)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 10)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다 11) 재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12) 자신의 선함과 지혜를 신뢰함 13) 왕국에서 영광의 자리
- 14) 자리에 앉게 하는 특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 15) 섬김과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 33

###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 머리말

본장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종려주일에 관한 것으로서, 성탄절에 공부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어진 자의 의미를 언급한다. 기름이란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주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1장



1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벧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4.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5.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 가오?”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7.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수많은 사람들이 겂옷을 벗어 길 위에 퍼 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10.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1.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 보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셨다. 16.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하고 나무라셨다. 18.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 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하고 말하였다.

22.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25.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7. 그들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하고 물었다. 29.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32.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33.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 교리 요점

- \*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 \*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들로 부터 깨끗하게 보전해야 한다.

\*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산”이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나아가는 길가에 버티고 있는 장애물들을 말한다.

### 상응 공부

겉옷 = 행동의 원리가 되는 진리들

나무 = 일반적인 원리

가지 = 일상생활을 규율하는데 사용되는 원리

산(장애물) =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이기적인 느낌과 생각

### 해설

각 복음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그 후의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상이점을 보여 준다. 마가복음에서는 종려주일 바로 다음날에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이 놓여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공생애 초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있게 되는 같은 날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의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건의 순서는 내적인 의미에 관계될 때만이 중요하다는 것과 각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신성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 사건들이 가지는 개연성과 연속성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만 무화과나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권위에 관한 바리사이파인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타신 동물은 망아지라고 불리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물을 새끼 나귀라고 부르고, 마태는 “매어있는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라고 말한다.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서 주님이 성취하신 예언은 즈가리야 9장 9절에서 볼 수 있다: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네 얼굴이 너를 맞아 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앞서 우리는 왕이나 판관이 노새나 나귀를 타는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공부했다. 백성들은 이 관습뿐만 아니라 즈가리야의 예언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 즉 그들의 구원자로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시는 왕으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호산나란 “구하소서, 우리가 기도 하나이다”라는 뜻이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왕이며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빌라도에게 심문 당하실 때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요한복음 18장 36절)”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백성들은 주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꺾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지상 최강의 제국으로 만드실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왕국이 그들이 기대한 왕국이 아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 바로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것이다.

당시 교회의 상태와 모습이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 때문에 말라져 죽어버린 무화과나무, 즉 자연적 수준의 표면적인 교회로 표현된 것이다. 인간 혹은 교회가 선한 일(열매)을 맺지 못하면, 그 인간 또는 그 교회 속에 영적 생명이 없게 된다.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사건 역시 같은 의미이다. 당시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 사용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주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루살렘 또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표현한다. 스웨덴봄에 따르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인격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형성했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여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사고와 개념으로 삶을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교훈과 본보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진술에는 타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상세함을 더하는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제자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여 있었다(4절).”라는 구절이다. 나귀란 자연적인 이성, 즉 알려진 사실만을 추론의 바탕으로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유아기를 지나 첫 번째로 발달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능력이다. 4절의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여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우리 영혼의 정문(길가로 난 문) 앞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 능력이 “매여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이성이 그 이성에 자유를 주게 되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귀는 매우 유용한 동물이지만 하나 매우 고집스럽고 다루기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나귀는 믿음직하나 땅만을 쳐다보고 걷는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속의 자연적인 이성에게 스스로 방향을 잡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계의 것 이상을 넘어선 것 이외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의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이다. 새끼나귀가 매여 있던 장소는 두 길이 만나는 곳으로 길가로 난 문 앞이다. 즉, 새끼나귀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속의 자연적인 이성은 이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두 길이란 우리에게 제공된 선택을 그리며, 그 선택이란 우리의 이기적인 길과 주님의 길 중에서의 선택이다. 새끼 나귀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쓰인다면 매우 안전하게 매인 것을 푸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영접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우리속의 자연적인 이성은 자연적인 것을 수단으로 영적 진리를 꾸준히 확증해 가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는 그분만이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하게 조절하셨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진리는 이야기의 다른 세부사항으로 더 진행되고 있다. 제자들은 주님이 타실 수 있게 그들의 겹옷을 나귀위에 깔아 주었고, 백성들은 주님이 타고 가시는 길에 그들의 겹옷을 벗어서 깔았다. 겹옷이란 마음을 옷 입히고 있는 진리를 말한다. 이 진리가 주님의 진리아래 종속되어야 함이 겹옷을 나귀위에,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까는 모습이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주님 앞에 던져졌다. 나무란 우리 속에 든 일반적인 원칙을 뜻하고, 나뭇가지란 일반 원칙에서 뻗어 나오는 세세한 원칙들을 말한다. 나무 중에서도 종려나무란 모든 선함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만 근원된다는 원리를 표현한다.

본문을 내적 의미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먼저 주님을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서 인정하나 삶으로는 따르지 않는 위선에 대한 경고를 보여 준 다음 22절에서 “하느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 이 구절은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이 믿음이란 텅 빈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순종으로 꽉 찬 상태를 뜻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이 올바름을 믿어야 하고 그분께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선한 것임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번쩍 들어서 던져 버려야 할 산이란 우리의 영적 삶의 길을 가로막아 버티고 서 있는 우리 속의 자기 찬양이나 자기 총명이라는 높은 곳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 2) 그분은 어디에서 성장하셨는가?
- 3)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누가 미리 보내셨는가?
- 4) 주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인가?
- 5) 본과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교회에서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6) 이날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7) 주님은 무슨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8) 제자들은 어디에서 나귀를 발견했는가?
- 9) 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10) 주님은 어디에서 밤을 보내셨는가?
- 11)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 12)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 13) 주님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14) 본문에는 주기도문의 어느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가?

- 15)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 16) 주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 17)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부르는가?
- 18) 이 주간의 목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 1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20)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신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무화과나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2) 종려주일 다음 일요일에 무엇이 있었는가?

#### 질문의 답

- 1) 베들레헴 2) 나자렛 3) 세례자 요한 4) 3년 5) 종려주일 6)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7) 나귀 8) 길가로 난 문 앞에서 9)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기 때문(요한복음 12:13) 10) 베다니아 11)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쫓아 내셨다 12) 말라버림 13) 산을 움직인다 14)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자를 용서하듯이 15)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16)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근원을 물으심 17) 성주간 18) 마지막 만찬 후 체포되심 19) 십자가에 달리심 20) 그분의 자연적인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셨음 21) 선한 일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도 없다 22) 부활절

## 34

### 성 만찬

#### 머리말

본과를 소개하는 측면에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조명 한다.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간 동안 그분이 베다니아에서 밤을 보내셨음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4장

14장: 1.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러자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5. 이것을 팔면 삼백 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특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7.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9.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0.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 날에는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14.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하고 말하여라. 15.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16. 제자들이 떠나 성안으로 들어 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17.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터인데 그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19.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0. 예수께서는 “그 사람은 너희 열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을 터이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구나.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하고 말씀하셨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 가며 마셨다. 24.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5. 잘 들어 두어라.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나는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28.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0.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셨다. 31.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32. 그들은 게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34.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수난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며 36.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말씀하셨다. 37.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 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하시고 39. 다시 가서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리고 다시 돌아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졸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께서는 세 번째 다녀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2.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43.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와 함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 지어 왔다. 44. 그런데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5. 그가 예수께 다가와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자 46.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그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던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48.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49.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나? 49. 너희는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50. 그 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1. 몸에 고운 삼베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 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52. 그러자 그는 삼베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이 예수를 대사제  
에게 끌고 갔는데 다른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모여 들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와 뒤를 따라 대사제의 관저 안뜰까지 들어 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불을 쬔고 있었다.

55.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와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57. 그러자 몇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58.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언을 하는 데도 그들의 말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60. 그 때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토록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1. 그러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2. 예수께서는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63. 이 말을 듣고 대사제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방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는 사형감이라고 단정하였다. 65. 어떤 자들은 예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경비원들도 예수께 손찌검을 하였다. 66. 그 동안 베드로는 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67. 베드로가 불을 쬔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68. 그러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소”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가로 나가자 69.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 사람은 예수와 한 패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0.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또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 패일 거요”하고 말하였다. 71.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72. 바로 그때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땅에 쓰러져 슬피 울었다.

### 교리 요점

- \* 성만찬은 우리의 삶 안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수단이다.
- \*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이층방”은 주님과 천국적인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방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고 설비해 두어야 한다.
- \* 성만찬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신 주님, 즉 대속하신 주님을 기념한다.

### 상응 공부

이층방 = 영혼의 높은 평면

빵 = 선함

포도주 = 영적인 진리

### 해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성만찬의 제정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하는 말씀을 더하고 계신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분이 육을 입고 계신 동안의 마지막 식사임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알고 계셨다. 본문 8절에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시려는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한다. 주님을 배반할 사람은 이미 대사제들과 음모를 짰 뒤였으므로, 그도 주님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월절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찬식은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악을 이겨내신 승리를 통해서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다는 주님과 이웃보다 자아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시험으로서 우리 속에 언제나 존재한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각 사도들은 “저입니까?”라고 묻기 시작했다. 가장 가치 있는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준비는 정직하게 “저입니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자기 검증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검증은 어느 누구도(주님을 포함해서)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결합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는 음식을 같은 식탁에서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과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에도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빵은 그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는 선함과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자신 속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이 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다 밀어내고 주님으로부터 선함과 진리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하면, 우리는 한층 더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할 만큼의 선함과 진리를 그분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게 된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성만찬이 제정된 후의 사건으로 주님이 베다니아에서 식사하실 때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기름을 부은 자는 나사로와 마르타의 자매인 마리아였으며, 예수께 부은 값진 향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한 자는 유다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유다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과 가식적인 선에 치중하는 사람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리아와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측면의 선한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한 일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근본 곧 우리 마음의 의도야말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가 순수한가 아니면 위선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이제 게세마니 동산에서 있었던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그분께서 하고자 하였다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능히 스스로를 구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35장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공부하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사항은 그 기도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감에 넘치고 스스로를 참된 신앙인처럼 느끼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다치면 주님을 잊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흔하다. 주님께서 게세마니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 온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27-31절까지를 먼저 읽은 후 66-72절을 읽어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우리 자신의 약함을 지적하며 주님으로부터 강건함과 안내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세 제자들 중 첫 번째였으며 그분께서 처음 부르신 네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자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같이 그는 믿음을 표현한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본문 27절 이하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66절 이하의 베드로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주장과 자부심에 대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가를 여실히 알게 된다. 우리는 주위의 누군가가 어떤 시험 중에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그 시험에 직면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잘 이겨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각

개인이 갖는 시험에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올 시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서 그분의 선함과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은 작은 어린이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 부자 청년은 무엇을 물어보았는가?
- 3) 주님은 그 청년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4) 그 청년이 기꺼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 5) 주님은 재물(에 의지함)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원했는가?
- 7) 진정한 위대함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8) 베다니야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 9)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 10)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 11) 주님은 두 제자에게 과월절을 기념할 장소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셨는가?
- 12) 과월절을 준비한 방은 몇 층에 있었는가?
- 13) 과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 14)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각기 뭐라고 물었는가?
- 15) 주님은 빵과 포도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 16) 기독교의 성례식 중에서 이날 시작된 예식은 무엇인가?
- 17)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주님은 저녁 식사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 19) 거기서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였는가?
- 20)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21) 그는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가?
- 22) 주님은 어디서 심문을 받으셨는가?
- 23) 대사제는 주님에 대해 어떤 죄명을 만들었는가?
- 24)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은 무엇인가?
- 25) 우리는 성찬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2)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 3) 계명에 순종하라 4)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5)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6) 영예의 자리 7) 모든 이를 섬김 8) 주님께 기름 부었다
- 9) 쓸데없이 낭비했다 10) 그 여인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11) 물동이에 물을 길어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12) 이층방 13) 이집트인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해방됨
- 14)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15)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16) 성찬 17) 신성한 선함과 진리 18) 계셰마니 19)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20) 가리옷 사람 유다 21) 입마춤 22) 대사제 앞에서
- 23) 신성모독, 그리스도라는 주장 24)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 25)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심

## 35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 머리말



성만찬이 제정된 것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까지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사제들이었다는 점이다.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5장

15장: 1. 날이 밝자 곧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하여 온 의회를 소집하고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넘기었다. 2.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3. 대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자 3. 빌라도는 예수께 “보라.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느냐?”하고 다시 물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6. 명절 때마다 총독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폭도들 가운데 바라빠라는 사람이 있었다. 8. 군중은 빌라도에게 물려가서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의 왕을 놓아 달라는 것이냐?”하고 물었다. 10. 빌라도는 대사제들이 예수를 시기한 나머지 자기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사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빠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군중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군중은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소리질렀다. 14. 빌라도가 “도데체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나?”하고 외쳤다. 15.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16.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들였다. 17. 그리고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18.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례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희롱한 뒤에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  
 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박으려 끌고 나갔다. 21. 그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갔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23. 그들은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예수께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드시지 않았다. 24.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 각자의 몫을 정하여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예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여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  
 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손 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2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하하,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짓는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목숨이나 건져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3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하며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32.  
 어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린들 안 믿을 수 있겠느냐?”하고 서로 지껄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까  
 지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33. 낮 열 두 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몇이 이 말을 듣고 “저것 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였다. 36. 어떤 사람은 달려오더니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어서 갈대  
 끝에 꽂아 예수의 입에 대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  
 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하고 말하였다. 40. 또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따라 다니며 예수께  
 시중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42.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43.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44.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 되었는가 물어 보았다. 45.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46.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 가지고 온 고운 베에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 교리 요점

- \*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면하신 시험들 중 마지막에 해당된다.
- \* 설사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 악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 상응공부

고운베 = 마음의 자연적 평면 안에 있는 신성으로부터 온 진리  
 휘장 = 주님의 유한한 인성

### 해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처럼 속죄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죄 사함을 사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새교회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구해내실 수도 있었음은 복음서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누가복음 4:28-30, 요한복음 8:59과 10:17-19과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19:10-11 참조).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섭리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교회가 믿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셨다는 것이다. 둘째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계신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셋째 그분은 한동안 우리의 것과 같은 육신과 마음을 입으셨는데, 이는 어떤 유일한 인간도 극복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지옥의 권세와 부딪쳐 정복하실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지옥의 권세와 접촉하실 수 있는 그분의 유일한 방법은 인성을 입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분이 입으신 육신과 마음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시험과 약함을 느끼셨다는 것이다. 여섯째 그분 속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힘으로 그분은 모든 시험과 약함을 극복하셨다는 것이다. 일곱째 십자가상에서의 시험은 그분이 지상 생활을 통해 만나고 정복하셨던 모든 시험들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가장 깊고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시험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는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은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인간을 구원하는 참다운 길을 여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 주님께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는 아주 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적들의 야유와 조롱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즉, 구원은 결코 강제적인 선택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곧 사랑이요 사랑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시험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적들이 하는 악랄한 것들을 허용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지 삼 일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나셔서 그분의 추종자들, 즉 “나의 친구들아, 육신은 죽어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12:4)”라고 하신 말씀 속의 진리를 믿고자했던 이들에게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지옥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동안 만나는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을 상징하는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이다.

대사제와 빌라도에 대한 상응은 우리에게 심도 있는 교훈을 준다. 당시 로마는 서양 세계를 지배하여 그들이 정복한 국가들에 군대와 총독을 파견해 두었다. 하지만 로마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 대사제의 권한은 종교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형을 언도해 줄 것을 청했던 것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지도급 중 대사제란 심정 속의 악을 표현하고, 빌라도는 이해성 속의 거짓을 표현한다.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어떤 과실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 군중들에게 설득되는 것을 허용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이기심이 자신의 길만을 고집부리는 쪽으로 향해 있을 때 합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애쓴다. 그런 다음 우리는 16-20절에서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과 같이 자신이 어기고 있는 정의의 표준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더욱 정당화시킨다. 주님 대신 바라빠를 놓아주는 모습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를 거절할 때 우리는 지성과 심정 속에 든 파괴만을 일삼는 악과 거짓을 풀어 주게 됨을 의미한다.

주님의 겉옷을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말씀의 겉옷(글자)을 취급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소홀히 함을 말한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각 교단들은 말씀 중에서 각자의 사상과 합리성에 합당한 부분을 선택하여 그것을 기초로 각기 다른 교리를 체계화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은 그분의 가르침이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평가되었음을 표현한다. 그 이유는 강도가 거짓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

는 커튼이었다. 이 사건은 주님 내부에서 일어난 마지막 분리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유한한 인성이 벗겨지는 마지막 순간 곧 그분의 신성한 인간이 신성 자체와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순간을 상징한다. 주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사건이 거행될 때가 바로 39절에 있는 백인대장의 태도로 그려지고 있다. 백인대장이 표현하는 우리 지성 속의 합리적인 원리는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즉각 인식한다는 것이다.

말씀에서 매장은 곧 부활과 상응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주님의 시신을 안장한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주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였음은 분명하나, 그들은 그분이 감옥에 갇히자 모두 달아나 버렸다. 이것은 그들의 희망이 예수라는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뿐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죽으시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과는 사회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이다(요한 19:39절). 그들은 모두 유대교의 최고 평의회 의원이었다. 그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인해 그분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안장하되, 말씀의 영적인 요구가 성취되는데 필요한 매장 의례에 따라서 했다. 본문 마지막절의 여인들은 단순하며 이타적인 애착을 뜻하는데, 그녀들은 주님이 안장되는 순간까지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 했다. 이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 부활에 관해 알게 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재정리해 보기 바란다.

## 질문 정리

- 1) 주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그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셨는가?
- 2) 이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이 때 주님이 새로 설립하신 축제는 무엇인가?
- 4) 기독교의 축제는 무엇을 기념하는가?
- 5) 누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 6)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맨 먼저 심문을 당하셨는가?
- 7) 대사제는 어떤 명목으로 주님께 죄가 있다고 했는가?

- 8) 그 다음 주님은 실형에 처하도록 누구에게 보내 지셨는가?
- 9) 빌라도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왜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는가?
- 11) 주님 대신 빌라도는 누구를 석방했는가?
- 12) 빌라도의 병사들은 주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 13) 주님은 어디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 14) 끌고다로 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누가 운반해 주었는가?
- 15) 병사들은 주님의 겉옷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형을 당했는가?
- 17) 주님의 적들은 무엇을 해보라고 유혹했는가?
- 18)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9) 백인대장은 뭐라고 말했는가?
- 20) 누가 주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는가?
- 21) 그는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 22)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까지 어느 여인들이 그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 23) 왜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도록 허용하셨는가?
- 24) 주님의 겉옷을 나눠 가짐은 무엇을 그리는가?

#### 질문의 답

- 1) 과월절    2) 이집트인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함    3) 성찬
- 4) 악의 노예에서 구속됨을 기념함    5) 가리옷 유다
- 6) 대사제    7) 신에 대한 모독    8) 본디오 빌라도
- 9) 주님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 10) 군중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다    11) 바라빠    12) 주님을 희롱했다    13) 끌고타
- 14) 키레네 사람 시몬    15) 제비뽑아 나누었다    16) 두 강도
- 17)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18)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 19) “이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20)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21)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22) 두 마리아  
23) 악은 실지로 선을 파괴할 힘이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음  
24) 자신의 주장을 타인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문단을 발췌함

## 36

### 부활하신 예수

#### 머리말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를 각자 정리하면서 본장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 성 서 본 문: 마가복음 16장

16장: 1.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3.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4.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5.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6.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8.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9.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귀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10.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 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2.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 두 사람도 돌아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14. 그 뒤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1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 내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18.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21.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22.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 교리 요점

- \*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 즉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 \*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
-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영적 성취가 있다는 것이다.

### 상응 공부

향료 = 선에 근거한 내면의 진리

### 해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삼 년을 한결같이 그분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음을 공부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즉,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그분께 있게 되는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의 용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총명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겸손한 마음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주님을 따른 자들 가운데는 열 두 제자들 외에도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막을 힘은 없었으나 제자들과는 달리 그분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본문의 여인들이다. 마가복음 제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로부터 내려져서 안장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고 안식일이 끝나자 그분의 무덤에 맨 처음 당도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보다 그분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께 기대했던 세상적인 보상은 그 여인들에게는 없었다. 게다가 그녀들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했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녀들이 부활에 대해서 맨 처음 배우게 된 이유이며,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분을 제일 처음으로 보게 된 이유이다. 그녀들은 주님을 뵈기 전에 빈 무덤 안에 있던 한 젊은이가 그분이 일어나셨음을 말했다 때도 전혀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분을 뵈 때까지 믿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열 두 제자란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우리 속의 모든 능력을 표현한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열두 가지가 모두 들어 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믿는 능력을 표현하고 안드레아는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표현한다. 이런 능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삶을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며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분의 대행자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며 그 능력이 사용되고 발달 될 때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게 되면 쉽게 실망하여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속에는 위와 같은 제자 외에도 위의 여인들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의 이 여인들이란 어린 시절이나 유아기로부터 주님이 아껴주신 그분에 대한 단순한 신뢰심과 애착이라는 심정 상태들이다. 이러한 심정 상태들은 우리가 추론해서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기 전 이미 발달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최선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우리의 의식 속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 상태들은 우리가 실패하여 낙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 안 깊은 곳에서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한 번 보고 인식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준다.

앞서 우리는 종려주일 공부에서 자연적인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능력임을 배웠다. 하지만 이 능력은 말씀에서 온 진리의 방향에 따르도록 종속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자연적인 이성은 지상의 것만을 쳐다보는 속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낙망했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삼 일만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은 어떤 확신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만사가 끝나는 것과 같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께 기대했으나 그분이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을 인식하기 전 그들은 “우리는 그분이야 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4:13-35)”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지 삼 년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세워질 그분의 왕국만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사실 누구나 피하기 힘든 것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며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나마 선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인격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중요시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눈은 감겨져 있게 되는 것이다. 육체의 눈과 세상의 학식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의 소유는 우리에게 즉시 약효를 발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인”들이 “남자”들 보다 더욱 슬기롭다고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요구된다. 우리는 겸손한 상태와 신뢰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주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활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활절의 내용에 이 정도의 교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중 특별한 것은 영계야말로 진정한 세계이며

그곳은 저 멀리 떨어진 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될 때 우리는 영계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과 거의 똑같은 몸을 갖고 깨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몸은 육체가 아닌 정신체로서, 우리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삶은 단지 선한 인간으로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죄 값을 지불하고자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내신 유일신의 유일자도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바로 그분으로서 지상의 육신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네 복음서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말한 기록자들의 기억과 인간적인 능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즉, 이 사실이 실제로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만 구약성서가 예언자나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주어져 쓰여 졌듯이, 복음서도 주님으로부터 온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 안에서 주님을 뵈지 못한다. 말씀의 글자가 인간 지성의 산물이라고 믿는 것은 다름 아닌 “무덤 입구를 막은 돌”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때로 개인의 삶 속에도 큰 지진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지진은 물질주의가 꽉 틀어막고 있는 입구를 열어 천국의 특사로 하여금 돌을 굴러 내도록 하여 텅 빈 무덤을 보게 해준다. 주님은 부활절 첫째 날 아침에 진실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적 삶일 뿐 물질적 삶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만 국한하여 생각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와 더불어 영원한 삶과 영원히 현존하시는 주님으로서의 그분을 찾고자 출발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시게 된다.

### 질문 정리

- 1)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가?
- 2)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기념하는가?

- 3) 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가?
- 4) 왜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5)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가?
- 6) 왜 군중은 주님을 환영했는가?
- 7) 왜 군중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주님께에서 돌아섰는가?
- 8) 그 주일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9)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 10) 일요일 아침 무덤에 누가 왔었는가?
- 11) 그들은 왜 왔었는가?
- 12) 그들은 오면서 무엇을 의문스러워했는가?
- 13) 그들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4)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5) 주님은 누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는가?
- 16) 그들이 주님을 뵈었다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믿었는가?
- 17) 주님은 모두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8)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9) 주님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20)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떠나셨는가?
- 21)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그리는가?
- 22) 주님이 일어나신 후 왜 여인들이 처음 그분을 뵈게 되었는가?

#### 질문의 답

- 1) 부활절 2) 죽음에서 예수가 일어나셨음을 기념 3) 종려주일 4) 군중이 주님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5) 왕의 표시 6)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 7)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발견해서이다 8) 마지막 성찬 9) 십자가에 달리심 10) 두 마리아 11)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12) 자기들을 위해 누가 돌을 굴러 내줄까? 13) 돌은 굴러졌고, 주님은 가셨고,

흰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14) 그분은 일어나셨다 15) 막달라 마리아  
16) 아니다 17)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18)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라 19) 구원 받을 것이다 20) 승천하셨다  
21) 물질주의적인 생각 22) 그녀들은 신성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표현하기  
때문

## 37

### 옥좌를 본 요한의 환상

#### 머리말

이 계시록이 주어질 당시의 사도 요한에 대한 것과 당시의 주변 환경을 간략히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4장

4장: 1.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3.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취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4.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스물네 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 네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옥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었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좌 앞에서는 일곱 횃불이 훤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느님의 일곱 영신이십니다. 6. 옥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옥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네 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으며 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네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8.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고, 그 몸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로다!”하고 외쳤다. 9.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10. 스물 네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하고 찬양했습니다.

### 교리 요점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서 있게 되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



된다.

- \*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수단으로 하여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 \* 주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재판관이시다.

### 상응 공부

나팔 = 진리의 힘이 말을 하는 것

옥좌 = 심판

사자 = 선 또는 악의 힘

송아지 = 자연적인 애착

사람 = 지혜

독수리 = 이해성

### 해설

요한계시록은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묵시록(Apocalypse)의 의미가 계시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가 율법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신약성서에 적용하면, 사복음서는 율법에 해당되고 계시록은 예언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회를 위한 새 언약이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기록인 복음서에서 주어지고 있고, 새로운 법을 글자적인 해석에 기초한 기독교회에 장차 있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자 진정한 영적 해석이 인간에게 밝혀질 때 이 기독교회가 끝날 것임을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과 21권의 서간집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기독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책들이 비록 속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매우 가치 있는 책들인 것이다. 또한 이 책들은 역사적인 것 외에도 주님의 가르침에 관한 사도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들을 본 공과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 책들이 속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들을 읽고 그 내용에 친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에 사도들의 행적과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서술과 자료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많은 교단들에 의해 권위 있는 책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계시록 1장 9절에 의하면, 당시 요한은 파트모스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는 사도들 중 가장 어렸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시작 초반부터 그들을 탄압하려고 애썼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근거로 요한이 90이 넘는 고령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섭리로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한의 마음은 환상의 예언적인 세부사항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어졌다. 제 1장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따라 다녔던 스승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셨음을 보았다. 그리고 제 2장과 3장에서는 자신이 감독한 일곱 교회에 관한 메시지로 이미 존재한 교회와 장차 그 교회와 관련하여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요한은 하늘에 문이 하나 열린 것을 본 후 곧 이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그에게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거기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다시 주님을 뵈는 것이었다. 주님은 옥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은 진리를 수단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였다.

요한이 본 환상의 세부사항은 진리의 권능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으로 이뤄져 있었다. 옥좌 자체는 심판을, 보석들이란 진리를 사랑함으로 인해 깨끗하고 찬란히 빛나게 되는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무지개란 우리의 지성 안에 받아들여진 말씀의 글자에 대한 지식 속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진리를 말한다. 원로들의 흰 옷이란 삶 속에서 표현된 진리를, 유리바다란 천국의 밑바닥에 있는 정결한 기운을 표현한다. 그리고 네 생물들 혹은 거룩들은 말씀의 글자를 수단으로 하여 말씀 속의 진리를 주님이 보호하심을 표현한다. 이 환상은 예제키엘의 환상(1장과 10장), 이사야의 환상(1:1-3), 다니엘의 환상(7:9-10)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보여준 환상과도 비교할 수 있다.

요한은 진리가 선포되는 권능과 영광에 대한 환상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장차 그가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보다 격렬하고 위험한 환상들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악의 군대는 결국 쓰러진다는 결말을 처음부터 알게 해주셨던 것이다.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은 확증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산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악의 세력이 사면팔방에 있는 것 같고 사랑과 평화의 소리는 바늘귀만큼 작은 듯 여겨진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큰 재난이 비록 그들을 시험하고 괴롭힐지라도 그것은 결국 주님의 힘을 입은 이들에게 정복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든 무슨 상관이었느냐(사무엘상 14장 6절)?”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고 말하면서 주님의 법과 약속을 담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에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로다!”라는 구절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한 지혜는 결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질문 정리

- 1) 성서의 어떤 책이 기독교회의 시작에 관해 말해주는가?
- 2) 우리는 왜 이 책을 다루지 않는가?
- 3) 우리는 본과에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 4) 이 책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5)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6) 누구에게 환상이 주어졌는가?
- 7) 요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가?
- 8) 요한은 처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 9) 그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
- 10) 본문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11) 옥좌에 관해 기술해 보자.

- 12) 몇 명의 원로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생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 14)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가?
- 15)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생물을 공부했는가?
- 16) 이 생물은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 17) 그들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 18)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는가?
- 19) 옥좌는 무엇을 표징 하는가?

#### 질문의 답

- 1) 사도행전, 서간서 2) 속뜻이 없기 때문 3) 계시록 4) 묵시록 5) 환상들
- 6) 사도 요한
- 7) 파트모스섬, 유배되었다 8) 부활하신 주님 9)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10) 옥좌
- 11) 제 2-5절 참조 12) 24 13) 4 14)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 15) 에제키엘 1장 16) 거룩들
- 1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18) 예배시간의 답창 순서에서 19) 심판

## 38

### 봉인된 책

#### 머리말

37장의 내용이 본과의 서론이 되므로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5장

5장: 1. 나는 또 옥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안팎에 글이 기록돼 있는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들여다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러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이 일곱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6.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신입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8.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 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옥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효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 교리 요점

- \* 새 교회는 열린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 \* 주님은 말씀의 내적인 의미들을 스웨덴북에게 밝히 알게 하심으로써 말씀의 봉인을 떼셨다.

### 상응 공부

양 = 순진함 또는 선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 영적인 선으로 예배함 또는 성도들의 기도

하프 = 영적인 진리로 주님께 고백함

### 해설

옥좌는 언제나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고 본문의 이 환상, 이 뒤를 잇는 각 장들도 첫 기독교회에 있어질 심판을 그리고 있다. 스웨덴북은 이 심판은 재림의 때에 거행되었다고 말한다. 그이유는 재림이 봉인을 떼었기 때문이다. 이와더불어 동기와 생각의 내적 삶의 열림은 참다운 기독교회의 건설에 필수요소가 되었다.

말씀의 영적 의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본문에 있는 옥좌에 앉으신 분과 유다 지파에 난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이 세 명의 각기 다른 인격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느님의 신성한 세 가지 모습들이다. 옥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은 분으로서 신성 그자체로의 주님을 상징하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존재하시는 무한한 분이시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는 신성한 사랑의 힘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다. 그리

고 어린 양이란 신성한 인성으로서 하느님의 모습이며, 이 인성 속에서 하느님은 스스로를 명백하게 하고 계신다. “죽임을 이미 당한 것 같은”이란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회가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내세움으로서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한 인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볼이 강조하는 그릇된 교리란 하느님을 세분의 다른 인물들(persons)로 분리시킨 것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의 희생 곧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다. 신성자체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느님 안에는 어떤 분노와 저주도 없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란 신성한 인성의 전지전능을 표현한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이란 제 8절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구절은 글자 자체에 내적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꼭 기억해야 할 구절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성막의 성소에 있는 금 분향단과 분향에 관한 제반 법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 11절의 “수천수만”에서 수만은 진리를, 수천은 선을 말한다. 그 이유는 수만이 수천 보다 더 큰 숫자로 진리는 여러 점으로 되어야 하나 선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우정을 위해서라는 선은 단순한 한 가지에 불과하나 우정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성서에서 천군 천사로 그려져 그들이 사랑의 선으로부터 또는 믿음의 진리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님만이 말씀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볼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스스로라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재차 강조한다. 그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뿐이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환상들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험들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자주 고백한다. 지상의 새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 삼자의 입장에서 새교회를 관찰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가졌다고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새교회는 다른 기독교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아함에 대해 답을 제시해주는 성경이 바로 본문이다. 본문의 핵심은 새교회인들만이 말씀이 열렸음을 인정하면서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성경의 내적 의미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스웨덴불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심으로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지만 스웨덴불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증거자이자 그분의 진리를 전달하는 종으로서 선택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스웨덴불은 세상에 가득한 “자기 총명의 자랑”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편협한가를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순간이라도 말씀의 내적 의미가 지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큰 도움이 됨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의 이기심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차차 공부하게 될 계시록의 21장에서 각자의 심판을 스스로에게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 올 때 자신의 마음을 닫아 자아를 더욱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더욱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으로 스스로를 더욱 검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심판이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심판들은 장차 저 세상에 가서 스스로를 명백히 드러내야 할 때까지, 즉 각 개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릴 심판을 하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심정 속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더욱 노력해 간다면, 우리 마음의 책이 주님의 생명책과 유사해져 감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질문 정리

- 1) 하늘에서 문이 열리자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2) 옥좌에는 누가 앉아 계셨는가?
- 3) 몇 명의 원로가 그곳에 있었는가?
- 4) 얼마나 많은 생물이 그곳에 있었는가?



- 5) 그 생물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는가?
- 6) 그 생물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 7) 그 생물은 주님께 예배할 때 뭐라고 말했는가?
- 8)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의 오른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 9) 왜 요한은 울었는가?
- 10)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11) 요한이 본 어린 양에 관하여 설명해 보자.
- 12) 원로들과 생물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 13)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노래했는가?
- 14)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어떤 것인가?
- 15) 노래 부른 뒤 네 생물은 뭐라고 말했는가?
- 16) 아멘은 무슨 뜻인가?
- 17) 이 책의 나머지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18) 새교회에서는 봉인이 떼어짐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 질문의 답

- 1) 옥좌 2) 주님 3) 24 4) 4 5)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6) 거룩들 7)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8) 두루마리 또는 책 9) 봉인을 뿜 자가 없어서 10)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11)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일곱 뿜, 일곱 눈 12) 거문고나 향이 담긴 금대접 13) 수천수만 14)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15) 아멘 16) 그렇게 되어 지리다 17) 모든 것의 심판 18) 주님이 그 책을 여셨다는 것, 내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게 됨

# 심판과 거룩한 성

## 머리말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6절을 읽어 보자. 또한 계시록 21장 2절도 주목한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21장 1-7절

20장: 11. 나는 또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토해 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  
 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  
 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 교리 요점

- \*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가 하는 도덕적 또는 영적인 선택들로 자신의 “생명의 책”을  
 집필한다.
- \* “생명의 책”은 “인격의 책”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이 책에 기록된 바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 \* 천국적인 교리로 읽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길과 목적에 관련된  
 무한한 진리의 근원이 된다.

### 상응 공부

이름 = 품질, 품성, 성질

불 못 = 심정 속에서 타고 있는 자아 사랑, 지옥

성 = 교리

예루살렘 = 교리 측면에서의 교회

생명의 샘 = 말씀

### 해설

성경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본문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로 시작된다. 글자대로의 말씀은 인간이 첫 창조이후 영적인 퇴보를 거듭하여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자멸하는 것을 막으시고 인간들의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그리는 경이로운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예언서로서의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심판이란 선과 악이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이란 주님께서 말씀을 여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선과 악을 뒤섞거나 혼동하는 일이 없게 됨을 의미한다.

본문의 첫 절은 심판이 거행되는 것이며, 뒷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 거기로부터 새 교회가 지상위에 내려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창조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인간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표현하는데, 태초에는 두 측면 모두 텅 비어 있었고 암흑만이 있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지식이나 이해성 없이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만을 갖고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있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의 성취를 상징한다.

심판에 관한 것들은 계시록의 다른 것들처럼 상징적이다. 스웨덴북은 영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앉아 계신 옥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시며 어떤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옥좌란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고 생명의 책이란 말씀이며, 열려 있는 책들이란 우리의 내적 인격이다. 내적 인격이란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게 되는 선택들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함은 그의 인격이 말씀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며 그의 마음이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 갈 때 우리 안에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러한 연유로 영계에서의 심판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영계에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덮고 있었던 덮개들이 차츰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 20장 14-15절에서 언급되는 불 못이란 다름 아닌 지옥이다. 불 못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미워함으로 불타고 있는 영혼들의 집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옥을 이루는 근본은 곧 자아 사랑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교회이다. 이 이름은 계시록 21장 2절에 근거하고 있다. 성이란 교리를 상징한다. 모든 사람은 교리를 상징하는 어떤 성, 즉 나뭇대로의 생각과 원리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개인의 마음에 있게 되는 교리는 그의 행동을 제한하고 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예루살렘성은 말씀 어디에서나 교리적 측면에서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말씀을 여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에 의해 인간에게 밝혀진 새 교리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한다. 스웨덴북은 새 하늘과 새 교회에 관한 진정한 기독교 제 791장에서 “이 일이 끝난 뒤 주님은 세상에서 그분을 따랐던 그분의 열 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 다음날 그들은 전 영계에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졌다. 이 일은 1770년 6월 19일에 거행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본문 후에 이어지는 각 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기술되고 있다. 열려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천상천하의 한 분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즉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을 알고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열려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실감하도록 해준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슬픔이나 실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해준다. 열려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며, 주님께서는 이 샘물로부터 진리에 목말라 있는 모든 이들을 채워 주신다.

### 질문 정리

- 1)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무슨 책인가?
- 2) 그 책은 얼마나 많은 봉인이 찍혀서 봉해져 있었는가?

- 3) 누가 그 책을 열었는가?
- 4) 본문에서 옥좌 앞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 5) 열려있는 책이란 무엇인가?
- 6)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되는가?
- 7)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 8) 제 21장 첫 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9)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처음 접해보았는가?
- 10) 요한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가?
- 11) 이 도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 12) 이 이름이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은 무엇인가?
- 13) 이 도성에서 축복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 주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15)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 16)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17) 주님은 어떤 종류의 목마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 18) 생명의 샘물은 무엇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질문의 답

- 1) 말씀 2) 일곱 3) 주님 4) 죽은 자들 5) 개개인의 인격 6)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7) 불 못에 던져지다 8) 새 하늘과 새 땅 9) 창세기 1장 1절 10) 거룩한 성 11) 새 예루살렘
- 12) 우리 교회의 이름이므로 13)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
- 14) 알파와 오메가 15)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16) 생명의 샘물
- 17) 진리에 목마름 18) 말씀 속의 신성한 진리 19)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격이 발달함

## 새 교회 날

### 머리말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과 인류를 위해 말씀의 진리를 밝혀 주심이 재림임을 강조한다. 주님은 인간이 언제나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 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기회는 예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많으나 그분을 거절하는 대가 역시 같은 비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21절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뭇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 교리 요점

- \*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성경을 열어 주심으로써 성취되었다.
- \* 이 밝히심은 인류에게 있게 되는 가장 큰 밝히심으로 마지막 계시이다.

### 해설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른다. 기존의 기독교회와 새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존의 기독교회에 선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인을 포함한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선한 삶이란 무엇인지,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시며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기존의 기독교회와 새교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상에 인간을 창조한 처음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훈들을 계속하여 진보적으로 준비해 오셨다. 슬기로운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인식하고 공부해서 자신들의 일상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여 차차 그분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간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고집 속에서 허우적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식에 대한 열쇠를 주셨다. 새교회는 이것을 인식하고 신성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과 말씀 안으로부터 비추어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 그분의 참된 가르침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만물의 의미를 헤아려 보려 하고 말씀의 글자적인 뜻으로 답해 질 수 없는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제기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의 내적인 의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관해서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목적 또는 영계의 본성과 실체에 관한 의문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내적 의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 위해 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주님께 더욱 끌모 있는 인간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도성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 질문 정리

- 1) 본과에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 2) 우리는 그날을 왜 그렇게 부르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4)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인가?
- 5)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절은 어디서 자주 접했는가?
- 7) 왜 주님은 그분의 재림을 만드셔야 했는가?
- 8) 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뜻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언젠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가?
- 9) 우리가 어디다하더라도 위의 사항(8항)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10) 왜 많은 이들이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가?
- 11) 10항과 같은 잘못된 결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 12) 어떤 법이 결코 변할 수 없는가?
- 13) 주님은 우리의 새 시대에 부응되도록 무엇을 해주셨는가?
- 14) 주님의 이 은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의 답

- 1) 새교회의 날 2) 진정한 기독 종교 791항 참조 3) 나는 알파와 오메가...
- 4)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 5) 요한이 그분을 인정했으므로
- 6) 예배의 축복기도에서 7) 인간이 신성한 진리를 통찰할 필요성 때문
- 8)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선한 것을 사랑함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
- 9)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10) 굉장한 과학 발전
- 11) 성경의 법은 시대에 뒤진다는 생각 12) 주님의 법
- 13) 말씀의 내적인 예배를 여셨다
- 14) 새 진리에 따라 말씀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